

I.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1. 무신란과 초기의 무신정권
2. 최씨무신정권의 성립과 전개
3. 무신란과 최씨무신정권의 역사적 성격
4. 무신정권의 붕괴와 그 역사적 성격

I.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

1. 무신란과 초기의 무신정권

1) 무신란의 주도세력

무신란은 고려사회에 커다란 변동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정치·경제·사회에 걸친 전반적인 것이었다. 무신란을 기점으로 시대를 구분한 개설서가 적지 않은 사실도 이를 말해 준다. 궁금한 것은 어떻게 무신란이 이처럼 커다란 변동을 초래했는가 하는 점인데, 이는 무신란의 성격이 드러나야 해결될 성질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무신란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 우선 서술의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¹⁾

무신란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필자는 무신들과 무신란의 관계를 검토하려고 한다. 즉 어떠한 인물들이 무신란을 주도하였으며, 난에 적극적이었던 인물들은 누구였는가. 그리고 난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 무신들은 없었는가 하는 점 등을 알아 보려는 것이다. 그들이 무신란을 주도했거나 적극적이었던 이유, 그리고 냉담했던 까닭을 알 수 있게 되면 무신란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흔히 무신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鄭仲夫로 이해되어 왔다. 《高麗史》에 무신란이 정중부의 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만큼 무리가 아니다. 일찍이 문신인 金富軾의 아들 金敦中이 훗날로 그의 수염을 태운 데에 양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이해가 상당히 일반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기록들

1) 본고는 金塘澤, 《高麗武人政權研究》(새문사, 1987) 및 金塘澤, 〈慶大升의 執權을 통해 본 武臣亂〉(《한국사 전환기의 문제들》, 지식산업사, 1993)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앞의 책이나 논문에서 이미 밝혀 놓은 전거에 대해서는 따로 註를 달지 않는다.

을 자세하게 검토해 보면, 이와는 상당히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무신란은 의종의 普賢院 행차 도중에 일어났다. 起居注 韓賴가 大將軍 李紹膺의 뺨을 때린 것이 난의 발단이었다. 문반 5품인 기거주가 무반 3품인 대장군을 모욕한데 대해 정중부 등이 크게 격분했고, 드디어는 다수의 문신들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다고 무신란을 우발적인 사건의 결과로 이해하려 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무신란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실 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이 소용이 한뢰에게 당한 모욕은 개인적인 것으로 그쳤을런지도 모른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국왕이 和平齋에 행차했을 때에 이미 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왕을 시종한 무신들이 노골적으로 불평을 토로하자, 李義方과 李高는 소변을 보기 위해 자리를 피한 정중부를 뒤쫓아가 난을 일으킬 것을 제의했던 것이다. 정중부가 여기에 동의함으로써 난은 구체화되었다. 따라서 난을 계획한 인물은 이의방·이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난을 모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중부는 그들의 각본에 따라왔을 뿐이었지 그 자신이 직접 난을 모의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교와 함께 무신란을 주도한 이의방은 全州人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동생 李隣은 후일 조선왕조를 세운 李成桂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²⁾ 이의방은 의종 말에 散員으로서 牽龍行首職을 맡고 있었다. 무신란 당시 그의 직위는 산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대인관계는 매우 다양했던 것 같다. 우선 그와 함께 무신란 때 활약한 친형 李俊儀를 비롯하여 명종 3년에 南路宣諭使를 지낸 李椿夫가 그의 중형으로 눈에 띈다. 또한 文克謙은 그와 긴밀한 사이였고, 후에는 사돈으로 인척관계까지 맺고 있었다. 그의 동생 이린이 문극점의 딸과 혼인했던 것이다. 한편 무인으로는 車仲規, 그리고 尙書 吳挺의 아들인 吳光陟 등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좋은 가문 출신인 문극점이나 오광척 등과 친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그도 상당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나 의심된다. 사실 산원이라는 벼슬 자체가 무관 자제들이 보임되는 관직이었던 것이다. 또한 그가 소속하고 있던 견룡도 權貴의 자제들이

2) 李樹健, 〈高麗後期 支配勢力과 土姓〉(《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84), 312쪽.

모두 뽑히기를 원했던 부대였음을 고려해도 그러하다.

이의방의 경우로 미루어 보면, 여기저기 단편적인 사실만이 전해지며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이고의 신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그도 역시 무신란 당시 산원으로서 건릉행수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의방·이고와 더불어 무신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인물로는 蔡元을 들 수 있다. 그는 무신란 성공 직후의 정권쟁탈전에서 이의방·이고와 겨룰 정도였던 것이다. 또한 그는 명종에 의해 무신란에서의 공을 이의방과 이고 다음으로 평가 받기도 했다. 무신란 이후 그의 직위는 內侍將軍이었는데, 이의방과 이고가 산원에서 무신란 직후 대장군으로 뛰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채원의 무신란 이전 직위도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 같다. 한편 그가 이의방 등과 함께 난을 모의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신분도 이의방 등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난에 대한 모의는 동일한 신분계층의 인물들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의방과 이고·채원 등은 무신란에 있어서의 주동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의방·이고 등과는 달리 정중부는 무신란에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고 생각된다. 무신란의 진행과정 중에 이고가 국왕을 죽이려 하자 정중부가 이를 말렸으며 또한 문신을 살해하려 했을 때도 그가 저지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러하다. 정중부와 이고의 이처럼 다른 태도를, 난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견해 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차이의 배후에는 난에 대한 정중부의 온건한 태도가 잠재되어 있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무신란에 대한 정중부의 온건한 태도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무신란 당시 그의 직위가 대장군이었던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가 어떠한 가문의 출신인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무신란 당시 그는 무반 고위층으로서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지위가 그로 하여금 무신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무반 고위직에 올라 있던 인물들이 무신란에 소극적이었음은 梁淑·陳俊·奇卓誠·李紹膺·洪仲方 등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숙은, 의종 19년에 大府卿神虎衛大將軍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무신란 직전인 의종

24년에는 그 이상의 고위직에 올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무신란 직후의 인사발령에서 정중부와 함께 參知政事に 임명됨을 보아도 그러하다. 그는 명종의 즉위와 더불어 무신란에서의 공을 정중부와 이의방 다음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무신란 당시 그의 역할이 무시될 수 없었음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고·채원 등이 의종을 시해하려 한 것을 양숙이 말렸다는 기록을 대하면, 그 역시 정중부와 같이 온건한 입장에 선 인물이었던 것 같다.

진준은 청주 呂陽縣人이었는데, 용력에 힘입어 출세하였다. 行伍로부터 시작한 그는 의종 말에 대장군에 올랐던 것이다. 무신란에 대한 그의 태도는 이의방 등이 문신들의 집을 철거하러 하자,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이복기·한회를 비롯한 4~5인이다”고 하면서 이를 만류한 데서 잘 드러난다. 즉 그는 누구보다도 무신란의 확대를 싫어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신란 당시 그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 남은 문신이 많았다는 것도 무신란에 대한 그의 온건한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幸州人인 기탁성은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는 활을 잘 쏘고 말을 잘 탔기에 등용되었다. 의종 때에 건릉에 뽑혀 항상 왕의 측근에 있으면서 권귀를 잘 섬겨 빠른 출세의 길을 밟았다. 권귀를 잘 섬겨 빨리 출세했다는 그가 무신란에 적극적이었을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그는 후일 韓彦國의 사위인 金平을 등용했는데, 한언국은 무신정권에 반기를 든 金甫當의 난에 협력함으로써 살해된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신란에서의 논공행상적인 성격을 띤 명종 즉위년의 인사발령에서 기탁성이 知御史臺事に 임명된 것을 보면, 무신란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종3품인 대장군으로서 종5품에 지나지 않는 문신 기거주 한뢰에게 뺨을 맞아 무신란의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소응에 관해서는, 그로 인해 야기된 엄청난 결과에 비해 그에 대한 기록은 극히 소략하다. 다만 그가 한뢰에게 뺨을 맞아 무신란을 일으킨 그 날 이의방·이고 등과 함께 날래고 용감한 군사들을 뽑아 서울로 가서, 난에 장애가 될 인물들을 제거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그가 난에 가담한 것은 이 사건 이후의 일로서 그 이전부터 모의에 참여했던 것 같지는 않다.

홍충방은 行伍에서 일어났으나 정중부가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옹립하

는데 공이 커 대장군에 임명되었다. 명종 7년 武散官들이 東班의 權務官職을 빼앗으려는 논의가 일어났을 때, 홍중방은 죽어도 따를 수 없다고 하여,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선왕의 제도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 그가 내세운 반대 이유였다. 따라서 그는 기존 질서에 대한 집념이 상당히 강했던 인물로 여겨지므로, 무신란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무신란 당시 온건한 태도를 취한 인물로는 이들 외에도 慶珍이나 李光弼을 꼽을 수 있다. 경진은 그의 아들 慶大升이 의종 말에 校尉에 蔭補된 것으로 미루어 무신란 직전 그의 직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무신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무신란 이후 정중부 집권기에 그가 知門下省事, 中書侍郎平章事 등을 역임했던 것으로 보아 정중부와 견해를 달리한 인물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이광정은 항오에서 입신한 인물이었다. 그는 홍중방처럼 무신란 때 정중부를 도왔기 때문에 무신란 직후 대장군에 올랐다. 무신란 당시의 그의 행동을 알려 주는 기록은 없으나, 정중부를 도와 출세한 점이나 정중부전에 그의 열전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정중부와 크게 다른 태도를 취한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정중부에서 이광정에 이르는, 무신란에 소극적이었던 인물들과는 달리 무신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물들이 있었다. 이러한 인물로는 曹元正·李英摠·石隣, 그리고 李義旼이 있다.

조원정은 옥장이(玉工) 아들이었다. 또한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모두 관기였다. 따라서 조원정은 7품 이상의 관직에는 오를 수 없는 신분적 제약을 안고 있었으나 무신란 당시 이의방을 도운 공으로 이후 출세하였다. 그는 무신란에서의 공으로 낭장에 임명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무신란 이전에는 낭장 이하의 하급장교였음이 분명하다.

이영진의 처음 이름은 寵夫였다. 집안이 대대로 보잘 것 없어서 고기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그는 邏卒이 되어 무신란에 참여하였다. 그는 무신란에서 이의방과 이고에 붙어 홍포를 마음대로 했는데, 후일 벼슬이 갑자기 刑部尙書에 뛰어 올랐다 한다. 따라서 이영진은 미천한 출신으로 무신란을 통해 출세의 계기를 잡은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창고 곁에서 쌀을 주어 먹고 살았다는 석린은 禁軍으로 무신란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의방의 휘하에서 활약한 공으로 난 후에 낭장에 오르고, 이어 상장군까지 승진하여 東·西北面兵馬使를 역임하였다. 한편 이의민에 관해서는 뒤에 자세히 서술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할 생각인데, 그는 賤系의 출신으로 무신란에서의 공으로 크게 출세한 인물이었다.

이렇듯 무신란으로 인해 출세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이들 외에, 朴純弼·白任至·鄭邦祐 등도 무신란 당시 적극적으로 활약했던 인물들로 보여진다. 박순필은 출신이 미천하였으나 무신란 이후 금군의 지휘관에 보임되었다. 그가 금군의 지휘관에 임명된 것은 무신란에서의 활약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또한 이후 그가 글씨를 잘 써서 크게 출세했다는 사실도 무신란에 대한 그의 태도를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만일 문신 집권 아래였다면, 글씨를 잘 썼다는 사실만으로 출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처럼 그가 무신란의 덕을 톡톡히 본 인물임을 감안하면, 무신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무리는 없을 것이다.

백임지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으나, 날쌔고 용맹스러워 군인에 선발되었던 인물이다. 그는 무신란 이전 內巡檢軍이었다. 그가 무신란에 참여하였는가의 여부를 알려 주는 기록은 없다. “御駕의 출입을 호종하는 데 있어서(항상)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으로³⁾ 보아서는 오히려 난에 가담하지 않았으리라는 느낌도 든다. 그러나 이의방과 이고가 이복기·한뢰 등을 죽이는데 순검군을 이용하였고, 그가 난 후에 ‘크게 출세해서 귀해졌음’을 고려하면, 그가 내순검군으로서 난에 협력한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정방우는 잡류에 속한 電吏였다. 잡류는 군공이나 등과에 의하지 않고서는 품관까지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 고려의 현실이었다.⁴⁾ 이러한 신분적 제약을 안고 있던 정방우가 무신란 후에 현달한 것은 난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진 데에 그 원인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무신란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崔世輔도 정방우 등과 비슷한 성격의 인물로 보여진다. 최세보는 본래 한미한 가문의 출신으로 글을 알지 못했다

3) 《高麗史》 권 100, 列傳 13, 白任至.

4) 洪承基, 〈高麗時代의 雜類〉(《歷史學報》 57, 1973), 76쪽.

한다. 그는 의종 21년 「丁亥流矢之變」으로⁵⁾ 유배되었다가, 무신란으로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자 유배에서 풀려나 舊職에 임명되었다. 만일 무신란이 아니었다라면 그는 유배에서 풀려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무신란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정권의 타도에 앞장설 만한 충분한 소지는 갖추고 있었던 인물로 생각된다. 무신란 후 그가 크게 출세한 것으로도 이러한 성격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까지 검토한 무인들은 비록 온건한 태도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무신란에 가담했던 인물들이다. 그런데 무신란 이후 고위직에 오른 무인들 가운데는 무신란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인물들도 있었다. 于學儒·宋有仁·吳光陟·文章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학유는 이의방과 이고가 애초에 무신란의 「主兵者」로서 내정한 인물이었다. 즉 이의방과 이고는 정중부에 앞서 우학유에게 무신란을 지휘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이다. 우학유가 “죽어도 따를 수 없다”고 강하게 거절하자,⁶⁾ 그들은 정중부를 찾아가 자신들의 계획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면 우학유가 “죽어도 따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난에 가담할 것을 꺼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우학유의 가계나 당시 그의 직위를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 邦宰는 벼슬이 右僕射에까지 이르렀으며, 그의 당시 직위는 대장군이였다. 이러한 우학유가 난이라는 모험에 쉽게 뛰어 들리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 그에게는 역시 ‘충직하고 근신하여 다른 뜻이 없었다’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것이다. 설사 난에 참여하는 것이 당시 그가 누리고 있던 지위보다 훨씬 나은 상태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우학유의 아버지가 항시 그에게 경계하였다는 “문관이 해를 당하면 화는 우리에게 미친다”는⁷⁾ 말은 불만스롭기는 하지만 현재체에 안주하려는 당시 고위 무신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5) 이는 의종 21년(1167), 왕의 행차 중에 金敦中이 실수로 의종의 수레 곁에 화살을 떨어뜨린 사건이다. 왕은 이를 亂賊의 소행으로 오인하여 궁중에 계엄을 펴는 한편, 宰樞에게 명하여 적을 잡도록 하였다. 이 때에 왕의 호위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하여, 牽龍·巡檢指諭 14인을 유배보냈다(《高麗史節要》 11, 의종 21년 정월 참조).

6) 《高麗史》 권 100, 列傳 13, 于學儒.

7) 위와 같음.

송유인은, 인종 때에 부친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공을 세운데 힘입어 곧바로 산원을 제수받고 벼슬을 시작했던 인물이다. 음서를 받은 사람의 첫 벼슬이 대부분 同正職이었음을 감안하면,⁸⁾ 그는 음서 중에서도 특례에 속하는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무신이었으면서도 문신들과 교우를 즐겼기에 무신들로부터 질시를 받았다 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무신란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참여는 커녕 ‘무신란으로 인해 그에게 닥칠 화를 걱정하였다’는⁹⁾ 정도였으니 난에 대한 그의 태도가 비협조적이었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문신들과 교우관계가 깊었던 무인은 송유인 외에도 오광척과 문장필이 있었다. 오광척은 벼슬이 상서에 이른 오정의 아들로 문사들과 교유를 즐기고 武를 싫어했다 한다. 한편 문장필은 守司空左僕射·龍虎軍上將軍을 지낸 그의 아버지의 음서로 관도에 진출하였다. 그 역시 오광척과 더불어 문신 자제들과 가까이 지냈다 한다. 이처럼 무인이었으면서도 문신들과 同契를 맺고 무를 싫어했다는 이들도 송유인의 경우와 같이 무신란에 비협조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학유에서 문장필에 이르는, 무신란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무인들은 좋은 가문의 출신으로 대체로 음서에 의해 관도에 진출하였다. 또한 그들은 문신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들의 무신란에 대한 냉담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변혁에 의하지 않고서도 무신으로서의 특권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던 인물들이었다. 이러한 그들이 현재의 지위마저 무너질 위험을 안고 난에 가담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것이다.

이들 무인들은 무신란에 가담하지 않았으면서도 무신란 이후 정치적으로 건재하였다. 우학유는 이의방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 들여 이의방과 인척관계를 맺었고, 송유인은 정중부의 딸을 처로 맞이함으로써 무신정권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오광척은 이의방과의 평소 친분에 힘입어 무신란 이후 장군을 제수받았다 한다. 이들은 이처럼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무신란

8) 金光洙, 〈高麗時代의 同正職〉(《歷史教育》 11·12, 1969), 140쪽.

金龍善, 〈高麗蔭叙制度研究〉(一潮閣, 1991), 65~68쪽.

9) 《高麗史》 권 128, 列傳 41, 鄭仲夫 附 宋有仁.

이후 그들이 걷는 정치노선도 동일하지만은 않았다. 우학유와 오광척 등이 이의방에 협력했는가 하면 송유인이 정중부정권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한편 이의방과 정중부의 입장에서도 이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기 보다는 정권에 참여시키려는 것이 그들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들이 무인으로서의 비교적 좋은 가문 출신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무인들 내부에 끼칠 그들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앞서 무신란의 사실상의 주동인물들은 이의방·이고 등이고, 정중부는 「主兵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무신란 당시 이의방·이고 등이 정중부에게 「주병자」의 역할을 부탁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신란 당시에 이의방·이고 등의 직위가 정8품의 산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이것은 그다지 풀기 힘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산원은 武班의 서열상 고급장교라기보다는 하급장교에 가깝다. 하급장교인 이들이 난을 주도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난을 합리화시키고 더 많은 동조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었을까 한다. 또한 그들보다 직위가 높았던 무반 고위층의 항배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그들은 정중부를 ‘주병자’로 내세웠다고 생각된다.

정중부는 난의 전면에 내세워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다. 당시 그는 대장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난 눈동자에 이마가 넓었고 피부는 희고 수염이 보기 좋았으며 신장이 7척이 넘었으므로, 바라보면 가히 두려움을 느낄만하였다”는 풍모의 소유자였던 것이다.¹⁰⁾ 그가 「주병자」의 역할을 수락하여 무신 고위층을 규합했음은 이광정과 홍중방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광정은 “정중부가 의종을 폐할 때 이광정이 그 모의에 참여하였다”고 했으며,¹¹⁾ 홍중방에 관해서는 “정중부가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옹립할 때 홍중방이 힘을 썼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다.¹²⁾ 그러나 이들을 규합했던 정중부 자신이 난의 모의가 무르익은 연후에 참여했음을 고려하면, 이들도 정중부와

10) 《高麗史》 권 128, 列傳 41, 鄭仲夫.

11) 《高麗史》 권 128, 列傳 41, 鄭仲夫 附 李光挺.

12) 《高麗史》 권 100, 列傳 13, 洪仲方.

크게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난에 대한 모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중부 등의 무반 고위층이 무신란에 적극적이지 못했음은, 정중부에서 이광정에 이르는 무인들을 분석하면 알 수 있다. 비록 行伍로부터 일어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난 당시 무반 고위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무신란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었던 것이다. 이들의 무신란 참여는 문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지만, 무신란과 같은 대변혁을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는 이의방 등이 문신을 살륙하려 하자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이복기·한뢰 등 4~5인이다”고 하여, 그들의 불만은 특정한 문신 몇 명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 陳俊의 말¹³⁾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무신란에 있어서의 온건집단이라고 불러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한편 이의방 등의 휘하에서 커다란 활약을 했던 조원정 이하 최세보에 이르는 무인들은 무신란 이전에는 일반 군인들과 다른 없는 낮은 직위의 무신들이었다. 사실 산원에 불과했던 이의방과 이고가 난에 이용할 수 있었던 병력이라면 산원 이하의 하급장교나 일반군인들이었을 것이다. 조원정·석린·이영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무신란 당시 이의방을 따랐기 때문에 출세했다고 《高麗史》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즉 무신란에서 온건한 태도를 취한 무인들이 정중부에 협력했다면, 이의방 등은 조원정·정방우 등 하급 무인들을 배경으로 하여 난을 모의하고 수행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무신란에서의 행동집단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

조원정에서 최세보에 이르는 무인들은 限職의 대상이 되는 신분층을 포함한, 미천한 신분의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신분상의 제약을 뚫고 나아간 것은 무신란 이후의 일로서 무신란이 그들의 신분적 굴레를 벗겨준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그들의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제공된 것은 아니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무신란에 뛰어 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무신란을 통해 일대 변혁을 기도했음이 분명하다. “文冠을 쓴 자는 비록 胥吏라도 씨를 남기지 말라”는 이들에게 적합한 행동지침이었던 것이다.

하급 무신들의 이러한 행동에 호응하여 “군졸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13) 《高麗史》 권 100, 列傳 13, 陳俊.

한다.¹⁴⁾ 군졸 즉 일반군인이 봉기했다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그들은 그들의 누적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당연히 받아야 할 군인전을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온갖 力役에 까지 동원되었던 일반 군인들은 그 이전부터 도피 등의 방법으로 소극적인 반항을 피해 오고 있었다.¹⁵⁾ 그런데 이제 문신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살륙하라는 상급자의 지시까지 있었고 보면 그들의 행동이 견잡을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들은 문신 50여 인을 살해하는데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혹하게 굴었던 인물들을 색출하여 처단하기까지 하였다. 다음의 기록이 그러한 사실을 전해 준다.

군사들이 兵部郎中 陳允升의 집에 가서 거짓으로 말하기를 ‘왕이 글을 내려 먼저 대궐에 나오는 사람을 承宣에 임명한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윤승이 나가니 군사들이 그를 죽이고 그에게 큰 돌을 안겨 놓았다. 이에 앞서 壽星이 보였다 하여 眞觀寺 남쪽에 祠堂을 창건하였다. 윤승이 이 공사를 감독하였는데, 군사들이 운반한 돌을 반드시 저울로 달아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했던 것이다(《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24년 9월).

요컨대 무신란은 일반 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이의방 정권

무신란 직후 성립된 무신정권이 어떠한 인물들에 의해 장악되었는가를 알아 보는 방법의 하나로 명종 즉위년(1170)의 인사발령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 인사발령에서 무인만을 가려보면 다음과 같다.

정중부 : 참지정사	양 속 : 참지정사
이소응 : 좌산기상시	이 고 : 대장군 · 위위경 · 집주
이의방 : 대장군 · 진중감 · 집주	기탁성 : 어사대사
채 원 : 장군	

14)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24년 8월 정축.

15) 李基白, 〈高麗軍役考〉(《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139~141쪽.

위에 의하면 무신란 직후 출범한 무신정권은 무신란에서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인물들과 무신란을 주도한 인물들의 연합에 의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중부·양숙·이소응·기탁성 등이 온건한 태도를 취한 인물들이던데 반해, 이고·이의방·채원 등은 무신란을 주도한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무신란을 주도한 무인들이 장악하였던 것 같다. 이는 이후의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정중부를 제외한 이의방·이고·채원 사이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미루어서도 짐작되는 일이다. 명종 원년(1171) 이고는 이의방과 채원의 연합에 의하여 제거되고 3개월 후에는 채원도 이의방에 의하여 살해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중부는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職을 사양하고 두문불출했다 한다.

이고와 채원이 제거된 후의 무신정권은 李義方 1인의 독차지였다. 그러나 정중부의 세력도 전연 무시할 수만은 없었던 것 같다. 이의방이 두문불출한 정중부에게 술을 들고 찾아가 父子의 義를 맺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의방은 정중부와와의 이러한 타협을 통해, 그의 집권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고위 무신들의 반발을 무마해 보려 하였다. 무신란 전에 낮은 직위에 머물렀던 이의방으로서는 집권 이후에도 고위 무신들을 도외시킬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고려 무신들에 대한 이의방의 회유는 重房에 대한 그의 정책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무신란 이후 중방의 권한은 크게 확대되었는데, 무신란 이후 최초로 성립된 것이 이의방정권임을 감안하면 중방의 역할이 강대해 진 것은 곧 이의방정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장군의 합의기구인 중방의 권한 확대에는 고위 무신들에 대한 이의방의 정치적인 배려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의방은 고위 무신들에 대한 회유와 아울러 난에서의 행동세력으로 그가 이용했던 하급 무인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미친한 신분출신으로서 무신란에 적극적이었던 하급 무신들이 이의방정권 아래에서 크게 진급했던 것은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한편 명종 3년에는 문신들의 出仕路였던 지방관에 무인들을 임용함으로써 무인들에게 벼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 주었는데, 이 또한 하급 무신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되었다고 이해된다. 지방관예의 무인 임용은 고위 무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급 무신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의방정권은 문신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金甫當의 난이 그것이다. 명종 3년 東北面兵馬使・諫議大夫 김보당은 東北面知兵馬事 韓彦國 등과 공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그가 난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이의방・정중부의 제거와 의종의 복위였다. 김보당은 張純錫・柳寅俊을 南路兵馬使, 裴允材를 西海道兵馬使로 삼아 군사를 일으킨 한편, 장순석 등을 巨濟에 파견하여 그곳에 유배되어 있던 의종을 받들고 慶州로 나오게 하였다. 이 소식에 접한 이의방은 이의민으로 하여금 의종을 살해하도록 했는데, 의종의 죽음으로 김보당세력은 힘을 잃고 무너지고 말았다.

김보당의 난은 불과 3개월만에 진압되고 말았지만, 그 난이 끼친 영향은 대단하였다. 김보당은 죽음에 임하여 거짓으로 말하기를 “무릇 문신으로 공모하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함으로써,¹⁶⁾ 많은 문신들이 살륙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 사건을 「癸巳의 亂」이라고 부르는데, 이 때 희생된 문신의 수가 매우 많았음은 경인년에 일어난 무신란과 이 사건을 합하여 「庚癸의 亂」이라고 일컫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 문신들의 정치적 지위가 더욱 약화되었음은 물론이다.

김보당은 무신란을 전적으로 부인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가 무신정권에 참여한 사실만으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¹⁷⁾ 실제로 그는 의종대의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무신란 직후에 환관 鄭誠의 고신에 서경한 인물들의 탄핵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다.¹⁸⁾ 그와 함께 난을 일으켰던 한언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명종 2년 右諫議大夫로서 同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했던 사실만으로도¹⁹⁾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문신으로서 는 비교적 무신정권에 깊숙히 관여했던 김보당과 한언국이 무신정권에 반기를 들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 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김보당이 거병의 명분으로 이의방・정중부의 제거와 의종의 복위를 내세웠던 점으로 미루어, 의종의 폐위와 이의방의 정권 장악을 못마땅하게 여겼음이 분명하다. 의종대의 정

16) 《高麗史節要》 권 12, 명종 3년 9월.

17) 黃秉晟, 〈金甫當亂의 一性格〉(《韓國史研究》 49, 1985), 39쪽.

18) 《高麗史節要》 권 12, 명종 원년 9월.

19) 《高麗史》 권 73, 志 27, 選舉 1, 科目 1.

치 에 불만을 가진 그들이었지만, 무신란 이후 전개된 정치상황 역시 그들의 기대와는 판이했던 것이다. 일반 군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무신란 자체가 애초에 난을 주도한 인물들이 의도했던 것보다는 훨씬 확대된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이의방정권은 명종 4년에 일어난 趙位寵의 亂을 계기로 몰락하였다. 西京留守・兵部尙書 조위충은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의종을 살해하고 장사지내지 않은 것을 성토함과 동시에, “듣건대 開京의 중방이 의논하기를 근래 북계의 여러 성이 거칠고 강하므로 이를 공격하여 토멸해야 한다 하고 이미 크게 군사를 발하였으니, 어찌 우리가 앉아서 죽음을 당하겠는가. 모두 병마를 규합하여 속히 서경에 모여라”는 내용의 격문을 동북 양계의 여러 성에 보냈다.²⁰⁾ 이에 岫嶺(또는 慈悲嶺) 이북의 40여 성이 호응하여 그 기세가 자못 떨치었다 한다. 이의방은 中書侍郎平章事 尹麟瞻으로 원수를 삼아 3군을 이끌고 조위충을 치게 하였으나 도리어 절령역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김보당의 난과 조위충의 난은 모두 양계에서 일어났고 또 정중부・이의방을 토멸하기 위한 반란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김보당의 난에 있어서 주동이 된 인물들은 兵馬使機構에 소속된 문신 관료들이었다. 동북면병마사 김보당이 중심이 되고 지병마사 한언국, 兵馬錄事 李敬直・張純錫 등이 공모했던 것이다. 즉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들이 병마사의 병력을 이용하여 난을 일으킨 것이 김보당의 난이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조위충의 난을 일으킨 중심 인물들은 서북면의 토착인이었다. 서북면의 토착세력인 都領들이 중앙에서 파견된 병마사와 수령들을 살해했던 것이다.²¹⁾

도령은 양계 州鎭軍의 지휘관이었다. 그들은 중앙의 무반에 비해 정치・경제적으로 훨씬 낮은 처우를 받아 왔으므로 그들의 불만을 표출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한편 그들의 지휘 아래 있던 양계인은 모두 주진군에 편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兵農一致의 군인이었던 것이다. 조위충의 난이 쉽게 진압되지 않았던 것도 그들이 군대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20) 《高麗史》 권 100, 列傳 13, 趙位寵.

21) 邊太燮, 〈武臣政權期の 反武臣亂의 性格—金甫當의 亂과 趙位寵의 亂을 중심으로—〉(《韓國史研究》 19, 1978).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같은 군인들이 무신란 이후 중앙에서 크게 부상한 데에 자극되어 있었다. 즉 그들이 조위총의 선동에 호응하여 난에 가담한 것은, 무신란 이후 하급 무신들과 일반 군인들의 진출에 크게 고무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²²⁾

3) 정중부 정권

정중부의 아들 鄭筠에 의한 이의방의 살해는 조위총의 난에 대한 제2차 토벌군의 출동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정군의 이러한 거사는 從軍僧들과의 결탁 아래 은밀히 행하여졌는데, 집권자 이의방의 피살이 토벌군 사이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토벌군이 커다란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음은 한가닥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당시 토벌군 지휘부의 편성을 살펴 본다면 이러한 의문은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토벌군의 지휘부는 기탁성·진준·경진 등을 주축으로 편성되었던 것이다.

기탁성·진준·경진은 모두 무신란 이전부터 고위직에 올라 있던 무인들로서 무신란 당시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정군에 의한 이의방의 제거는 무신란 당시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고위 무신들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제1차 출정군이 조위총을 토벌하지 못하고 대패한 데 대한 책임을 이의방에게 돌려 그를 살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³⁾

이의방이 제거된 후의 무신정권이 정중부를 비롯한, 무신란 당시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무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이의방의 제거 며칠 후인 명종 4년 12월의 인사발령에 뚜렷이 나타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중부 : 문하시중

양 속 : 참지정사

22) 金塘澤, 〈高麗 武人執權 초기 民亂의 性格〉(《國史館論叢》20, 國史編纂委員會, 1990), 123~124쪽.

23) 安永根, 〈鄭仲夫政權과 宋有仁〉(《建大史學》1, 1989), 7쪽.

경 진 : 지문하성사
 송유인 : 추밀원부사

기탁성 : 지추밀원사
 이광정 : 추밀원부사 · 어사대부

이들은 송유인 한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 무신란 당시 온건한 태도를 취했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송유인이 정중부의 사위가 되었음을 감안하면 정중부 정권은 그와 뜻을 같이 하는 무인들만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중부정권 아래서는 하급 무신들과 고위 무신들의 갈등이 심각했던 듯하다. 다음의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이다.

檢校 將軍 이하 散員 同正 이상의 무신관들이 동반의 권무관직을 빼앗을 것을 논의하였다. 중방이나 대간은 그들의 입을 두려워 하여 감히 무엇이라고 말하지 못하였다. 홍중방이 홀로 말하기를 ‘나라에서 관제를 정하고 직무를 분장시켜 온 이래로 오직 卿 · 監을 제외하고는 무신이 문관직을 겸한 경우가 없었다. 경인년 이후로 우리 무신들은 대간에 들어가고 또한 朝班에 늘어서는가 하면, 校尉 · 隊正에게도 僕頭를 쓰도록 허락했으며 서반의 散職이 외관에도 임명되었는데, 이는 진실로 선왕의 제도가 아닌 것이다. 만약 또 갑자기 권무관까지 빼앗는다면, 그 동반 · 서반을 정한 제도는 어찌한단 말인가. 나는 차라리 죽을 지라도 이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니 논의가 드디어 그쳤다. 이에 서반의 산직관들이 길에 무리지어 모여서 높은 관리를 볼 때마다 호소하더니, 하루는 홍중방을 만나 길을 막고 욕하였다. 홍중방이 소매를 걷어 올리고 말을 달려 헤치고 나와 중방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오늘 거의 죽을 뻔 하였다.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능멸함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고 하였다(《高麗史》 권 100, 列傳 13, 洪仲方).

이 기록은 정중부집권기인 명종 7년의 것이다. 하급 무신들의 동반 권무관직 임명요구에 대해 大將軍 洪仲方은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이미 선왕의 제도와 어긋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으므로 이것마저 허락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왕의 제도는 기존의 법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왕의 제도에 어긋나는 현상들은 곧 무신란 이후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홍중방은 무신란 이후의 변화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그가 하급 무신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무신란 이후 무인에 의한 문반직 兼帶가 지나쳤음을 강조했던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변화 자체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화의 폭이 큰 데에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하급 무신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인물은 홍중방이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관철된 것을 보면, 상당수의 고위 무신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반기지 않았음은 당연해 보인다. 급격한 변화는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들과는 달리, 동반의 권무관직을 요구한 하급 무신들은 변화를 바라는 존재들이었다. 따라서 정중부집권기 고위 무인들과 하급 무인들의 갈등은 무신란 이후의 변화에 대해 그들이 인식을 달리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하급 무신들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일반 군인들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무신란이 일어나자 그들이 「봉기」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은 무신란을 일대 변혁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정중부정권은 이러한 일반군인들의 반발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일반 군인들이 정중부정권의 타도를 주장하는 익명의 방을 붙였는가 하면, 정중부집권기 동안 옥사가 연이어 일어났다는 사실이 이를 반영한다. 사실 일반군인들의 정중부정권에 대한 불만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정중부정권이 무신란 당시 온건한 입장을 취한 인물들로 구성되었음을 감안하면 그의 정권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했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정중부정권은 하급 무신들과 일반 군인들의 반발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군인들의 정중부정권 타도 주장에 정중부의 아들 정균이 관직을 그만둘 것을 청하고 며칠 동안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나, 하급 무신들의 동반 권무관직 요구에 대간이나 중방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정중부정권은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신란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그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염두에 두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들은 무신란에서의 그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정중부정권도 성립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정중부는 당시 26세에 불과했던 청년 장군 慶大升에 의해 제거되었다. 경대승의 정중부 제거에는 牽龍軍 장교 수 명과 그들이 거느린 건룡군, 그리고 死士 30여 인이 동원되었다고 《高麗史》는 전하고 있다. 死士는 그 표현만으로 미루어, 죽음을 무릅쓴 결사대였다고 할 수 있다. 경대승은 이들 결사대

로 야간에 요소를 장악하고 건릉군으로 하여금 정중부 일당을 살해하도록 하는 한편, 禁軍을 출동시켜서 정중부를 체포하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경대승의 집권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의 집권은 정중부 제거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4) 경대승 정권

慶大升이 정중부의 제거를 결심한 데에는 정중부의 사위인 송유인이 文克謙과 韓文俊을 탄핵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다. 이로 인해 송유인은 조야의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 이전부터 정중부의 제거를 마음에 두었으나 결행하지 못하고 있던 경대승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했음은 당연하다. 이제 정중부를 제거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경대승은 예견했을 것이다. 조야의 인심이 자신에게 모아질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문극점과 한문준은 모두 문신이였다. 따라서 이들의 좌천을 비난하고 송유인에게 등을 돌린 인물의 대부분은 문신들이었을 것이고, 그들의 이러한 불만이 정중부의 실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실은 곧 문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 때까지 존재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의 고위 관직 대부분을 여전히 문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분석까지 있고 보면,²⁴⁾ 이러한 해석은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경대승집권기인 명종 13년 重房이 동반의 관직을 줄일 것을 청하는 등, 문신들의 지위에 타격을 가할 만한 조치를 취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신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고위관직을 문신들이 점하고 있었다고 해서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존재했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실질적인 권력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문신들의 불만이 정중부 실각의 결정적

24) E. J. Shultz,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Korea under the Ch'oe House : 1196~1258*,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76, p.79.

인 요인은 아니었던 것이다.

송유인으로부터 탄핵당한 문극점은 무신란 직후부터 이의방에게 기용되어 무신정권의 성립에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다. 즉 그는 오랫동안 무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탄핵에 불만을 품었던 인물들은 문신 아닌, 무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무인들이었기에 정중부의 사위 송유인에게 불만을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송유인의 越權에 불만을 품은 무인들은 경대승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설사 지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경대승의 쿠데타를 방관했음은 분명하다. 쿠데타 당시 중방의 태도를 미루어 보아 그러하다.

중방은 무신란 이후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로 등장하였다. 모반사건과 같은 국가의 중대사는 모두 중방에서 처리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방의 기능은 경대승의 집권기에도 변함이 없었다. “王(명종)의 성품이 유약하여 모든 나라일이 여러 장군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왕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는 기록으로²⁵⁾ 알 수 있는 일이다. 여기의 장군들이 중방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방의 이러한 지위나 역할로 미루어, 만일 고위 무신들 대다수가 경대승의 쿠데타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면, 이에 대한 응징이 뒤따랐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물론 경대승의 제거를 제의한 무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런 주장을 펼 무인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생각된다. 사실 중방의 방해가 있었다면 경대승의 집권은 불가능했을런지도 모른다. 결국 경대승의 쿠데타는 적지 않은 중방 무인들의 협조 내지는 묵인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경대승은 中書侍郎平章事를 지낸 경진의 아들이었다. 경진이 중서시랑평장사에 오른 것은 무신란 이후인데, 그의 가계는 무신란 전에 이미 무반 가문으로서 매우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른 무반 가문들과 광범위하게 혼인을 맺었던 점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일인데, 경대승의 동생은 무신란 발발의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소응의 사위였으며, 장군 孫碩은 그의 인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문에 힘입어 경대승은 의종 22년 15세의 나이로 校

25) 《高麗史節要》 권 12, 명종 13년 2월.

尉에 蔭補되었다.

경대승이 무신란을 겪은 것은 17세 때였다. 당시 그의 활동을 알려주는 기록이 없어, 그가 무신란에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무신란 이후 그가 취한 행동으로 미루어 보면 그는 무신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해된다. 당시 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추측은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신란 이후 빠른 승진을 거듭하였다. 정중부를 제거할 당시인 명종 8년에 그는 이미 장군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교위에 음보된 후 10년만의 일이었다.

경대승의 빠른 출세는 그가 禁軍의 지휘관이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무신란 이후 금군의 정치적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에, 당시 금군의 지휘관은 정치적인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경대승이 금군의 지휘관이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의 아버지 경진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가 宋群秀 등과 함께 行首職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송군수는 정중부의 사위인 송유인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금군의 지휘관은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임명될 수 있었음을 알려 준다. 실제로 고위 무신들이 금군의 지휘관에 자신의 자제를 임명하기 위해 다투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²⁶⁾ 결국 경대승은 무신란에의 참여에 의해서가 아닌, 가문의 배경에 의존하여 출세한 인물이었다.

경대승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의 열전이 무신란 이후 집권한 무인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高麗史》叛逆傳에 실려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그 이전이나 이후의 무인집권자들 모두가 반역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경대승만은 일반 열전에 올라있는 것이다. 경대승의 전기를 일반 열전에 수록한 것은 《高麗史》의 찬자였다. 그런데 동 찬자의 그와 같은 편찬 방침에는 경대승 당대의 인물들, 특히 문신들의 그에 대한 평가가 크게 참고되었을 것이다. 경대승 당대 문신들의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그를 《高麗史》叛逆傳에서 제외시켰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당시의 문신들은 그를 이의방·정중부

26) 曹元正의 경우, 그는 자신의 아들이 尙書 史正儒의 아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동궁 牽龍指諭에 임명되지 못하자, 국왕인 명종에게 항의하였다 한다(《高麗史》권 128, 列傳 41, 趙元正).

등과는 다른 인물로 파악했음이 분명하다.

경대승이 문신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무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인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경대승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다음이 참고된다.

(경대승은) 항상 무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분개하여 復古의 뜻이 있었으므로 문관들이 기대어 중하게 여겼다(《高麗史》 권 12, 世家 12, 명종 13년 7월).

문신들이 왜 경대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의 기록이다. 경대승이 품었다는 ‘復古의 뜻’의 「복고」는 무신란 이전의 상태고 되돌아 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표현대로라면, 경대승은 무신란이 나 그로 인해 성립된 무신정권을 부정했던 인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경대승이 ‘복고의 뜻’을 품었다고 한 표현에는 적지 않은 과장이 섞여있다고 생각된다. 경대승 자신의 표현 아닌, 문신들의 그에 대한 평가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문신들은 「복고」에 대한 자신들의 바램을 경대승을 통해 드러낸 것이 아니었나 한다. 그렇다고 이러한 표현이 무신란과 무신정권에 대한 경대승의 인식과 전혀 별개의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가 무신란과 무신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경대승은 무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분개하여 복고의 뜻을 품었다 한다. 그런데 무인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취한 것은 무신란 이후였다. 그 이전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무신란으로 인한 상황의 변화가 무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경대승이 무인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분개했다는 것은 곧 무신란 이후의 변화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경대승의 정치적 성격은, 그가 정중부 일당을 제거하고 난 후 朝士들이 하례하자 “임금을 시해한 자가 아직 살아 있는데 어찌 하례하는가”라고 하여²⁷⁾ 李義旼을 제거할 뜻을 분명히 했다는데 이르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무인들은 무신란의 성공과 함께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새로운 국왕으로 옹립했다. 폐위된 의종을 이의민이 살해한 것은 동북면병마사 김보

27) 《高麗史》 권 100, 列傳 13, 慶大升.

당이 의종의 복립을 내세워 기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민에 의한 의종의 살해는 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취해진 행동이 아니었다. 이의방정권의 존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의방은 난의 진압을 위해서는 기병의 명분부터 제거해야만 했던 것이다. 결국 이의민에 의한 의종 살해는 무신란과 이후의 무신정권 성립에 기여한 무인들의 의사가 집약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금을 시해한 자’라는 이의민에 대한 경대승의 비난도 이의민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무신란과 이후의 무신정권 성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인물 모두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국왕의 살해는 기존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과 다를 바 없다. 국왕은 자기 당대의 정치세력을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王朝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신란 이후 국왕이 폐위되고 또한 살해되었다는 사실은 곧 무신란이 커다란 변화를 수반했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의종을 살해한 이의민 등은 기존체제를 거부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나선 장본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행위를 맹렬히 비난한 경대승은 급격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은 인물이었을 것이다. 결국 무신란 이후의 변화에 대한 불만이 경대승으로 하여금 무신란이나 무신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중부 일당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경대승이었지만, 그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했었다. 이러한 그의 불안은 정적의 위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는 都房을 조직하여 이에 대처하였다.

도방은 경대승의 사병조직이었다. 이러한 사병조직은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그에 의해 최초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도방의 주된 구성분자는 「死士」였다. 이 사사 가운데는 경대승이 쿠데타 당시 거느렸던 30여인의 사사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때에 京城에 도둑이 많이 일어났는데, 스스로 경대승의 도방이라 칭하였다. 관리가 체포하여 이를 가두면 경대승이 즉시 이를 석방하였다”라는 기록에 따르면,²⁸⁾ 이들 도방원은 도둑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그 도둑의 실체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논의할 겨를이 없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이들이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자들

28) 《高麗史》 권 100, 列傳 13, 慶大升.

이었다는 사실이다. 경대승이 이러한 자들을 쿠데타에 동원했고 도방에 불러 들였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어렵다.

사사 혹은 도둑은 개인적인 완력을 사용하여 생계를 유지한 자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들은 안정된 사회 분위기에서는 환영받기 어려운 존재들이다.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에 그들은 등장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무신란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용어들이 무신란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으로 미루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²⁹⁾ 따라서 이들의 등장을 통해서도, 무신란 이후는 개인의 용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방에는 牽龍이 소속되어 있었다. 경대승이 건룡 金子格을 시켜서 도방을 거느리게 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김자격은 건룡의 지휘관으로서, 아울러 도방을 통솔했을 것이다. 그런데 건룡은 禁軍이었다. 국가의 군인이 개인의 사병으로 이용된 구체적인 예를 확인한 셈이다.

경대승이 사사나 도둑 그리고 금군을 도방의 구성원으로 삼은 것은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사실 사병의 조직 자체가 기존 질서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대승 역시 무신란 이후의 변화에 냉담할 수 없었음을 알려 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경대승은 도방원에게 “긴 베개와 큰 이불을 만들어 날을 번갈아 숙직케 하였는데, 혹은 스스로 함께 이불을 덮음으로써 성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한다.³⁰⁾ 복고의 뜻을 품었다고까지 표현된, 좋은 가문 출신의 경대승이 무뢰배와 다를 바 없는 사사들과 한이불을 덮고 지냈다는 사실은 주목되어 마땅하다. 자신의 권위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임을 경대승이 인식한 결과가 아니었나 한다. 그 역시 변화의 대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대승은 집권과 더불어 이의민의 제거를 공언하고 나섰다. 이에 이의민은 경대승을 피해 그의 고향인 경주로 낙향하기에 이르렀다. 경대승은 또한 학식이나 용략이 없는 자들을 거부했다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대체로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서 무신란에 적극 참여하여 출세의 계기를 마련한 무인

29) 鄭杜熙, 〈高麗武臣執權期の 武士集團〉(《韓國學報》8, 一志社, 1977), 78~80쪽.

30) 《高麗史》권 100, 列傳 13, 慶大升.

들이었다고 이해된다. 이는 李英摺의 경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했을 정도의 가문 출신인 이영진은 경대승의 집권기에 정치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좋은 가문 출신의 경대승이 이들을 용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무신란 이후의 변화를 주도한 장본인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경대승이 ‘弑君者’라고 이의민을 비난한 것이나, ‘학식이 나 용량이 없는 자’를 거부한 데에는 미천한 출신 무인들의 정치적 진출과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그의 반감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의민이나 이영진과 같은 무인들 역시 경대승에게 호의적이었을 까닭이 없다.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무신란이 성공했고 무신정권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란을 부정하는 등 그들과는 판이한 정치적 성격의 소유자가 정중부의 뒤를 이어 집권한 데 대한 불만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경대승은 그들에 대한 응징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경대승은 이의민 등에 대한 응징의사만 비쳤을 뿐 그를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이었다는 느낌마저 든다. 이는 이의민 등이 무시 못할 정도로 성장한 데에 그 원인이 있지 않으나 한다. 이의민과 동일한 정치적 성격의 소유자로 파악되는 崔世輔·曹元正 등이 경대승정권 아래서도 고위직을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대세는 이미 무신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무인들에게 기울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경대승은 그의 집권기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항상 몇 사람씩 거리로 내보내어 잠복시켰다가 유언비어를 들으면 즉시 잡아 가두어 국문하였다. 자주 옥사를 일으켰고 형벌을 사용함이 매우 가혹하였다” 한다.³¹⁾ 그가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것은 정적으로부터의 위협이 심각했음을 알려 준다. 또한 정보원을 풀어 유언비어를 단속했다던가,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등의 행위는 그만큼 그가 집권에 자신이 없었음을 말해 준다 하겠다. 즉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미약했기에 경대승의 정치는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의 집권은 순리가 아닌, 당시의 대세에 역행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31) 《高麗史》 권 100, 列傳 13, 慶大升.

경대승은 30세의 짧은 나이에 일생을 마쳤다. 정중부가 칼을 잡고 큰 소리로 꾸짖는 꿈을 꾸고 난 다음 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정적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을 끝까지 극복하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그의 집권 자체가 순리가 아닌 이상, 잔인한 정치만으로 대세를 돌이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무신란에 적극적으로었던 賤系의 이의민이 집권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5) 이의민 정권

경대승이 죽은 것은 명종 13년 7월이었다. 그 후 무신정권의 새로운 집권자가 된 인물은 李義旼이었다. 그는 경주인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소금과 채를 파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으며 어머니는 玉靈寺의 노비였다. 이러한 신분적 열세와는 달리, 그의 신체적 조건은 뛰어났다. 그는 신장이 8척에다가 남다른 용력까지를 지니고 있었다. 신분제사회였던 고려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뛰어난 신체적 조건을 갖추었다면 그의 행동이 어땠겠는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그의 형들과 함께 경주에서 무위한 행동을 일삼았던 것이다. 경주인들의 고발에 따라 이의민은 옥에 갇혔는데, 그의 두 형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 죽었으나 그만은 건재하였다. 이에 그를 장하게 여긴 按察使 金子陽이 그를 京軍에 선발하였다.

고려의 경군은 관료체계의 말단을 차지하는 존재였다. 田柴料를 지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천계의 인물들은 원칙적으로 경군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군인을 보충할 목적으로 選軍을 실시할 경우, 여기에는 천계의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용력이 뛰어나면 선발될 수가 있었다.³²⁾ 이의민을 비롯한 천계의 인물들이 군인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군에 선발된 이의민은 手搏을 잘하여 국왕인 의종의 사랑을 받았다 한다. 이로 인해 그는 대정을 거쳐 별장에 올랐다. 그것만으로도 천계인 그로서는 대단한 출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무신란은 그로 하여금 이러한 출

32) 李基白, <高麗軍人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114~123쪽.

세에 만족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무신란 직후 곧 바로 中郎將에 올랐으며, 얼마 후 다시 장군으로 진급하였던 것이다. 거의 모든 무인들이 무신란을 통해 승진을 하기는 했지만 그의 경우처럼 파격적이지는 않았다. 이의민의 예외적인 승진은 “죽인 자가 많았다”는 표현이 말해 주듯,³³⁾ 무신란에 있어서 그의 활약이 누구보다 두드러졌던 데에 기인한 것이었다.

일찍이 이의민의 아버지는 이의민이 푸른 옷을 입고 皇龍寺 9층탑을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 한다. 이후 그는 이의민이 크게 귀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이다. 이의민 역시 그의 출세를 암시해 주는 꿈을 꾸 적이 있었다. 경군에 선발되어 서울에 온 첫날밤의 꿈에 “긴 사다리가 성문에서부터 궁궐에 이르러 있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다.³⁴⁾ 무신란은 이러한 꿈들을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이의민은 이의방정권 아래서도 순탄한 출세를 지속하였다. 그는 명종 3년에 일어난 金甫當의 亂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대장군에 올랐던 것이다. 김보당은 의종의 복립을 내세워 군사를 일으키면서, 거제도에 유배되어 있던 의종을 경주에 옮겨 놓았다. 이에 이의민은 경주에 내려가 손으로 의종의 등뼈를 추려 죽이고, 연못 속에 던져버렸다 한다. 그를 총애해 준 국왕에 대한 보답을 이처럼 잔인한 행동으로 대신했던 것이다. 아무튼 이로써 김보당이 내세운 난의 명분을 제거한 셈이다. 이후 명종 4년에는 趙位寵을 토벌한 공으로 상장군에까지 이르렀다.

이의민의 정치적 진출은 정중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이는 그가 조위충의 남은 무리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또는 병마사의 직임을 맡아 주로 변방인 서북계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로 짐작된다. 그가 서북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정중부정권이 무인으로서의 그의 재질을 인정했기보다는 중앙의 정치에서 그를 제외시키려는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사실 무신란에 입한 그들의 태도가 달랐음을 감안하더라도, 정중부정권에서 이의민이 중요한 직위를 차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의민이 정치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은 시기는 경대승의 집권기였다. 앞서

33) 《高麗史》 권 128, 列傳 41, 李義旼.

34) 위와 같음.

말했듯이, 경대승은 이의민의 제거를 공언했던 것이다. 이의민 역시 경대승을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신란에 참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신란을 부정하기까지 했던 경대승의 집권에 그가 분개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집권자 경대승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었다. 그는 경대승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용사를 모았는가 하면, 그가 사는 마을의 거리에 「閭門」이라 부르는 큰 문을 세워 밤새 경계하기도 했었다.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민은 스스로 불안을 느낀 나머지 결국은 병을 칭탁하고 고향인 경주로 낙향하고 말았다. 명종 11년의 일이었다. 경대승의 이의민 제거 의지가 그만큼 집요했음을 알려 준다.

경대승이 죽자, 국왕인 명종은 사신을 파견하여 경주에 내려가 있던 이의민을 불러 들였다. 그가 경주에서 난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 한 때문이었다 한다. 그러나 설사 이의민이 경주에서 난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왕이 그에게 工部尙書까지 제수하면서 누차 그를 부른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의민의 상경이 왕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사신을 파견하면서까지 그의 상경을 권유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명종은 경대승을 꺼려했다 한다. 경대승이 ‘復古의 뜻’을 품고 있었던 인물임을 염두에 두면 무리가 아니다. 명종은 무신란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무신란이 아니었다라면 그는 왕이 되기 힘든 존재였다. 그런데 경대승이 품었다는 ‘복고의 뜻’은 무신정권만이 아니고 무신란으로 인해 왕위에 오른 명종까지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명종은 경대승과 같은 정치적 성격을 지닌 인물의 등장을 사전에 저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그는 이의민을 내세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의민과 명종은 적어도 무신란을 통해 당시의 지위에 오른 공통점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이다.

경주에서 올라와 집권한 이의민은 무인들에 대해서 회유로 일관했던 듯하다. 그와 정치적 성격을 같이 한 무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무인들까지도 그의 집권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경대승의 집권기 동안 그에 눌러 활동을 못했던 이영진이나 경대승의 족형이었다는 손석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한다. 이영진은 경대승정권에 불만을 품은, 경대승의 적대세력이라 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한 그가 경대승이 죽은 후

다시 ‘橫恣’했다 하는데, 이는 이의민의 집권기에 들어와 정치적으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손석은 경대승이 꺼려했던 오팑척을 제거하는 등, 경대승의 측근으로서, 경대승이 집권하는데 이를테면 디딤돌과 같은 구실을 했었다. 그는 이의민 집권기에 들어서도 樞密院副使를 역임하는 등 여전히 정치적으로 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대승의 측근세력과 적대세력 모두가 이의민 집권기에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이의민은 이들을 모두 자신의 세력으로 흡수하려 했다고 생각된다. 이의민의 이러한 태도는 남들에게는 ‘헛된 명예를 닦으려는 노력’으로³⁵⁾ 비춰지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의민은 경대승의 집권 이후 중앙의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치적인 공백상태를 가졌었다. 그러므로 그가 갑자기 집권자로 부상한 데 따른 반발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그는 이의방처럼 무신란을 주도하여 집권했던 것도 아니고 정중부와 같은 무인들의 지도적 인물도 아니었다. 경대승처럼 그의 가문을 이용할 처지는 더욱이 되지 못하였다. 이의민의 무인에 대한 회유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서 당연히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였는지도 모른다.

이의민이 비록 정치적 성격이 상이한 여러 무인들을 그의 정권에 흡수했다 하더라도, 그의 정권을 주도해 나갔던 핵심적인 인물들은 역시 이의민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했던 무인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崔世輔의 亞相 승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명종 14년 당시의 재상 서열은, 제1위의 총재는 이광정의 퇴임으로 꺾이었고 제2위는 한문준이었으며 3위가 문극겸, 그리고 제4위가 최세보였다. 그런데 동년 12월의 인사발령에서 한문준이 총재가 되었으므로, 제2위의 아상은 당연히 문극겸이 되어야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극겸의 하위에 있던 최세보가 아상에 올랐던 것이다. 그 까닭은 문극겸이 최세보의 윗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사양했기 때문이었다 한다.

문극겸이 최세보의 윗자리에 앉기를 거부한 분명한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런데 당시는 이의민의 집권기였고 이의민과 최세보는 매우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최세보의 아들이 태자가 사랑한 婢를 범했는데도, 이의민이 그를 구해주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또한 최충헌의 집권과

35) 《高麗史》 권 128, 列傳 41, 李義旼.

더불어 최세보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도 최충헌의 이의민에 대한 감정이 최세보의 가문에까지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문극검이 최세보에게 아상을 양보한 것은 그가 새로운 집권세력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세보 이외에, 경대승이 죽은 후인 명종 13년에 추밀원부사에 올랐던 조원정과 동왕 14년에 知御史臺事에 임명된 鄭邦祐도 무신란에 적극 참여한 자들로서 이의민과 정치노선을 같이 했던 인물들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의민집권기에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무인들이 어떠한 인물들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 명종 20년의 인사발령이다. 여기서는 이제까지 7인이었던 재상의 숫자를 늘려 8인으로 하였는데, 이 때 임명된 재상은 다음과 같다.

최세보 : 특진수태사	두경승 : 수태위
이의민 : 동중서문하평장사	박순필 : 중서시랑평장사
사정유 : 수사공·좌복야·참지정사	이혁유 : 참지정사
이지명 : 태자소부	백임지 : 지문하성사

위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문신인 사정유·이지명·이혁유를 제외한 5인의 재상 가운데 두경승만을 예외로 돌려놓고 보면, 나머지는 모두가 무신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무인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의민정권을 주도해 나갔던 무인들이 무신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현달한 인물들이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의민을 비롯하여 무신란에 적극적이었던 무인들의 대부분이 신분적으로 천계 내지는 사회의 하급 신분층이었다는 사실은 앞의 검토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씌워졌던 신분적 굴레는 이들이 집권층으로 부상됨에 따라 자연히 제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신분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조원정은 7품 이상은 오를 수 없는 限職의 대상자였음에도 정3품의 추밀원부사에 올랐었다. 또한 명종 14년에 지어사대사가 된 정방우는 잡류 출신이었다. 물론 잡류라 하더라도 군공에 의하여 서반으로 나아갈 경우 종3품까지는 오를 수 있었다고 하지만,³⁶⁾ 정방우처럼 대장군으로서 지어사대사를 겸

36) 洪承基, 앞의 글, 78~80쪽.

했던 예는 찾아볼 수 없다. 지어사대사는 風憲官으로서 문신들 가운데서도 덕망이 높은 인물만을 가려서 임명했기 때문이다.³⁷⁾

이의민정권을 주도해 나간 무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힘에 의존하여 출세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문벌이나 학식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인물들의 부상은 개인의 용력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을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이와 관련하여 참고된다.

어느 날 이의민이 두경승과 함께 중서성에 있으면서 자랑하기를 ‘어떤 사람이 용력을 뽐내기에 내가 이와 같이 쳐서 넘어 뜨렸다’하고 주먹으로 기둥을 치니 서까래가 움직였다. 그러자 두경승이 ‘언제인가 내가 빈 주먹을 휘두르니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더라’하면서 벽을 치니, 뒷 벽이 무너졌다(《高麗史》 권 128, 列傳 41, 李義旼).

무인 실력자들의 이와 같은 태도에서 힘이 우위를 차지했던 당시 사회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행동집단 무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이의민정권 아래서는 기존 법제와는 다른 여러 변혁들이 일어났었다. 무인들을 內侍院이나 茶房에 兼屬시킨 것이 그 하나이다. 무인들에게 문반직을 겸임케 한 것은 이의방정권 이래의 일이었지만, 귀족의 자제나 儒士들만이 임명되었던 내시직에 무인들의 겸직이 가능했던 것은 이의민정권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또한 ‘글을 알지 못했다’는 최세보가, 문신 가운데서도 학식이 뛰어난 자들이 보임되는 것이 일반적인 同修國史에 임명된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국왕이었던 명종이 이 제까지의 제도와 다름을 들어, 同修國史의 ‘史’字를 ‘事’로 고쳐, 최세보에게 同修國事의 직함을 내릴 정도였던 것이다.³⁸⁾

당시의 고려인들도 이의민정권을 이제까지의 무신정권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이의민을 ‘新道宰相’이라고 불렀다는 것으로 미루어 추측된다. ‘신도제상’은 이의민이 제방을 쌓고 거기에 버드나무를 심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다.³⁹⁾ 그러나 새로운 제방 하나를 쌓은 사실만을 가지고 이의민을 그렇게 불렀을 것 같지만은 않다. 이의민이

37) 朴龍雲, 〈高麗朝의 臺諫制度〉(《歷史學報》 52, 1971), 30~37쪽.

38) 《高麗史節要》 권 13, 명종 16년 12월.

39) 《高麗史》 권 128, 列傳 41, 李義旼.

이제까지의 재상들과 구별되었기에, 제방 쌓은 것을 빙자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명종 14년부터 12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의민정권은 동왕 26년 崔忠獻과 崔忠粹 형제에 의해 무너졌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다수의 행동집단 무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이다. 조원정·석린은 명종 18년에 반란죄로 처단되었으므로 차치한다 하더라도, 동왕 21년에는 백임지·박순필·이영진이, 그리고 동왕 23년에는 최세보가 사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무신란에 적극 참여하여 무신란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무인들의 세대가 끝났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 무신정권은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 교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金塘澤〉

2. 최씨무신정권의 성립과 전개

1) 최씨정권의 성립

명종 14년(1184)에서 26년(1196)까지 12년 동안 지속되었던 李義旼政權은 이의민의 아들 李至榮과 최충헌의 동생 최충수 사이의 비둘기를 둘러싼 분쟁을 계기로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이지영이 최충수의 비둘기를 뺏은 것이 계기가 되어 최충수는 그의 형 최충헌과 함께 이의민 제거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의민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권세에 의지하여 횡포하고 방자했다 한다. 그 아들 가운데서도 이지영과 李至光이 특히 심해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반드시 범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아 사람들은 그들을 「雙刀子」라고 불렀다는 것이다.¹⁾ 따라서 이지영의 행위가 이의민의 실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러한 우발적인 사건이 이의민 실각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당대 제일의 실력자 이의민이 그 이전까지 이렇다 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최충

1) 《高麗史》 권 128, 列傳 41, 李義旼.

헌에게 살해된 것은, 이의민에 대한 불만이 최충헌을 비롯한 그 주위의 인물들에게 누적되어 있었음을 알려 준다.

이러한 불만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으며, 또 불만을 느꼈던 사람들은 어떠한 인물이었나를 살펴 보는 것은 이의민 실각의 원인을 밝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먼저 이의민을 살해한 장본인인 최충헌에 대하여 알아 보자.

최충헌은 상장군 崔元浩의 아들이었다. 그의 外祖 柳挺先 역시 상장군에 오른 무반 가문이었다.²⁾ 따라서 그는 무인으로서는 매우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음서에 의해 관도에 진출한 그는 「刀筆吏」로서 관리생활을 시작하였다. 그가 행정실무를 담당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자를 알지 못하고 오로지 미신만을 믿었다는 이의민과는³⁾ 이 점에 있어서도 좋은 대조를 이룬다.

최충헌은 도필리를 버리고 무반직으로 출사로를 바꾸었다. 도필리를 수처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한다. 그가 이처럼 吏職에서 무반직으로 벼슬길을 바꾼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무신란 직후였다고 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남달리 이름을 빛내는 데 뜻을 두었다는 그가⁴⁾ 무신란 이후 무신들의 권력 장악에 자극되지 않았을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충헌은 무신란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무반으로 나아갔다고 생각된다.

최충헌은 명종 4년(1174) 조위충의 난 진압 때, 부원수 기탁성에게 발탁되어 別抄都領에 選補되고 이어 별장에 올랐다. 기탁성이 최충헌을 발탁한 것은 최충헌의 용맹 때문이었다 한다. 그러나 만일 최충헌이 모든 면에서 기탁성과 견해를 달리한 인물이었다면, 기탁성이 그를 발탁했을 가능성은 없었을 것이다. 이는 金平이 최충헌의 집권기에 추밀원부사, 지공거 등의 요직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도 짐작되는 일이다. 김평은 김보당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죽음을 당한 한언국의 사위인데, 그는 기탁성에 의해 등용되었던 인물이었다. 그가 최충헌에게 다시 기용된 것은 최충헌과 기탁성의 정치적 성격이 비

2) 李慶喜, 〈崔忠獻家門研究〉(《釜山女大史學》 5, 1987), 11~15쪽.

3) 《高麗史》 권 128, 列傳 41, 李義旼.

4) 〈崔忠獻墓誌銘〉(《朝鮮金石總覽》 上, 朝鮮總督府, 1919).

숫하다는 사실에 기인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최충헌은 이의민 제거 직후인 명종 27년(1197)에, 尹麟瞻과 기탁성의 서경 토벌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이들에게 功臣號를 추증하였다. 그런데 윤인침과 기탁성이 조위충을 벤 것은 명종 6년(1176)의 일이었다. 이들이 20년이 지난 이때에 비로소 추증된 데에는 최충헌의 정치적인 의도가 개재되어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윤인침과 기탁성계의 인물들에 대한 최충헌의 접근의 결과가 아니었나 의심되는 것이다. 기탁성이 비록 최충헌을 발탁한 인물임을 상기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답치고는 조금 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인침은 문신이었으며 기탁성은 무신란에 소극적인 인물이었다. 이로써 보면 최충헌은 문신들과도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는 소지를 갖춘 인물이었다.

최충헌은 이의민 제거 직전에 겨우 攝將軍에 이르렀다. 그의 이러한 진급은 매우 완만한 것이었다.⁵⁾ 벼슬길에 나아간 후 8~9년만에 장군에 올랐던 경대승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그의 진급이 느렸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를 이끌어 줄만한 무인들이 실권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만은 지적해서 좋을 것이다. 즉 그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무인들이 그의 집권 이전의 무신정권에서 소외되었던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렇듯 더딘 출세에 그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보다 훨씬 낮은 신분의 출신들이 그의 상급자로서 군림했을 때의 불만은 상상하기 힘들지 않다.⁶⁾ 그러므로 그는 무인실력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그가 慶尙晉州道の 按察使로 파견되었으나 權臣의 뜻에 거슬려 파면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명종 17년(1187)이므로 이의민집권기의 일이었다. 여기에서 그를 파면시킨 권신이 반드시 이의민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비록 아니라 하더라도 이의민집권기에 실권을 가지고 있던 인물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임을 당한 최충헌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파면시킨 권신이나 이의민은 동일한 집권세력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안찰사의 직에서 해임된 그가 권신에 불만을 가졌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5) 朴菴熙, <崔忠獻小考> (《史學志》 3, 단국대 사학회, 1969), 107쪽.

6) E. J. Shultz, *Institutional Development in Korea under the Ch'oe House : 1196~1258*,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76, p.130.

권신에 대한 그의 불만은 이의민정권 자체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후 그는 중요한 직책은 거의 맡지 못했는데, 그 당시 그의 처지는 “여러 해 동안 막히고 오그라들었다”는⁷⁾ 것으로 잘 대변된다.

지금까지 최충헌의 출세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그의 정치적 성격의 일면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러면 최충헌의 이의민 제거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최충헌정권의 성립에 기여한 무인들은 어떠한 인물인가 알아보기로 하자. 최충헌의 이의민 제거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은 그의 조카인 朴晉材와 族人 盧碩崇 등이었다. 이들이 이의민 제거에 앞장서게 된 동기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최충헌의 족인이었다는 점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유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외에, 監行領將軍 白存儒와 대장군 李景儒·崔文淸 등이 협력했으나, 어떠한 성격의 인물들인가는 확실치 않다.

최충헌정권의 성립에 기여한 무인들을 알아보는 방법의 하나로 필자는 최충헌정권 초기에 宰樞에 오른 무인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들이 어떠한 성격의 인물들이었나를 파악할 수 있다면, 최충헌정권이 성립할 수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나 최충헌정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재추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최충헌정권의 성립에 기여했거나, 성립 이후 최충헌과 정치적 견해를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충헌은 명종 26년(1196) 4월에 이의민을 제거했는데, 11월에는 이의민정권 아래에서 문하시중을 역임한 두경승을 中書丞에 임명하였다. 중서령은 실직이 아니었고 종친에게 일종의 명예직으로 수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일반관료의 경우는 致仕職으로 제수하여 일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한 사망한 사람에게 증직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했던 것이다.⁸⁾ 따라서 최충헌에 의한 두경승의 중서령 제수는, 두경승이 최충헌정권의 성립에 기여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의민 제거에 따른 인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임시로 취해진 조치에 불과했다는 이해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두경승과 최충헌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살필 기회가 있을 것인데, 설사 두경승의 중서령

7) <崔忠獻墓誌銘>(《朝鮮金石總覽》上).

8) 邊太燮, <高麗宰相考-3省의 權力關係를 중심으로->(《歷史學報》35·36, 1967;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1971, 61~64쪽).

임명이 인심 회유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왜 하필 두경승을 내세워 그러한 효과를 기대했는가 하는 점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杜景升은 全州 萬頃縣人이었다. 그의 가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나, 그의 장인이 상장군인 文儒寶였다는 데 이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는 무신란 당시 다른 무인들과는 달리 남의 재산을 추호도 범하지 않았다 한다. 따라서 그는 무신란에 소극적이었던 인물로 이해된다. 난의 수행과정에서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들을 그만이 추호도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경승의 개인적인 성품 탓으로만 돌려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경승이었던 만큼, 이의민과 정치적 갈등이 없을 수 없었다. 이의민의 집권기 동안에도 이의민과 종종 정치적 갈등을 빚었던 것이다. 결국 두경승의 출신 가문이나 정치적 성격이 이의민과 달랐던 점이, 최충헌으로 하여금 두경승을 내세워 쿠데타 이후의 민심을 수습해 보려 했던 이유였다고 이해된다.

신종 즉위년(1197)에 守司徒·中書侍郎平章事·監修國史·判兵部事·太子太傅에 임명되었던 奇洪壽는 최충헌과 함께 신종의 폐위를 단행한, 최충헌정권에 누구보다 깊이 관여한 인물이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詩書를 교육받은 정도의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그는 상당한 가문의 출신이었다고 추측된다.

역시 신종 즉위년에 참지정사에 임명되었던 李文中에 관해서는 명종 13년과 동왕 17년에 金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무인들을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한 예는 무신란 이후 흔히 나타나는데, 이들은 비록 무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갖춘, 따라서 좋은 가문의 출신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미천한 출신의 이영진이 금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온갖 수모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⁹⁾ 미루어 보더라도 짐작된다.

신종 4년(1201) 평장사에 오른 金駿은 경진의 사위였다. 경진은 경대승의 아버지로 당시 그의 가문은 무반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무신란 이후 중서시랑평장사를 역임하였다. 이러한 경진의 딸을 처로 맞이한 김준의 가문 역시 경진의 그것에 크게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9) 《高麗史》 권 100, 列傳 13, 李英摯.

車若松은 신종 즉위년에 추밀원부사에 올랐었다. 그는 直史館의 벼슬을 지낸 車擧首의 작은 아들이었다. 직사관은 비록 정8품에 불과하지만 春秋館에 소속된 벼슬로 문신 가운데서도 문명이 있는 자들이 임명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그의 출신 신분도 좋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金元義는 이의민 제거 직후 장군으로서 급사중을 겸임하였다. 이로 미루어 최충헌의 이의민 제거에 협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의 부친 金位는 守司空左僕射에 추증되었으며, 장인은 상장군 印榮寶였다. 김위가 역임한 실질적인 관직은 알 수 없지만, 수사공좌복야에 추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관직에 올라 있었음이 분명하다. 김원의의 정치적 지위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관직의 인물을 수사공좌복야에 추증했을 것 같지는 않은 것이다. 김원의는 강종 2년에 평장사가 되었다.

신종 7년 문하시랑평장사로 죽은 盧孝敦은 盧永淳의 아들이었다. 노영순은 의종 말에 承宣의 지위에 올랐었는데, ‘兵家の子’였기에 무신란에서 화를 면하고 이후 평장사에까지 이르렀던 인물이다. 그는 전통적인 무반 가문 출신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노효돈 역시 좋은 가문 출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충헌의 집권 초기에 정치적 실력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한 무인은 于承慶이었다. 최충헌의 쿠데타 직후인 명종 27년, 무인들은 利賓門 밖의 서쪽 행랑 기둥에 구멍이 뚫린 사실을 두고, 이는 문신들이 무신들을 저주하여 저지른 행동이라 하였다. 문신들은 이에 대한 해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대장군이었던 우승경이 간악한 자의 행위임을 지적하여 문신들을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했다 한다. 최충헌의 쿠데타는 무인들이 주도한 것이었기에, 당시의 문신들은 무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문신들을 위해 무인들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었다면, 그의 정치적 위치는 대단했을 것이다. 최충헌과 밀착된 인물이었다고 이해하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더구나 우승경은 쿠데타 직후인 명종 26년 6월에 최충헌과 함께 승선에 임명되었다. 쿠데타 직후 최충헌이 승선직을 장악한 것은 국왕의 정치적 향방을 중시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와 함께 우승선이 된 우승경이었고 보면, 쿠데타의 주도세력이었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그는 최종대에 참지정사에 올랐었다.

우승경의 출신에 관해서는 그가 우승선이었다는 사실로 어느 정도의 추측

은 가능할 것 같다. 일찍이 경대승은 명종으로부터 승선직 제수를 제의 받은 적이 있었다.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하자, 국왕인 명종은 정중부의 아들 鄭筠이 가지고 있던 승선직을 경대승에게 제수하여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대승은 이를 거절하였다. 승선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책이므로 儒者가 아니면 맡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¹⁰⁾ 경대승의 이러한 주장은 물론 원칙론적인 것이었다. 무신란 이후에는 무인들도 승선직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다만 무인이라 하더라도 학식을 갖춘 자들이 이를 담당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우승경도 무인이었지만 학식이 있는 인물이었고, 따라서 유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문에서 성장했다고 이해된다.

鄭叔瞻은 최충헌의 아들인 崔怡(또는 瑀)의 장인이었다. 그의 가계에 관해서는, 그의 아버지 鄭世裕가 명종조에 형부상서에 이르렀다는 점이나, 그가 崔惟淸의 아들인 崔誥의 딸을 처로 맞이했다는 사실¹¹⁾이 참고된다. 그의 처가는 당대 최고의 재상이었던 것이다. 그는 명종 24년에 不軌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그의 부형 鄭世裕·鄭允當과 함께 남쪽지방에 유배되었다. 따라서 정숙침이, 최충헌가와 통혼한 시기가 언제인가 분명치 않지만 설령 최충헌의 쿠데타 이후였다 하더라도, 최충헌의 이의민 제거에 협력할 소지는 그 이전부터 이미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검토를 통하여, 최충헌을 비롯한 그의 정권 성립에 기여했던 무인들은 대체로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음을 알았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최충헌정권의 무인들과 이의민정권을 주도했던 무인들과의 출신을 비교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의민정권을 주도한 무인들 가운데는 賤系를 포함하여 한미한 가문의 출신이 많았다. 절에 딸린 노비의 아들이었다는 이의민을 비롯하여, 옥공의 아들인 조원정, 電吏 출신의 정방우, 창고 곁에서 쌀을 주워 먹고 살았다는 석린 등이 이의민집권기의 무인들로 눈에 띈다. 이들 외에도 ‘門地가 賤微했다’ ‘세계가 본래 한미했다’ ‘가문이 대대로 천했다’라고 표현된 무인들이 이의민

10) 《高麗史》 권 100, 列傳 13, 慶大升.

11) 朴龍雲, 〈高麗時代의 定安任氏·鐵原崔氏·孔巖許氏 家門分析〉(《韓國學論叢》 3, 誠信女大, 1978), 62쪽.

정권을 주도했던 것이다.

이처럼 한미한 가문 출신인 무인들이 이의민정권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신란에서 그들의 역할이 두드러진 때문이었다. 무신란은 하급 무신을 비롯한 다수의 일반 군인들이 참여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하급 무신들은 신분에 구애됨이 없이 정권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고, 이것이 표면화된 시기가 이의민집권기였던 것이다. 그러한 만큼 이의민집권기는 커다란 변화를 수반한 시기였다.

이의민정권 아래에서 한미한 가문 출신 무인들의 정치적 부상은 좋은 가문 출신의 무인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가문에 힘입어 순탄한 출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특히 무신정권 아래서는 정치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의민집권기에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 최충현에게 이의민의 제거를 제의한 최충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상장군 최원호의 아들이자 충현의 동생이었던 崔忠粹는, 특히 그의 사위가 趙永仁의 아들인 趙準이었음이 주목된다. 조영인은 명종조에 이미 참지정사와 정당문학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최충수가 조영인가와 혼인한 것은 그의 쿠데타 이전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쿠데타의 성공 이후 곧 최충현에 의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충수는 쿠데타 이전에 이미 재상가와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의 배경을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가문의 배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쿠데타 당시 최충수의 관직은 東部錄事に 불과하였다. 동부록사는 서울의 5부 가운데 하나인 동부의 녹사로 甲科權務가 이 직에 임명되었다.¹²⁾ 즉 최충수는 정식 품관도 못되었던 것이다.¹³⁾

물론 좋은 가문 출신의 무인이 이의민집권기에 고위 관직에 올랐던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의 핵심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듯하다. 그것은 杜景升을 통해서 짐작된다. 두경승은 이의민집권기에 평장사를 거쳐 문하시중에까지 이르렀으며, 三韓後壁上功臣에 책봉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高麗史》에 그의 공신 책봉을 축하하는 연회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연

12) 邊太燮, 〈高麗時代 京畿의 統治制〉(《高麗政治制度史研究》, 1971), 60쪽.

13) 金光洙, 〈高麗時代의 權務職〉(《韓國史研究》 30, 1980), 41·47쪽.

회장에서 그가 노래를 부르자 이의민이 이를 꾸짖었고, 이에 연회는 파했다 한다. 공신에 책봉되고 직위도 이의민보다 위에 있던 두경승이었으나, 이의민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다.

최충수와 같은, 좋은 가문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출세에 제약을 받았던 무인들은 이의민정권을 무너뜨릴 기회를 기다렸을 것이다. 한편 두경승과 같이, 이의민정권 아래에서 고위직에 올라 있었지만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지 못한 인물들에게는 이의민 제거에 동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이는 최충현과 두경승의 관계를 통해서도 짐작되는 일이다. 최충현이 이의민을 제거한 직후, 두경승은 명종을 폐위하는데 있어서 최충현의 의는 상대였던 것이다.

최충현은 쿠데타의 성공 직후 10조목에 달하는 건의사항을 국왕에게 올렸다. 소위 「封事十條」가 그것이다. 그 첫머리에서 최충현은 이제까지의 정치가 태조가 제정한 법제와는 크게 어긋난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봉사10조는 이의민정권의 失政을 지적하고 자신의 쿠데타가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올린 것이었다. 말하자면 쿠데타 이후 제시한 공약과 같은 것이다. 기존의 정치가 태조의 법제와 달랐음을 강조한 것은, 최충현 자신이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이의민집권의 변화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이해가 정당한 것이라면, 최충현정권의 성립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의 결과이기보다도 이의민정권을 주도했던 무인들과 최충현으로 대표되는, 그들과는 다른 정치적 성격의 소유자들 간의 대립의 결과였다고 이해해야 옳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무신란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미천한 출신의 무인들이 좋은 가문출신의 무인들에게 정권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고려가 신분제사회였음을 단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최충현정권의 성립 이후에 재추에 오른 무인들 역시 초기 최충현정권의 성립에 기여한 무인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가문의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鄭克溫·金就礪·鄭邦輔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다.

고종 2년(1215)에 참지정사로 죽은 정방보는 대장군 鄭元寧의 아들이었다. 한편 고종 5년 추밀진부사에 오른 김취려의 조부는 金吾衛攝郎將을 지낸 金彦良이었으며, 부 金富는 金吾衛大將軍을 역임하였다. 김연량이나 김부 모두

가 무반직에 올라 있었던 셈이다. 특히 김부는 명종 16년에 장군으로서 예부시랑을 겸임하기도 했다.

정방보가 어떠한 가문의 출신인가는 현존하는 그의 묘지명을 통해서도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만 신종 원년에 그가 예부시랑으로서 금에 사신으로 파견된 적이 있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의 단서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는 것 자체가 학식을 갖춘 무인이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더구나 당시는 최충헌에 의해 명종이 폐위되고 신종이 옹립된 시기로 어느 때보다 對金外交가 중요한 시기였다. 금은 명종의 퇴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빌미로 고려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해 왔던 것이다. 정방보는 상당한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가문의 출신이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최충헌집권기의 무인 재주들이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최충헌정권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시사를 준다. 이들은 고려의 기본적인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그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달가와 했을 까닭이 없다.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그들의 현실적인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충헌정권은 그 이전의 이의민정권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즉 미천한 가문 출신의 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이의민정권이 커다란 변화를 수반했던 것과는 달리 최충헌정권은 과격한 개혁은 단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충헌집권기 무인 출신 재주들의 자손 가운데는 최충헌 이후 崔怡(瑪)·崔沆정권 아래에서 현달한 자가 적지 않았다. 우선 김준의 아들 金仲龜는 최이정권 아래에서 평장사를 역임하였다. 김종귀는 그의 장녀를 최충헌의 아들 崔球에게 출가시킴으로써, 최씨가와 혼인을 맺기도 했다.

車若松의 후예로는 車偶이 눈에 띈다. 차척은 약송의 형인 若椿의 손자였던 것이다. 그는 최충헌정권 아래에서 좌승선을 거친 후 최이집권기에 참지정사를 역임하였다.

정숙침의 아들은 鄭晏이었다. 정안은 최항의 집권과 더불어 知門下省事에 오른 후, 참지정사를 역임하였다. 한편 김취려의 아들은 金佺인데, 그는 원종 원년에 추밀원부사가 되었다.

정방보의 후손에 대해서는 그들이 누구였는가조차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

러나 그들의 정치적 지위는 정방보가 襄平公에 추증되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방보가 사망한 것은 고종 13년인데, 그는 고종 7년에 평장사에서 安東副使로 꺾출되었다. 이러한 그가 사후 양평공에 추증된 것은 그의 자손들의 정치적 지위에 힘입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최충헌집권기에 재추에 오른 인물들의 자손이 최충헌 이후의 최씨정권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은 무인들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문신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현저하였다. 최씨집권기 동안에 만 3명 이상의 문신 재추를 배출한 가계가 넷이나 되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는 일이다. 慶州金氏 金鳳毛의 가계와 橫川趙氏 趙永仁의 가계, 그리고 定安任氏 任濡와 鐵原崔氏 崔惟淸의 가계가 그들이다.

김봉모의 가계는 김봉모가 참지정사에 오른 이후 그의 아들 金台瑞가 평장사가 되었으며, 손자 金起孫 역시 고종 말에 평장사가 되었다. 이들 외에 김태서의 또 다른 아들 若先과 慶孫도 각각 무인으로 재추의 지위에 올랐었다. 이 가운데 약선은 최이의 사위로서 그의 후계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결국 무반으로 진출한 인물들까지를 포함하면, 김봉모의 가계는 최씨집권기 동안 5명의 재상을 배출한 셈이다.

횡천 조씨는 조영인이 신종조에 평장사에 오른 이후, 그의 아들 趙沖과 손자 趙季珣이 대를 이어 재상이 되었다. 그런데 조충의 동생으로서 우승선을 역임한 趙準은 최충헌의 아우 최충수의 사위였다. 한편, 조계순은 그의 딸을 최항에게 출가시켜 최항의 장인이 되었다. 조영인의 가계는 3대에 걸쳐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며, 2대에 걸쳐 최씨가와 혼인을 맺었던 것이다.

신종조에 평장사에 임명된 任濡는 숙종조에 평장사를 지낸 任懿의 손자였으며, 부친은 의종조에 문하시중을 역임한 任元厚였다. 따라서 그의 가문은 여러 대의 재상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충헌은 임유의 형인 任溥의 딸과 혼인했으며 자신의 딸은 임유의 아들 任孝明에게 출가시켰다. 최충헌이 이처럼 임유가와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은 것은 누대의 재상가인 정안 임씨와 혼인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¹⁴⁾ 정안 임씨

14) 朴菴熙, 앞의 글, 109쪽.

閔賢九, 〈高麗後期の 權門世族〉(《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77), 17쪽.

는 임유의 새 아들 景肅·景謙·孝順이 또한 모두 최씨정권 아래에서 재상이 되었다.

신종 즉위년에 중서시랑평장사에 임명된 崔謙과 지추밀원사에 오른 崔誥은 모두 무신란 직후인 명종조에 평장사를 역임한 최유청의 아들이었다. 최유청의 자손들은 최당이나 최선에 그치지 않고 그들 이후에도 최씨정권 아래에서 현달하였다. 최당의 손자 崔璘이 재상의 지위에 올랐으며, 최선의 후손들은 이보다 더욱 번성하였다. 최선의 아들인 崔宗峻은 문하시중에 이르렀고, 손자 崔曄과 崔坪 역시 재상이 되었다. 철원 최씨는 최씨정권 아래에서만 6명의 문신 재상을 배출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충헌의 아들인 최이는 최종준의 조카 사위였다 한다. 또한 최선의 사위가 최이의 장인인 정숙첨이었던 것이다. 또한 최은의 딸은 후일 최항의 배필이 되었다. 따라서 최선의 후손들은 최충헌가와 중첩적인 혼인을 통해 그들의 지위를 굳혀 나갔다고 할 수 있다.

최씨집권기 동안 소수의 가문에서 많은 수의 재상을 배출했다거나 최씨가 이들과 혼인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했다는 사실은 당시로서는 문벌에 대한 강한 집착을 사회로부터 씻어 버릴 수 없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최씨집권기에는 정치적 지배세력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을 암시해 준다 하겠다. 따라서 최충헌정권과 이후의 최씨정권은 그 성격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2) 최씨가 권력세습

최씨정권은 대를 이어 권력을 세습하였다. 최충헌에서 최의에 이르는 4대 60여 년 동안 최씨정권은 지속되었던 것이다. 명종 26년(1196)에 정권을 장악한 최충헌은 고종 6년(1219) 사망할 때까지 23년 동안 집권하였으며, 이후는 그의 아들 崔瑀, 즉 최이가 권력을 세습하였다. 그리고 고종 36년(1249)에는 최이의 서자 최항이 집권자가 되었으며, 동왕 44년(1257) 최항이 병사하자 그의 노비 소생인 崔嬪가 그의 뒤를 이었다. 이러한 최씨정권은 최의가 고종 45년(1258) 3월 柳璥·金俊 등에게 제거 됨으로써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이러한 형태의 권력세습은 한국의 역사상 유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 서는 주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최씨정권의 전개과정을 살펴 볼 예정 인데, 이에 관해서는 이미 일찍부터 학계의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그 결과 최충헌은 강력한 사병조직을 통해 정적을 제어했고 따라서 권력의 세습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연 무력만으로 정적의 제어가 가능했는가, 또한 최충헌에 의해 조직 된 사병이 어떻게 그의 후계자에게까지 충성을 바칠 수 있었는가 하는 등의 의문은 남는다. 우선 최씨정권이 정적들을 어떻게 제어했을까 하는 점을 최 충헌의 경우를 통해 알아 보기로 하자.

최충헌집권기에 재추에 오른 무인 가운데 상당수는 최충헌에 의해 숙청되 었다. 이러한 인물 가운데는 정권의 성립에 기여함으로써, 그의 집권 초기에 재추에 올랐던 인물들이 특히 많았다. 두경승·우승경·정숙첨은 그 대표적 인 인물들일 것이다. 최충헌정권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이들이었고 보면, 그 들의 숙청 이유가 궁금해진다.

쿠데타 직후 최충헌에 의해 중서령에 임명되었던 두경승이 숙청된 이유를 밝혀주는 적절한 사료는 없다. 다만 최충헌의 쿠데타가 그의 죽인들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었다는 사실과 쿠데타 당시 최충헌의 지위가 攝將軍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와 관련하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충헌보다 직위가 높았던 무인들은 최충헌의 독주를 방관했을 것 같지 않다. 그들은 직 위를 이용하여 최충헌보다 우위를 점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이의민의 餘黨 토벌에 협력했던 대장군 李景儒·崔文淸 등의 무인들을 최충헌이 제거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최충헌은 고위 무신의 대표 적인 존재였던 두경승 역시 방치해 두기는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두경승이 최충헌을 모해하려 한다는, 사실이 아니었을지도 모르는 익명서 하 나로 최충헌은 두경승을 紫燕島에 유배시켰던 것이다.

우승경이 최충헌에 의해 유배된 것은 희종 7년(1211)이었다. 희종과 王濬明 이 최충헌을 살해하려 한 사건에 그가 연루된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우승경은 최충헌과 갈등이 있었던 듯하다. 우승경이 최충헌을 살해하려 한다는 내용의 익명서가 최충헌의 집에 던져졌던 사실로

미루어 그러하다.¹⁵⁾ 이 익명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이러한 익명서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최충헌과 우승경의 틈이 벌어져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들 사이의 갈등은, 우승경이 쿠데타 직후부터 정치적 실력자였음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숙침은 최이의 장인으로, 그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될 기회가 있을 것이나, 아무튼 이 사실만으로도 그가 대단한 정치적 지위를 누렸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최충헌에 의해 숙청된 인물들은 무인 채추 가운데서도 정치적인 실력자였던 셈이다. 사실 최충헌과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고 수행한 최충수·박진재는 채추에 오르기도 전에 제거되고 말았던 것이다.

최충헌집권기의 정치적 실력자들이 최충헌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최충헌의 무인에 대한 통제가 그만큼 철저했음을 알려 준다. 따라서 최충헌의 무인에 대한 통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면, 최충헌정권의 전개를 이해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그와 최충수의 관계에 대한 검토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보기로 하자.

이의민의 제거 이후 최충헌의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등장한 인물은 그의 동생 최충수였다. 이의민의 제거를 먼저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 이후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최충헌이 장악한 데 대한 불만으로 최충수는 그의 형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최충헌과 최충수의 마찰은 최충수가 그의 딸을 太子妃로 들이려 한 것을 계기로 권력쟁탈전의 양상을 띄었다. 여기에서 세력의 열세를 실감한 최충수는 최충헌과의 싸움을 포기하려 하였다. 그러자 장군 吳淑庇·俊存深·朴挺夫 등은 최충수를 부추기어 일전을 독려하였다. 다음의 기록에 주목해 보자.

충수가(국왕과 諸衛의 장군들이 충헌을 돕는다는 사실을 듣고) 두려워 하여 그 무리에게 말하기를 ‘아우가 형을 공격하는 것은 悖德이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毬庭에 들어가 형에게 죄를 빌고자 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각기 도망하여 가라’ 하였다. 장군 오숙비·준존심·박정부 등이 말하기를 ‘우리가 공의 門에서 놀았던 것은 공에게 세상을 덮을 만한 기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도리어 겁냄이 이와 같으니 이는 우리들을 멸족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청컨대 일전하여 자웅을 가립시다’고 하였다(《高麗史》권 129, 列傳 42, 崔忠獻).

15) 《高麗史節要》권 14, 희종 6년 3월.

최충수는 최충헌에게 잘못을 빌겠다는 뜻을 그의 「무리」에게 알렸는데, 장군 오숙비 등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다. 따라서 오숙비 등은 최충수의 「무리」의 구성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충수와 그의 무리는 생사를 같이 할 정도로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최충수가 최충헌에게 그의 죄를 빌기로 한 후, “너희들은 마땅히 각기 도망하여 가라”고 그들에게 숨을 것을 권유한 것이나, 그들이 “(공이) 이제 도리어 겁냄이 이와 같으니 이는 우리들을 멸족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여, 최충수가 최충헌에게 항복하면 그들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을 강조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최충수의 「무리」가 최충수의 「門」에 모였던 이유는, 오숙비 등의 지적처럼, 그가 ‘세상을 덮을 만한 기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을 덮을 만한 기개’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들은 최충수의 정권 장악을 기대하고 모여든 자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충수가 정권을 장악한다면 그들도 그들의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최충수에게 있어서 그의 「무리」는 곧 그의 세력기반이었다. 이들 최충수의 무리는 최충수의 門客이었음이 분명하다.¹⁶⁾ 오숙비 등의 말 가운데 ‘우리가 공의 門에서 놀았다’는 표현으로 미루어서도 짐작된다.

최충수의 문객이 최충수로 하여금 최충헌과의 일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면, 문객을 보유한 무인이야말로 항상 최충헌의 경계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박진재의 경우를 예로 들어 검토해 보자.

박진재의 문객은 그 수에 있어서 최충헌의 문객에 비교될 정도였다. 박진재가 이처럼 많은 수의 문객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최충헌이 묵인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최충헌은 그의 조카였던 박진재의 도움을 바탕으로 그의 정권을 성립시킬 수 있었으므로, 박진재의 문객은 때에 따라 최충헌의 군사적인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¹⁷⁾ 따라서 최충헌은 박진재의 문객 보유를 허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충헌정권이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이러한 사정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 외부의 정적이 제거된 상황에서 최충헌에게 위

16) 金鍾國, 〈高麗武臣政權の特質に關する一考察〉(《朝鮮學報》17, 1960), 64쪽.

17) E. J. Schultz, 앞의 글, 137쪽.

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자들은 그 내부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박진재는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이에 최충헌은 정권 유지를 위해 박진재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최충헌이 박진재에 대한 제어의 한 방법은 그의 문객에게 관직을 제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재의 문객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곧 박진재의 세력 확대와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박진재를 비롯한 그의 문객들이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박진재는 “외숙은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최충헌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는가 하면, “만약 최충헌이 없다면 정권을 오히려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최충헌 제거를 암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의 문객 역시 최충헌에게 반기를 들었음은 최충헌이 박진재를 제거하기 이전인 신종 2년에 박진재의 문객인 神騎指諭 李勛中이 黃州牧守 金俊踞와 함께 난을 모의했던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박진재의 문객은 최충수의 제거과정에서 최충헌 자신이 이용하기도 했던 자들이다. 이들에게 관직을 제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무인들의 문객에게는 말할 나위도 없었을 것이다. 한편 문객은 그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봉사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때 문객은 흩어지기 마련이다. 李義方の 형인 李俊儀와 그의 문객과의 관계에서 그 실례를 엿볼 수 있다. 이준의는 당시의 집권자였던 그의 동생 이의방과 틈이 벌어져 이의방에게 죽음을 당할 뻔하였다. 다른 사람들의 만류로 이준의는 목숨을 보전하였으나 문객은 흩어졌다. 당시의 집권자 이의방의 미움을 산 이준의의 문객이 되어 보았자, 그들에게 돌아 올 것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객이 되어도 관직을 제수받기 어려웠을 경우 문객은 모여들지 않았을 것이다. 최충헌이 집권한 이후 다른 무인들의 문체에 관한 기록이 그 이전과는 달리 거의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무인들의 문객 보유를 철저히 견제한 것은 최충헌만이 아니었다. 그 이후의 최씨집권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최이집권기의 기록인 다음을 참고해 보자.

(李子晟이) 東京을 평정한 후에 장사들이 매일 그 문에 모여들었다. (자성은) 權貴의 꺼려하는 바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병을 청탁하고 문을 닫았다. 사람들

이 그 知幾를 칭찬하였다(《高麗史》 권 103, 列傳 16, 李子晟).

이자성이 동경에서 일어난 崔山·李儒의 亂을 토벌한 것은 고종 20년(1233)의 일이었다. 이자성이 동경을 평정하자 장사들이 날마다 그 「문」에 모여들었다 한다. 이자성의 「문」에 모여든 장사들은 이자성의 문객이 되려는 자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자성은 「권귀」의 꺼리는 바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병을 칭하고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여기의 「권귀」는 당시의 집권자 최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문객이 모여드는 것을 최이가 꺼릴까 두려워하여 이자성이 병을 칭하고 문을 닫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최이가 무인들의 문객 보유를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견제했는가를 알 수 있다. 무인들의 문객 보유는 곧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이가 이를 견제했을 것은 당연하다.

결국 최충현은 무인들의 문객에게 관직을 제수하지 않음으로써, 무인들이 문객을 보유할 수 없게 만들었고, 따라서 그들의 세력 확보를 저지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최충현은 무인들이 그들의 합의기구를 통하여 공동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마저 봉쇄하였다. 重房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이 그것이다.

무신란 이후의 중방은 궁성의 시위와 일반 치안을 담당하였으며, 시장의 교역을 살폈는가 하면 인사행정에도 관여하였다.¹⁸⁾ 최고의 권력기구였음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데 중방의 역할과 관련하여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치적인 모반 사건을 중방에서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의방집권기인 명종 4년(1174)에 西京留守 조위충은, 중방이 북계의 여러 성을 토벌하려 한다는 것을 내세워 군사를 일으켰다. 즉 북계인은 중방의 북계토벌 계획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조위충의 주장이었다. 그런데 중방이 북계의 여러 성을 토벌하려 했던 것은 무신란 이후 북계의 여러 성에서 모반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 때문이었다. 특히 명종 2년 6월의 昌州人·成州人·鐵州人의 반란은 병마사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 중방은 모반사건의 대책을 논의한 기구였다고 이해된다. 이러한 점은 정중부집권기나 경대승집권기, 그리고 이의민집권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정중부집권기에는 興

18) 金庠基, <高麗武人政治機構考>(《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209~213쪽.

王寺의 승려가 德水縣人의 모반 사실을 중방에 고했다는 기록이 있으며,¹⁹⁾ 경대승 집권기에는 중방이 난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경비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다.²⁰⁾ 또한 이의민집권기였던 명종 16년(1186) 校尉 張彦夫 등이 난을 일으키려 한다는 뜬 소문에 접한 중방은 주도자인 장언부를 색출하여 처단하였다.²¹⁾

중방은 독자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었다. 명종 9년, 연말에 變이 있을 것이라는 妖言에 중방은 금군으로 하여금 칼을 뽑아 들고 국왕을 호위케 하였으며,²²⁾ 동왕 16년에는 중방이 남을 무고한 자를 잡기 위해 금군을 풀어 시정을 엿보게 했다는 기록도 있는 것이다.²³⁾ 비록 금군을 동원한 예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중방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음을 아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중방이 정치적인 모반사건의 처리를 담당한 기구였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중방은 무인집권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중방이 이의방을 살해한 승려 宗岳을 유배보냈거나, 정중부가 죽은 뒤에 경대승의 제거를 공언한 무관이 있어서 경대승이 도방을 조직하여 이에 대비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된다. 이의방이 죽은 후, 중방의 무인들은 이의방을 살해한 종감 등 10여 인을 유배보냈다. 그런데 종감 등이 이의방을 살해한 것은 정중부의 아들 鄭筠의 사주에 의해서였다. 따라서 중방무인들의 종감 유배는 곧 정중부정권에 대한 일종의 반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경대승의 정중부 살해에 불만을 품고 경대승의 제거를 선언한 무관은 중방의 무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무관이 단순히 한 개인에 불과했다면, 당시의 집권자 경대승이 도방을 조직하여 이에 대비할 만큼 두려워 했을까 의심된다. 정중부정권 아래에서 특권을 누려온 고위 무신으로서 중방을 배경으로 경대승을 비난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지우기 어려운 것이다. 고위 무신들은 그들의 합의기구인 중방을 통해서 집권자를 위협했던 것이다. 상·대장군의 합의기구였을 뿐만 아니라 병력 동원의 능력까지 갖춘 중방이었고 보면 이상할 것은 없다.

19) 《高麗史》 권 19, 世家 19, 명종 8년 정월 무오.

20) 《高麗史》 권 82, 志 36, 兵 2, 宿衛.

21) 《高麗史》 권 20, 世家 20, 명종 16년 정월 계미.

22) 《高麗史》 권 20, 世家 20, 명종 9년 12월 임자.

23) 《高麗史》 권 20, 世家 20, 명종 16년 10월 정축.

최충헌으로서는 이러한 중방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敎定都監의 설치와 재추회의의 활성화는 이러한 정책의 일부였다고 이해된다.

교정도감은 靑郊驛吏의 최충헌 살해 모의를 계기로 설치되었다. 희종 5년(1209) 청교역리 3인은 최충헌을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公牒을 돌려 절의 승도를 모았다. 이에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그 일당을 색출했는가 하면 연루자를 처벌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교정도감의 기능은 정치적인 모반사건의 처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중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도감을 설치한 것은, 이로 하여금 중방을 대신하려 한 최충헌의 정치적인 의도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정치적 모반사건에 대한 처리의 권한을 중방에 대신하여 교정도감이 행사했다면, 이와 함께 중방의 병력 동원의 능력도 소멸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尹世儒라는 인물이 고종에게 “(우복야) 鄭樞과 그의 동생 추밀원사 정숙침이 不軌를 꾀하려 하니 신으로 교정별감을 삼아 巡檢軍 일변을 붙여 주면 가히 (이들을) 소탕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사실을²⁴⁾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종 2년의 기록으로 최충헌집권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윤세유가 국왕에게 교정별감의 직책과 아울러 순검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한 점이다. 이로 미루어 교정도감에서는 모반사건의 치죄를 위해 순검군과 같은 국왕의 시위부대까지 동원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모반사건의 치죄권을 교정도감에 이양한 중방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마저 상실했을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중방이 무인집권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소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정도감은, 그 구조를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합의기구는 아니었다. 그 장관인 別監이 정권을 행사할 수 있던 기구였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교정별감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어, 여기에서 무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즉 최충헌 자신이 교정별감이었다는 견해와,²⁵⁾ 다른 인물이 임명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²⁶⁾ 그것이다. 설사 최충헌 아닌 다른 인물이 교

24) 《高麗史》 권 96, 列傳 9, 尹瓘 附 世儒.

25) 金庠基, 앞의 글, 217쪽.

26) 邊太燮, 〈武臣亂과 崔氏政權의 成立〉(《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3), 120쪽.

정도감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최충헌과 밀착된 인물이었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교정도감은 최충헌의 의도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방은 최고의 권력기구였기에 인사행정에 관여했는가 하면, 시장의 교역을 규찰하기도 했다. 그런데 교정도감이 정치적인 모반사건의 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되면서 중방의 이러한 권한까지를 대신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²⁷⁾ 정보의 수집은 정치적인 모반의 방지나 치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교정도감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매우 당연하다 하겠다. 이제 교정도감이 최고의 권력기구가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인 모반사건의 진압이야말로 정권의 최대 과제이기에, 이를 관장하는 기구가 최고의 권력기구화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한편 최씨집권기에는 宰樞會議가 빈번하게 개최되어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최충헌의 집권과 더불어 재추는 山川裨補·延基에 관한 일이나 지방 반란의 진압, 그리고 국왕의 사망에 따른 복상기간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국가의 고위 관료들인 재추가 참여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따라서 최씨집권기의 재추가 국정에 관여한 사실을 여기에서 특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충헌 이전의 무신정권 아래에서는 재추의 역할이 이처럼 돋보이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신란 이후 최충헌의 집권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도 재추가 국정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있다. 재추는 조위총의 난 이후 지속된 서경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회의에 문무 3품 이상과 함께 참석하였으며,²⁸⁾ 중방·대간과 함께 시중의 되[解]와 말[斗]을 일정하게 하는 데도 관여했던 것이다.²⁹⁾ 그러나 재추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빠짐없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중대사는 재추보다는 중방에 의해 처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³⁰⁾ 재추가 문무 3품 이상이나 대간과 함께 국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미루어, 국가의 중요한 관료들 모두가 참여한 경우에만 재추도 의례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27) 金潤坤, 〈高麗 武臣政權時代의 敎定都監〉(《文理大學報》 11, 嶺南大, 1978).

28) 《高麗史節要》 권 12, 명종 8년 3월.

29) 《高麗史節要》 권 12, 명종 11년 3월.

30) 이에 관해서는 金庠基, 앞의 글, 208~215쪽 참조.

아닌가 한다.

무신란 이후 재추의 역할이 감소되었음은 都兵馬使에 관한 기록이 무신란 이후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도병마사는 변경의 군사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기구였는데, 그 고위직은 재추가 겸임하였다.³¹⁾ 이러한 도병마사가 무신란 이후 사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³²⁾ 중방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중방이 그 기능을 대신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재추는 도병마사를 통해서 국정에 참여할 기회마저 잃었다.

무신란 이후 국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재추가 최충헌의 집권과 더불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에 예외없이 관여한 까닭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실은, 이러한 논의에 중방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이다. 재추들만의 회의에 의해 국가의 중대사는 결정되었던 것이다. 국가의 중대사가 중방을 제외한 재추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중방의 권한은 그 만큼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충헌은 중방을 약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집권과 더불어 의도적으로 재추를 국정에 참여시켰던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재추가 모두 문신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재추회의는 중방과 달리 다수의 문신들이 참여하는 모임이었다. 그러한 만큼 중방처럼 무인들이 그들의 힘을 모아 집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최씨집권기의 재추회의는 최씨에 의해 소집되었고 그들의 私第에서 국정을 논의하였다. 재추회의의 회의 장소가 최씨의 사저였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추들이 최씨와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었을까는 의문스럽다. 최씨집권기의 기록인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참고된다.

최우(즉 최이)가 재추들을 그의 집에 모아 친도를 논의하였다. 이 때는 오랜 동안 태평하여, 京都의 인구는 10만에 이르렀고 좋은 집들이 즐비하였으며, 사람들이 편히 살고 있었으므로 옮기기를 어렵게 여겼다. 그러나 최우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高麗史節要》권 15, 고종 19년 6월).

몽고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강화친도를 논의하는 과정을

31) 邊太燮, <高麗都堂考>(《高麗政治制度史研究》, 1971), 85~92쪽.

32) 邊太燮, 위의 글, 93쪽.

알려 주는 기록이다. 여기에서 재추들은 천도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이가 두려워 감히 한 마디의 말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최이는 이미 천도를 결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이는 천도를 결심한 후,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주도록 하기 위해 재추를 소집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정책의 결정에 재추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재추는 고려의 최고 관리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이들에 의한 결정은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최씨의 의도대로 재추가 움직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최씨 개인 의사가 아닌, 재추회의의 결정이라는 사실은 훨씬 설득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서, 최충헌은 재추회의의 활성화와 교정도감의 설치를 통해 중방의 약화를 기도했음을 알았다. 결국 최충헌은 무인들의 문객에게 관직을 제수하지 않음으로써 무인들의 세력확보를 저지했을 뿐만 아니라, 무인들이 그들의 합의기구를 통해 자신의 정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배제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권력 세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권력세습과 관련된 또 다른 의문, 즉 최충헌의 사병이 어떻게 그의 후계자에게도 충성을 바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다른 무인들의 문객 보유를 철저히 방해했던 것과는 달리, 최충헌 자신은 거대한 문객집단을 거느렸다. 그가 궁성을 출입할 때 그를 시종한 문객은 3천 명에 이르렀다 한다. 3천 명에 이르는 최충헌의 문객집단은 都房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³³⁾ 이러한 도방은 ‘文·武·閑良·軍卒 가운데 강하고 힘센 자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6번으로 나뉘어 최충헌가를 숙직하고, 그가 출입할 때 그를 옹위하는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집단이었다. 즉 최충헌이 그의 문객 집단을 보다 조직적인 체계로 편성한 것이 도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최충헌의 도방은 최이·최항·최의에게 차례로 계승되었다. 즉 도방은 최충헌의 뒤를 이어 권력을 세습한 자들에 의해 거느려졌던 것이다. 최

33) 柳昌圭, 〈崔氏武人政權下の 都房의 설치와 그 向方〉(《東亞研究》6, 西江大, 1985), 387~389쪽.

씨의 권력세습과 도방의 승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궁금한 것은 최씨의 권력세습에 있어서 도방이 행한 구체적인 역할과 아울러 최충헌의 도방이 어떻게 그의 후계자에 의해 거느려질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결국 최씨의 권력세습이 가능했던 이유를 밝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최씨의 권력세습 과정을 예로 들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일찍이 최항은 최의를 宣仁烈과 柳能에게 부탁하여 ‘만약 (최의를) 도와서 (그가) 가업을 계승하게 되면, 이는 오직 너희들의 공로이다’라고 말하였다. 최항이 병이 들자 (그는) 인열·능 등의 손을 잡고 ‘그대들이 이 자식을 보호하여 주니 나는 죽어도 한이 없다’하였다. 최항이 죽자 殿前 崔良白은 이를 숨겨 發喪하지 않고, 칼을 어루만지면서 侍婢를 꾸짖어 울지 못하게 하는 한편, 선인열과 함께 최항의 말을 문객 대장군 崔瑛과 蔡楨, 그리고 유능 등에게 전했다. (그들이) 야별초·신의군·서방 3번·도방 36번을 모아 (최의를) 옹위하고 이에 발상하니, 왕이 최의에게 借將軍을 제배하고 또 명하여 교정별감을 삼았다(《高麗史》 권 129, 列傳 42, 崔忠獻 附 誼).

선인열과 유능은 최항의 문신 문객이었음이 분명한데, 최항이 그들에게 최의가 권력을 계승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최의가 권력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최항의 말을 최양백과 선인열이 문객 대장군인 최영과 채정 등에게 전했다는 것도 권력 세습에 있어서 문객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인열과 최영·채정 등이 야별초·신의군·서방 3번·도방 36번을 모아 최의를 옹위하자, 국왕이 최의를 교정별감에 임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왕에 의한 최의의 교정별감 임명이 문객의 지지를 전제로 하였음을 알려 준다. 교정별감에 임명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무신집권자가 되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감안하면, 최항 문객의 동의에 의해 최의는 집권자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항이 선인열에게 최의로 하여금 이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가업」이 결국은 정권의 장악을 의미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최항이 권력의 승계를 「가업」의 계승으로 표현한 점이나, 이를 그의 문객들에게 당부한 사실은 음미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최항이 말한 「가업」의 계승이란, 정권 장악 이전에 그의 문객을 거느릴

수 있는 권리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의 문객에게 ‘가업’의 계승을 당부한 사실로 미루어 그러하다. 따라서 최의로 하여금 ‘가업’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한 최항의 부탁은 곧 최의를 구심점으로 문객이 단합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최의가 최항 문객의 구심점이 되면, 정권의 장악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장 강력한 세력집단의 우두머리가 집권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이기 때문이다. 최의와 최영·채정의 관계에서 그 실례를 엿볼 수 있다.

최의가 권력을 계승할 당시 최항의 문객인 최영과 채정은 모두 대장군이었으며, 최의는 그 이후에야 비로소 借將軍에 오를 정도로 낮은 직위에 머물러 있었다. 즉 최의는 최항의 문객보다 공적인 지위가 낮았던 것이다. 최의가 집권자가 된 것은 그가 그들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이다. 최씨집권자와 문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들의 관계가 종속관계였다거나³⁴⁾ 혹은 복종을 강요하는 주종관계였을 것이라는 견해가³⁵⁾ 있는데, 아무튼 공적인 지위보다는 사적인 지위가 최씨의 문객 내부에서는 중시되었던 듯하다.

최씨와 문객과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최항 문객의 대부분은 최의를 중심으로 다시 결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최항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 대가를 기대하는 자들이었다. 즉 최항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적인 지위를 누려온 인물들이었다. 최항이 죽은 뒤에, 그들은 최항의 가계를 잇는 자를 내세워 그들의 지위를 유지해 보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최씨의 가문을 잇는 자는 최씨의 문객을 거느리게 되고, 나아가 권력을 계승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최씨의 권력 계승에 있어서, 문객의 승계가 권력 계승의 전제가 되었음은 최항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최의는 최항에게 그의 「家兵」 5백여 명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병」이 문객의 일부인가 아니면 별개인가는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최의의 군사적인 기반이었다는 점에서, 설사 별개의 존재였다 하더라도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문객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 것이다.

34) 金鍾國, 앞의 글, 137쪽.

35) 鄭杜熙, 〈高麗武臣執權期の 武士集團〉(《韓國學報》 8, 1977), 83쪽.

최씨집권자들이 도방을 거느리게 됨으로써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도방 무인들이 최씨가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던 것이다. 어떠한 무인들이 후계자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그 까닭은 무엇이었나를 알아보기 위해 최이의 권력계승 과정을 주목해 보기로 하자.

최충헌이 병이 나자 글을 올려 사직할 것을 청했다. (국왕이 그에게) 姓을 내림에 미쳐, (그는) 아들 璫(怡)에게 몰래 이르기를 ‘병이 장차 낫지 않으면 내부에서 변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너는 다시 오지 말라’고 하였다. 우는 그의 사위 金若先을 보내 병을 시중들게 하고, (자신은) 병을 청탁하고 가지 않았다. 일찍이 충헌에게는 桐花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용모가 아름다워 마을 사람들이 많이 사통하였으며 충헌도 역시 사통하였다. 어느날 (충헌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너는 누구를 남편으로 삼겠느냐’ 하니 그 여종이 興海貢生 崔俊文이라고 대답하였다. 충헌은 즉시 준문을 불러 집에 머무르게 하고 충처럼 부리다가 隊正에 보임시켰는데, 날로 총애를 더하자 (충헌에게) 부탁하려는 자들은 모두 그에게 붙었다. (준문은) 여러 번 옮겨 (벼슬이) 대장군에 이르렀다. 또 충헌의 집 곁에 사제를 크게 지어 놓고 용사들과 사귀었으며, 上將軍 池允深·將軍 柳松節·郎將 金德明 등과 더불어 충헌의 羽翼이 되었다. 충헌이 병이 나자 4인이 모의하기를 ‘공이 세상을 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우에게 참혹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막내 아들 璫은 담력이 뛰어나니 가히 대사를 맡길만 하다’ 하였다. 이에 최우가 문병하는 것을 엿보아 이를 제거하고자 하여, 우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영공께서 병이 위독하여 급히 공을 보고자 한다’ 하고 사람을 여러 차례 보내니, 우가 더욱 의심하여 이르지 않았다. 덕명이 도리어 그 모의를 璫에게 고하니 우가 그를 위로하여 머물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준문과 윤심 등이 와서 말하기를 ‘공의 병이 급하니 속히 가서 보라’고 하자 우가 곧 2인을 잡아 송절과 함께 먼 섬에 나누어 귀양보냈는데, 도중에 준문을 죽였다(《高麗史節要》 권 15, 고종 6년 9월).

최준문 등이 최우, 즉 최이의 권력계승을 저지하다가 도리어 죽음을 당했다는 내용의 기록이다. 최준문은 도방 무인이었음이 분명하다. 최충헌의 집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한 그가 대정을 거쳐 대장군에 이르렀다거나, 최충헌의 집 곁에 사제를 지어 놓고 용사들과 사귀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는 곧 그가 최충헌의 신변호위를 담당했음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최준문과 함께 최충헌의 우익이었다는 상장군 지윤심·장군 유송절·낭장 김덕명도 도방 소속의 무인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익’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그들은 도방 무인들 가운데서도 최충헌의 심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최충헌의 심복이 최이의 습권을 저지한 셈이다. 그들이 최이의 권력계승을 반대한 이유는 최이에 의해 죽음을 당할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최이가 정권을 장악하면 자신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점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최충헌의 심복이면 최이로부터도 적절한 대우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최충헌의 후계자와 최충헌의 심복이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최충헌과 최이의 정치적인 관계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부자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집권자와 후계자 사이였던 최충헌과 최이의 관계를 달리 설명할 수 있는 사료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최이와 그의 사위였던 김약선의 관계를 참고해 볼까 한다. 그들이 역시 집권자와 그 후계자였기에 적지 않은 시사할 줄 수 있을 것이다.

최이의 후계자로 내정되었던 김약선은 그의 처, 즉 최이의 딸의 무고로 최이에 의해 살해되었다. 일찍이 김약선의 처는 종과 사통했는데, 김약선이 이를 알자 그의 처는 ‘다른 일’로서 최이에게 고했다는 것이다.³⁶⁾ 김약선의 처가 최이에게 고한 ‘다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김약선의 최이에 대한 정치적인 모반사건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후계자로 지목한 인물을 평범한 계기에서 살해했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김약선의 처가 최이에게 고한 ‘다른 일’이 무고였음이 밝혀진 것은 김약선이 제거된 이후였다. 최이는 김약선의 처가 고한 ‘다른 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도 않고 김약선을 제거했던 것이다. 김약선에 대한 최이의 경계심이 대단했음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김약선은 고종 22년 그의 딸을 태자비로 들임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실력자로서의 위치를 굳혔던 듯하다. 그의 처가 궁궐에 들어갈 때, 국왕은 그녀가 태자비의 어머니라 하여 왕비의 예에 의거하여 儀仗을 갖추게 했던 것으로³⁷⁾ 미루어서도 짐작되는 일이다. 김약선의 이러한 위치에 최이는 불안을

36) 《高麗史》 권 101, 列傳 14, 金台瑞 附 若先.

37) 《高麗史節要》 권 16, 고종 23년 2월.

느꼈고, 따라서 그를 제거하기에 이르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결국 최이는, 비록 그의 후계자라 하더라도 그를 능가할 정도의 세력 확대는 용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김약선에 대한 최이의 태도가 그러했다면, 최충헌 역시 그의 독자적인 세력 확대를 달갑지 않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鄭叔瞻의 행동에서 그러한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정숙침은 최이의 장인으로서, 회종 6년 회종과 王濬明 등의 최충헌 살해 음모 사건 당시 거의 죽게 된 최충헌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는 契丹의 침입을 막기 위해 출정한 종군승들의 최충헌 살해 모의에 연루되어 河東에 유배되었다. 고종 4년의 일인데 당시 그는 中軍元帥로 출정하였다. 출정 중이었던 그가, 거란의 침입을 최충헌의 실정의 결과로 돌려 최충헌을 비난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에 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사 무관했다 하더라도, 종군승들이 그를 끌어들이 만큼 그와 최충헌의 관계는 이미 멀어졌던 것 같다. 당시 정숙침은 거란 토벌의 원수로 임명된 것에 불만을 품었다 한다. 최이의 장인으로서, 최충헌정권의 실력자였던 그가 출정군의 원수직을 반거했을 까닭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그의 불만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정숙침은 최이에 힘입어 죽음을 면하고 하동에 유배되었는데, 곧 최이에 의해 소환되고 평장사에 임명되었다. 최이가 정숙침을 구했다는 것이나, 그가 집권과 더불어 정숙침을 소환하여 평장사에 임명한 사실에서, 정숙침의 최충헌에 대한 적대행위는 최이를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정숙침은 그의 사위인 최이의 독자적인 세력 확대를 기도했고,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최충헌과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아니었을까. 사실 정숙침의 출정군 원수직 임명도 최이 세력에 대한 최충헌의 견제책의 일부였는지도 모른다. 최이와 적대 관계의 최충헌 심복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최충헌의 최이에 대한 견제의 가능성을 한층 크게 만들어 준다. 결국 최충헌은 그의 심복들을 통해서 최이의 독자적인 세력 확대를 견제했고, 따라서 그들은 최이의 권력 계승을 반대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최충헌의 심복이 최이의 권력 계승을 저지하려 했지만, 그는 대부분 문객

의 지지에 의해 권력을 승계할 수 있었다. 가장 강력한 세력집단인 최충헌의 문객을 거느린 최이는 자연스럽게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것이다.

3) 최씨정권의 붕괴

최씨정권은 제4대 집권자인 최의에 이르러 무너지고 말았다. 최의가 권력을 계승한 후 불과 11개월만인 고종 45년(1258)의 일이었다. 최의는 최항의 심복이었던 金俊·柳璥 등에 의해 살해되었던 것이다.

김준·유경 등이 최의를 제거하게 된 원인은, 그들이 최의로부터 정치적으로 소외된 데에 있었다 한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최씨정권의 몰락 이유가 모두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대 62년 동안 지속되었던 최씨정권의 몰락을 단순히 최의와 김준·유경 등의 인간관계에서만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씨정권을 지탱해 온 여러 요인들이 와해되는 과정에서 최씨정권은 몰락했다고 이해된다.

최씨의 마지막 집권자인 최의는 불과 11개월을 집권했을 뿐이었다. 따라서 최씨정권의 몰락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이 최의집권기에 갑자기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몰락의 징후는 그 이전부터 최씨정권에 내재되어 있었음이 분명한데, 주목되는 것은 최항의 권력 계승을 계기로 이에 대한 불만이 최씨정권 내부 인물들 사이에 심각하게 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최씨정권의 붕괴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항정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항은 애초부터 최이의 후계자로 지목된 것은 아니었다. 최이가 처음에 그의 후계자로 내정한 인물은 그의 사위인 김약선이었던 것이다. 김약선의 후계자 지명과 함께 최이는 그의 서자인 萬宗과 萬全을 松廣寺에 출가시켰다. 그들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킬까 두려워한 때문이었다 한다. 만전은, 최항이란 이름으로 환속하기 전까지 禪僧이었던 것이다.

최항이 최이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김약선을 피해 출가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데에는 그가 嫡子가 아닌 서자였으며, 더구나 그의 모계가 친했던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최이가 총애

하는 기생출신 瑞蓮房의 소생이었던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최충헌정권을 성립시킨 무인들은 비교적 좋은 가문의 출신들이었으며, 이들의 자손들 역시 최씨정권 아래에서 크게 출세하였다. 또한 소수의 재상이 가문에서 다수의 문신 재추를 배출시키기도 하였다. 즉 최씨정권의 지배세력은 여전히 좋은 가문의 출신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최씨정권 아래서는 기존의 신분질서가 존중되었다고 판단해서 좋을 것이다. 따라서 기생의 소생인 최항은 당시의 정치적 지배세력으로부터 환영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짐작된다.

한편 앞 절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약선이 최이의 사위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가문의 배경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더구나 그의 처는 최이와 河東鄭氏 사이의 소생이었다. 하동 정씨는 정숙첨의 딸인데, 정숙첨은 최충헌·최이집권기의 정치적 실력자로서 관직이 평장사에 이르렀다. 따라서 김약선은 최이의 사위라는 점과 아울러 자신의 가문 배경을 이용하여 당시의 정치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최항이 김약선을 피해 송광사에 출가했다가 환속하여 최이의 후계자가 된 것은 최이에 의해 김약선이 제거된 이후였다. 그렇다고 최이에 의한 최항의 후계자 지명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최항에 반대하는 김약선의 세력은 그의 아들 金敎를 최이의 후계자로 밀었던 것이다. 사실 모계가 친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정치와 결별해 있었던 최항이었고 보면, 설사 김약선 세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를 달가워 할 인물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최항이 출가한 이후의 행적은 당시의 관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門徒를 모아 재물 불리기를 일삼았던 것이다. 집권자의 아들이었으면서도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그로서는, 사원을 통한 재산 증식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로 인해 조세가 결핍되고, 그의 문도들이 지방수령을 업신여기자 관료들은 최항의 행위를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이의 후계자로 내정된 최항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또 한 차례의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최이의 심복인 지이부사·상장군 周肅이 반발했던 것이다. 그는 夜別抄와 内外都房을 거느리고 정권을 국왕에게 돌리려 하였다. 주숙은 최씨가 家奴였던 李公柱·崔良伯·金俊 등

이 최항에 귀부하자, 반발을 포기하고 최항에게 협력하였다. 주숙의 협력으로 최이의 군사력 대부분이 최항의 권력계승에 협조한 셈이다. 그러나 최항은 여전히 불안을 느꼈던 듯하다. 이러한 사실은 최이의 복상 기간이 2일에 불과했다거나 그가 ‘杜門不出’ 했다는³⁸⁾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권력 계승에 따른 최항의 이러한 불안은 그가 최씨정권 내부의 인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최항은 정권을 장악하자 그의 적대세력의 제거에 착수하였다. 그와 더불어 후계자 경쟁을 벌였던 김미의 세력은 첫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김미를 후원했던 최이의 後室 大氏, 大氏의 전 남편의 아들인 吳承績, 그리고 김미의 숙부인 金慶孫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최항이 승려였을 당시 그를 규탄했던 朴瑄도 제거 대상이 되었다. 또한 그의 권력 승계를 저지하려 했던 주숙도 제외될 까닭이 없었다.

그렇다고 자신에게 반대한 인물들 모두를 최항이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일찍이 그가 승려였을 당시 全羅道按察使로서 그와 마찰을 빚었던 金之岱나 그의 무죄한 행동을 최이에게 보고한 宋國瞻 등은 해하지 못하였다. 최항은 그들의 제거에 따른 관료들의 반발을 우려했던 것이다. 사실 집권자로서 결점이 있었던 최항이고 보면, 그를 달갑지 않게 여긴 인물들이라고 해서 모두 제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최항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인물들의 대다수는 오랫동안 최씨가에 충성을 바침으로써 그들의 지위를 높여온 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제거는 최씨정권을 지탱해 온 관료들의 離反을 부채질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최항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었다. 최항으로서는 기존 관료들의 회유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최항은 그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권에 포용하려 했는데, 이는 鄭晏이나 金起孫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다.

고종 43년에 지문하성사가 된 김기손은 김약선의 아우였고, 김미의 숙부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최항과 김미의 경쟁에서 당연히 김미를 지지했을 것이다. 한편 鄭晏은 최이의 장인인 정숙침의 아들이고, 김약선에 협력한 인물이었다. 그러했던 만큼 그는 최항과 평소에 사이가 나빴다 한다. 이러한 정

38) 《高麗史》 권 129, 列傳 42, 崔忠獻 附 沆.

안이었지만 최항은 집권과 더불어 그를 지문하성사에 임명하였는데 인망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최항으로서는 인망을 얻지 않으면 안될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최항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한 정안이나 김기손이 최항정권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최항에 의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개편이 불가능했음을 시사해 준다 하겠다.

최항은 관료들을 철저하게 장악하지 못하였다. 崔滋나 崔璘을 비롯한 당시의 재상들이 몽고와의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되는 일이다. 이러한 주장은 최항의 의도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최자는 일찍이 강화도를 ‘金城湯池’ 또는 ‘萬世帝王之都’라고 칭송하였다.³⁹⁾ 그가 강화도의 지리적인 형세를 이처럼 칭찬한 것은 곧 최이정권에 의한 강화천도를 정당화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최자가 최항정권에 들어와서 몽고와의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던 것이다. 최자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대몽관계에 대한 그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즉 최이정권 아래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웠으나, 최항정권에서는 최항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최항에 의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개편이 불가능했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최항정권은 최이정권과는 달리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4차에 걸친 국왕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封侯立府’를 거절했던 사실로 미루어 짐작된다.⁴⁰⁾ 고려의 경우 관료들이 설치한 府는 왕자와 왕비의 예에 따른 것으로서, 봉작된 인물이 立府하게 되면 작위에 따른 권위를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식읍도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입부는 당시로서는 집권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가능했던 것 같다. 최이의 경우, 고종 8년에 입부를 거절했다가 동왕 21년에는 부를 설치한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최이가 고종 8년에 봉후입부를 고사했던 것은, 이 때가 그의 집권 초기였음과 무

39) 尹龍燦, 《高麗對蒙抗爭史研究》(一志社, 1991), 159~161쪽.

40) 이와는 달리, 최항이 府를 설치했다고 주장한 논고도 있다. 金翰奎, 〈高麗崔氏政權의 진양부〉(《東亞研究》 17, 1989)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제3절 〈무신란과 최씨무신정권의 역사적 성격〉에서 비판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자신의 독재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시기였던 것이다. 이와는 달리 최이가 입부한 고종 21년은 그에 의해 강화천도가 이루어진 직후로서 그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였다. 따라서 최항이 봉후입부를 고사한 것은 곧 그가 강력한 전권을 구축하지 못했음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최이의 후계자로 내정된 과정이나 권력승계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관료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했던 최항은, 집권 이후 그의 심복에게 크게 의존하였다. 그의 심복으로는 우선 최씨의 가노였던 이공주·최양백·김준 등을 들 수 있다. 또는 朴松庇나 宋吉儒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과 아울러 문신으로는 宣仁烈과 柳能, 그리고 최항의 두터운 은덕을 입었다는 柳璈과 俞千遇를 꼽을 수 있다.

최항의 심복들은 막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했었다. 정7품 별장에 불과했던 김준의 경우, 장군 송길유의 비행에 관한 안찰사 宋彦庠의 탄핵보고가 都堂에 올라 가지 못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었다.⁴¹⁾ 최이가 집권한 직후의 일이지는 하지만, 이를 통해 최항집권기 사정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통치질서를 무시한 김준의 이러한 행동은 최항의 심복이었기에 가능했다.

집권자의 심복이 그들의 지위를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최항 심복들의 경우, 최충헌이나 최이의 심복들보다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최항이 그의 심복들에 의존하는 바가 컸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또한 최항이 관리들 내부에 강력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하였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최항의 심복들은 최이가 권력을 승계한 것을 계기로 내부 분열을 일으켰다. 즉 김준은 최이가 최양백과 유능만을 총애하고 신임하여 자신을 소외시킨 데 대해 불평을 품었다 한다. 사실 정치권력의 핵심에 근접해 있는 심복들 간에 집권자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있을 수 있는 법이다. 다만 집권자가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심복들의 갈등은 표면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집권자의 심복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심복들 간의 갈등은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항의 뒤를 이어 집권한 최의는 최항과 마찬가지로 모계가 천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렸다. 그의 어머니는 장군 宋愔의 여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심복에

41) 《高麗史》 권 122, 列傳 35, 宋吉儒.

대한 그의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심복들의 갈등을 무마시킬 수 없었음도 무리가 아니다. 정권을 지탱해 온 심복들의 내부 분열은 결국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최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김준은 추밀원사 崔曄과 상장군 朴成梓를 그 주모자로 내세웠다. 그런데 최은은 최항의 장인이었다. 鐵原崔氏인 그의 가문은 최충헌의 집안과 중첩적인 혼인을 맺은 당대 최고의 귀족가문이었다. 한편 박성재는 최항의 문객이었다. 김준이 최의 제거의 주모자로 이들을 내세운 것은 최씨정권과 밀착한 인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함이었다.

최은과 박성재는 김준에게 협력하였다. 이는 최씨정권에 밀착되었던 다수의 인물들이 최씨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따라서 최의 제거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음을 말해 준다. 결국 최씨정권은 오랫동안 최씨가에 충성을 바쳐 온 인물들에 의해 막을 내렸다. 야별초와 신의군, 그리고 도방이 최의 제거에 이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야별초나 신의군도 도방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사병처럼 이용되어 온 부대였음을 감안하면, 최의는 최씨정권이 의존해 온 군사력에 의해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력한 독재체제를 구축해 온 최씨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그 내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후의 정치권력도 최씨정권과 밀착되었던 인물들이 장악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金塘澤〉

3. 무신란과 최씨무신정권의 역사적 성격

1) 무신란의 역사적 의의

무신란은 고위 무신들의 정치적인 쿠데타가 아니었다.¹⁾ 난에 참여한 인물

1) 본고의 서술은 본 1장 1절의 주 1)과 崔滋의 ‘補閑集’ 저술동기(《震檀學報》65, 1988)에 크게 의존하였다. 따라서 앞의 책이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 않기로 한다.

들의 성격이나 그들이 난에 참여했던 이유 등을 살펴 볼 때 그러하다. 애초에 난을 모의한 인물들은 국왕의 시위부대인 牽龍軍 소속의 장교들이었고, 여기에 고위 무신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미천한 신분 출신의 무신들을 비롯하여 일반 군인들이 대거 참여하였다는 사실이다. 무신란은 이들 하급 무신들과 일반 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위 무신들이 무신란에 가담한 목적은 의종의 총애를 독차지한 문신 몇 명의 제거에 있었다. 무신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국왕의 제거나 다수 문신들의 살해는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난에 참여한 것은 그들이 불만을 품고 있던 문신 몇 명의 제거에 있었다. 무신란과 같은 커다란 변화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그들의 지위가 높았음을 염두에 두면 무리가 아니다. 급격한 변화는 그들의 지위를 위협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했던 만큼 무신란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흔히 무신란의 三巨頭 중 하나로 알려진 鄭仲夫는 이러한 인물의 대표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급 무신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미천한 신분 출신의 인물들은 무신란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玉靈寺 종의 아들이었던 李義旼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는 무신란 직후 두 계급을 뛰어 넘어서 승진했는데, 무신란에서 죽인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은 그들의 불우한 처지를 개선해 볼 목적으로 무신란에 적극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들은 무신란을 일대 변혁의 계기로 삼았음이 분명하다. “文冠을 쓴 자는 비록 胥吏라고 하더라도 씨를 남기지 말라”는 것은²⁾ 이들에게 적합한 행동 지침이었던 것이다.

하급무신들에 호응하여 “군졸들이 별때처럼 일어났다”고 한다.³⁾ 군졸 즉 일반군인들이 봉기했다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그들은 무신란을 통해 그들의 누적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온갖 力役에 시달렸던 그들은 무신란과 같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문신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살륙하라는 상급자의 지시

2) 《高麗史節要》 권 11, 의종 24년 8월 병자.

3) 위와 같음.

까지 있었고 보면 그들의 행동이 견잡을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들은 문신 50여 인을 살해하는데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혹하게 굴었던 인물들을 색출하여 처단하였다.

결국 하급 무신들과 일반 군인들의 참여로 인해 무신란은 애초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훨씬 과격한 양상을 띠고 확대된 형태로 무신란은 전개되었던 것이다. 국왕의 총애를 독차지한 문신 몇 명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서리까지 살해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짐작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많은 문신들이 피해를 당했으며 국왕인 의종도 폐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반 군인들의 무신란에의 광범위한 참여는 지방민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듯하다. 무신란으로 인해 지방으로 피신한 문신들을 지방의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된다.⁴⁾ 또한 무신란 이후 서북 양계의 주민들이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대항했던 것도 무신란의 영향이었다. 이와 아울러 명종 3년, 이의민에 의한 의종의 살해에 慶州民이 협력했던 것도 기존 체제에 대한 경주민의 불만을 대변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무신란의 성공으로 고무된 것은 일반군인들 뿐만 아니라 지방민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무신란 이후 민란이 빈발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기에서 찾아진다.

무신란의 성공으로 성립된 최초의 무신정권은 李義方政權이었다. 이 이의방정권 아래서는 문신들의 반발이 두드러졌다. 명종 3년에 일어난 金甫當의 亂과 동왕 4년의 趙位寵의 亂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당시 김보당은 간의대부·동북면병마사였으며, 조위충은 서경유수였다. 따라서 이들은 어느 정도 무신정권에 협력한 문신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태도를 바꾸어 무신정권에 반기를 든 것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무신란 이후의 변화가 컸던 데에 그 원인이 있었지 않았나 한다. 그들 역시 의종 때에는 정치적으로 다소 소외된 인물들로서, 의종의 총애를 독차지한 문신들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신란 이후와 같은 변화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 이의방정권은 무신란에서의 일반 군인들의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는 일반 군인들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4) 《高麗史》 권 99, 列傳 12, 李知命.

던 시기였다. 명종 3년, 일찍이 延福亭의 터를 잡아 工役을 크게 일으키는데 일조를 했던 李公升을 이의방이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⁵⁾ 미루어서도 짐작되는 일이다. 이의방의 이러한 행동은 공역에 동원되었던 일반 군인들을 의식한 행동이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의방정권 아래에서는 상·대장군의 합의기구였던 重房이 최고의 권력기구화되었는가 하면 문신만이 보임되던 지방관에 무신이 임명되기도 했다. 특히 김보당이 군사를 일으킨 직후에는 전왕인 의종을 살해하기까지 하였다. 국왕이 王朝을 상징하는 존재였음을 감안하면, 국왕의 살해는 기존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의방정권을 무너뜨리고 성립한 정중부정권은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자신 무신란에 소극적이었음을 감안하면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하급 무신이나 일반 군인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중부정권은 그들의 반발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무신란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그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감안하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정중부정권은 일부 고위 무신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고위 무신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급 무신을 포함한 일반군인들에 의해 주도된 무신란 이후의 급격한 변화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고위 무신들이 무신란 이후의 급격한 변화에 불만을 품었음은 좋은 가문의 출신으로서 ‘復古의 뜻’을 품었다는 慶大升이 정권을 장악한 것으로도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이다. 경대승이 품었다는 복고는 무신란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는 무신란이나 그 이후 성립된 무신정권을 부인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그가 정중부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데에는, 정중부 정권이 하급 무신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제어하지 못한 데 불만을 느낀, 고위 무신들의 목인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보수적 성향의 경대승은 집권기 동안 내내 정적으로부터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都房을 조직하여 이에 대처한 것으로 미루어 그의 불안이 어느 정도였는가 짐작할 수 있다. 그의 가장 커다란 정적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무

5) 《高麗史》 권 99, 列傳 12, 李公升.

신란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인물들이었다. 무신란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신란을 부정하기까지 했던 경대승의 집권에 그들이 분개하지 않았을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경대승은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채 30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경대승이 죽은 후 정권을 장악한 인물들은 李義旼으로 대표되는, 무신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출세의 계기를 마련한 자들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한미한 가문의 출신들로서 限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집권층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들에게 석워졌던 신분적 굴레는 자연스럽게 제거되었을 것이다. 기존의 신분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그들은 문벌이나 학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에 의존하여 출세한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이의민집권기는 그 이전과는 크게 다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의민정권은 崔忠獻에 의해 타도되었다. 그런데 최충헌을 비롯하여, 그의 이의민 제거에 협력한 무인들은 모두 좋은 가문의 출신들이었다. 그들은 이의민집권기의 급격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신란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한 미천한 신분 출신의 무인들이 좋은 가문 출신의 무인들에게 정권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고려가 신분제 사회였음을 알려 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무신란 이후 최충헌의 집권에 이르는 약 25년 동안 5인에 이르는 무신 집권자들이 바뀌었다. 李義方·鄭仲夫·慶大升·李義旼·崔忠獻이 그들이다. 이처럼 많은 수의 무신 집권자가 등장한 것도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과 보수적 성격의 무인들과의 갈등의 결과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권의 변동을 혼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신란 이후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의 일부였던 것이다.

결국 무신란과 이후 성립된 무신정권은 고려 역사에 커다란 변동을 초래하였다. 만일 무신란이 정중부를 비롯한 고위 무신들의 정치적인 쿠데타에 불과했다면, 이러한 변동은 초래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급 무신들을 비롯한 일반 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무신란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2) 최씨무신정권의 성격

기왕의 연구를 가운데는 초기 최충헌정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최충헌이 이의민의 제거 직후 국왕에게 올린 「封事十條」가 개혁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다.⁶⁾ 그러나 최충헌의 「봉사10조」는 최충헌 자신이 쿠데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올린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의민정권의 失政을 열거함으로써 자신에 의한 이의민 제거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최충헌이 「봉사10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은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려 했다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⁷⁾ 따라서 이의민 집권기를 이해하려 할 때 「봉사10조」는 참고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최충헌정권의 성격을 이해하려 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최충헌정권에 대한 평가는 최충헌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친 연후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최충헌정권의 성립에 기여했거나, 이후 최충헌정권을 주도한 무인들은 좋은 가문 출신이었다. 최충헌집권기에 宰樞에 오른 무인들에 대한 분석의 결과 얻어진 결론이다. 그런데 이들 재추들의 자손 가운데는 최충헌 이후 崔怡·崔沆의 정권 아래에서 현달한 자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최씨집권기에는 정치적 지배세력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음을 암시해 준다 하겠다. 아울러 최충헌정권과 이후의 최씨정권은 그 기본적인 성격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없었음을 짐작케 해 준다.

최충헌집권기에 재추에 오른 인물들의 상당수가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고, 그들의 대부분이 최이·최항정권 아래에서도 가문의 번성을 유지하였음은 문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최씨집권기에 3인 이상의 문신 재추를 배출한 가문으로는 金鳳毛의 慶州金氏, 趙永仁의 橫川趙氏, 任濡의 定安任氏, 崔惟淸의 鐵原崔氏 등이 찾아지는데, 이들은 최충헌의 집권 이전부터 높은 정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한 가문들이었던 것이다. 이들 가문은 또한 최씨가와 혼인을 통해 연결되었다. 최씨는 혼인을 통해 그들과 연결됨으로써, 그들의 정

6) 邊太燮, 〈武臣亂과 崔氏政權의 成立〉(《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3), 110쪽.

7) 林允卿, 〈崔忠獻政權의 成立과 그 性格〉(《梨大史苑》 20, 1983), 165쪽.

치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하려 했었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에서도 문벌을 여전히 중시하였음을 알려 주는 예가 아닌가 한다.

최씨 무신집권기의 재추들이 좋은 가문 출신이 많았다는 사실은 최충헌정권을 비롯하여 이후의 최씨무신정권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를 던져준다. 이들은 고려의 기본적인 제도들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도 그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그들의 현실적인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충헌정권을 비롯한 최씨무신정권은 과격한 개혁은 단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씨정권이 기존의 제도들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그 틀 위에서 전개되었음은, 최씨 자신이 국왕에 오르지 않았던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최충헌은 명종과 희종을 폐하고 신종·희종·강종 및 고종의 4왕을 옹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왕이 되지는 않았다. 최씨정권 내부에서도 국왕을 내세워 최씨를 공격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최충헌은 왕위에 오름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정권의 몰락보다는, 국왕의 권위를 이용하여 정권을 안정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최씨정권이 국왕의 권위를 이용한 구체적인 예는 왕실과의 통혼이나 蒙古와의 관계 등에서 드러난다.

최충헌은 강종의 서녀를 취함으로써 자신이 직접 왕실과 통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의 아우 崔忠粹가 딸을 太子妃로 들이려 한 데 반대하여 최충수를 제거했던 최충헌이었고 보면,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 보인 셈이다. 이후 그의 아들 昀은 종친인 壽春侯 沆의 딸과 혼인했으며, 또 다른 아들 玢은 희종의 딸과 혼인하였다. 최씨가 이러한 왕실과의 혼인은 최이집권기에도 지속되었다. 최이의 사위인 金若先의 아들 敎는 襄陽公의 딸과 혼인하였고, 김약선의 딸은 원종의 왕비가 되었던 것이다. 김약선 자녀의 왕실과의 혼인은 언뜻 최씨가와는 무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김약선이 최이의 후계자였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혼인 역시 최이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했다고 하여 무리는 없을 것이다. 최씨집권자들이 이처럼 왕실과 통혼한 것은, 혼인을 통해 왕실과 밀착됨으로써, 정적들에게 그들에 대한 도전은 곧 국왕에 대한 도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최씨정권은 江華遷都 후 몽고와의 대화 책임자로서 국왕을 내세웠다. 그들

이 대화의 당사자로 나서게 되면, 몽고와의 강화를 갈망하는 국내의 여론을 묵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몽고와의 강화는 곧 그들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고 말리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최씨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抗蒙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그들은 국왕을 내세워,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을 그에게 돌림으로써 정권의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최씨정권의 지배세력은 좋은 가문의 출신들이로서 그들의 자손들 역시 대대로 최씨정권 아래에서 현달했다는 필자의 주장은, 최씨무신정권 아래에서 ‘能文能吏’가 등장했다거나⁸⁾ 金俊과 같이 노비출신으로서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 있었던 사실과는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능문능리’와 ‘노비’는 기존의 지배세력과는 다른 존재들로서, 이들의 등장은 곧 새로운 세력의 진출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왕의 연구들은 ‘능문능리’의 등장만을 강조했을 뿐, 이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검토는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능문능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아울러, 최씨집권기에 노비들이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된 이유에 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최씨집권자들은 무인들을 철저히 견제하였다. 무인들은 무력을 배경으로 자신들에게 도전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씨집권자들이 자신의 정권에 위협을 줄 만한 무인들을 모두 제거하였음은 물론이다. 최충헌이 그의 동생 최충수나 조카 박진재를 제거한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씨집권자들에게는 자신의 후계자도 경계의 대상이었다. 최충헌이 최이의 장인인 鄭叔瞻을 유배보냈던 점이나 최이가 자신의 사위이며 후계자였던 김약선을 살해한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숙침이 최충헌에 의해 유배된 것은 최이의 독자적인 세력 확보를 기도했기 때문이며, 김약선 역시 최이와는 별도의 세력 확대를 기도했기에 최이에 의해 제거되었던 것이다.

최씨집권자들이 그들의 후계자를 견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들은 그들

8) 李佑成, 〈高麗期の ‘吏’에 대하여〉(《歷史學報》23, 1964; 《韓國中世社會史研究》, 一潮閣, 1991, 110쪽).

의 심복 무인들이었다. 따라서 최씨의 심복 무인들과 최씨의 후계자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 최충헌의 심복인 崔俊文·池允深·柳松節·金德明이 최이의 권력승계를 반대한 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최씨가 새로운 집권자가 권력을 승계함과 동시에 제거되기가 일쑤였다. 최충헌의 심복인 최준문 등이 최이에게 제거되었으며, 최이의 심복인 周肅은 최항에게 제거되었던 것이다.

최씨의 심복 무인들에게 있어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신분이 보잘 것 없었다는 점이다. 최충헌의 심복이었던 최준문은 興海貢生이었으며, 김덕명은 음양에 밝았다 한다. 더구나 최이와 최항의 심복인 김준·이공주·최양백 등은 최씨가 가노였던 것이다.⁹⁾ 이것만을 놓고 보면, 최씨집권기에는 노비 출신으로서 정치적으로 출세한 무인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노비들의 정치적 진출이 활발했다거나 노비들의 지위가 향상된 시기였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최씨집권자들이 노비를 심복으로 삼은 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인물로 기대한 때문이었다. 노비들의 지위 향상의 결과는 아니었던 것이다. 최씨집권자들은 가문이 좋은 인물들의 경우 그렇지 못한 인물들보다 가문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반발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했을런지도 모른다.

한편 최씨집권자들은 문신들을 발탁하여 등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대부분 한미한 가문 출신이었으며, 또한 예외 없이 과거합격자였다. 즉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향리 출신이었으며, 그들은 학문과 행정실무에 능한 자들이었던 것이다. 이른바 ‘能文能吏’가 그들이다. 그런데 최씨가 문인들에게 요구한 ‘능문능리’의 ‘文’은 학문이라기보다는 문장의 작성이었다.¹⁰⁾ 즉 군왕이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 필요한 經史 등의 학문이 아니라, 表箋이나 詔勅 등의 작성에 필요한 문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최씨가 필요로 한 문인은 경사에 박통한, 정치적인 능력을 갖춘 인물이 아닌 문장에 뛰어난 인물이

9) 洪承基, <崔氏武人政權과 崔氏家의 家奴>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1983), 275~283쪽.

10) 趙仁成, <崔瑀政權下的 文翰官 - ‘能文’·‘能吏’의 인사기준을 중심으로 -> (《東亞研究》 6, 1985), 364쪽.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문인들 대부분이 여기에 부응하여 학문보다는 章句 다듬는데 주력하였음은 물론이다.

‘능문능리’는 그들이 최씨에 발탁되기까지는 반드시 최씨정권과 밀착된 인물의 천거를 필요로 했다. 설사 문학과 행정실무 모두에 능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최씨와 밀착된 인물의 천거가 없으면 최씨에게 발탁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한미한 가문 출신의 과거 합격자가 최씨에게 발탁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座主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다. 최씨정권 아래에서 과거를 주관할 정도였다면, 최씨와 밀착된 인물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씨집권기에 천거가 활발했다거나¹¹⁾ 좌주와 문생의 관계가 강화된 이유가¹²⁾ 여기에 있다. 한편 이들은 문학과 吏務에 능하였기 때문에 政房이나 대간을 거쳐 승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렇다면 최씨가 이들을 등용한 이유는 분명해진다. 즉 자신들의 문신 심복을 삼으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이는 그들의 역할로 미루어서도 짐작된다. 李奎報와 金敞, 그리고 朴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규보는 고종 19년의 江華遷都를 칭송하는 글을 여러 곳에 남기었다. 그런데 강화천도는 최씨정권의 유지를 위해 단행된 것이었다. 최씨는 본토의 인민들을 몽고군의 침입에 버려둔 채, 국왕과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천도를 단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최씨정권의 강화천도를 이규보가 찬양한 것은 최씨정권에 의한 강화천도를 합리화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김창은 정방에서 인사행정을 맡아 보았는데, 모든 것을 최이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였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김창은 “최이는 하늘로부터 힘을 빌려 받은 인물’이라고 했다 한다. 최이를 우상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환은 史館의 수찬관이 되어 최이의 공적을 과장하여 기술하였다. 그는 최이를 역사적인 인물로 미화하려 했던 셈이다.

최씨집권기 「能文能吏」의 진출이 이처럼 최씨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능문능리」의 진출에 커다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능문능리」의 진출을 지방 향리계층의 대두와 관련시켜 이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능문능리」의 진출은 지방 향리계층이 대두한 결과가

11) 金翰奎, 〈高麗時代의 薦舉制에 대하여〉(《歷史學報》 73, 1977).

12) 朴昌熙, 〈武臣政權時代의 文人〉(《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3), 283쪽.

아니고 최씨가 자신들의 문신 심복을 삼기 위해 일부 향리 출신을 발탁한 결과였던 것이다. 결국 최씨집권기는 새로운 세력의 진출이 불가능한 시기였다. 최씨정권에 협력할 소지를 갖춘 인물들만이 득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이를 주도할 인물의 등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최씨집권자들이 개최한 詩會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최씨집권자들은 빈번하게 시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개최한 시회에서는 최씨가 詩題를 정하면 참석자들은 여기에 맞추어 시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최씨는 走筆을 시험하기도 했다.¹³⁾ 물론 참석자들은 시로써 최씨의 덕을 칭송하기도 했다. 현실 문제를 시의 주제로 선정할 여지가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편 최씨가 시회에 초치한 문신들은 당대의 명유였다. 따라서 이들의 주제 선정의 경향은 다른 문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시나 문장은 여기에 뛰어난 사람의 것을 본받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자신들이 시회를 주도함으로써, 문인들의 현실 비판의 경향을 둔화시키는 효과도 얻었던 것이다.

최씨집권기에는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최씨집권기에 새로이 설치된 기구로는 敎定都監과 政房, 그리고 都房, 書房이 있었다. 또한 夜別抄와 神義軍도 최씨가 조직한 부대였다. 한편 최씨는 최충헌이 晋康府, 최이가 晋陽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府는 최씨만이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 최씨 이전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부를 세운 관료들은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부는 최씨집권기에 설치된 새로운 기구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씨정권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 역시 생략하기 어렵다. 서술의 편의상 부에 관해서 먼저 검토해 보자.

최씨정권의 부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들 대부분이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최충헌이나 최이가 설치한 부는 왕자나 왕비, 그리고 공주에게 설치한 부와 동일한 것으로서, 부의 설치로 인해 최충헌과 최이는 왕자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으로 이해한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와 아울러 최충헌과 최이는 이 부를 설치했기에 식읍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고려시대의 식읍은 형식적인 것이었는데, 立府와 더불어 비로소 실제로 收租

13) 朴菴熙, 위의 글, 281~282쪽.

가 가능했다는 것이다.¹⁴⁾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부야말로 최씨정권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한다. 최씨정권의 진양부는 최씨정권의 다른 기관, 즉 정방·도방·서방 등의 통합적 기구였다는 것이다. 즉 정방·도방·서방 등은 진양부 중에 설치되어, 진양부에 의해 그 개별적 기능이 유기적으로 통합·조직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양부는 최씨정권의 심복집단이었으며 두뇌집단이었다는 것이다. 진양부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고대 중국의 幕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었다.¹⁵⁾

최씨집권자들은 권력의 장악과 동시에 부를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 최충헌의 경우 그가 부를 설치한 것은 희종 2년(1206)인데, 이는 이의민을 제거한 해로부터 20년 후였던 것이다. 그 이전인 신종 3년(1200)에 최충헌은 이미 도방을 조직하여 정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권력세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진양부가 최씨정권의 최고 권력기구였다면, 최이의 경우는 최충헌의 경우보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그가 최충헌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것은 고종 6년(1219)인데, 부를 설치한 것은 고종 21년(1234)이었던 것이다. 최이는 권력의 승계와 더불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고종 12년(1225)에는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행정까지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부의 설치와는 무관하게 정방을 설치했고, 정치권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崔沆의 경우는 부의 설치 자체부터가 불분명하다. 《高麗史》에는 최항의 開府와 관련된 기록이 4번이나 나타난다. 고종 38년에 국왕은 최항에게 晉陽侯를 봉하고 開府를 명했으나 최항은 사양하여 받지 않았고, 그 해에 또 한 차례 立府를 명했으나 역시 사양하였다. 고종 40년에 국왕은 制를 내려 최항에게 봉후임부하였는데, 이때는 최항이 사양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왕 42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왕이 詔하여 말하기를) 有司에게 명하여 (최항의) 府를 열고 식읍을 益封하고 考妃에게 加贈, 2子의 秩을 높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항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高麗史》 권 129, 列傳 42, 崔忠獻 附 沆).

14) 金塘澤, 〈崔氏政權과 國王〉(《高麗武人政權研究》, 새문사, 1987), 156~158쪽.

15) 金翰奎, 〈高麗崔氏政權의 晉陽府〉(《東亞研究》 17, 서강대, 1989).

최항이 부를 설치했다는 주장에 따르면, 최항은 고종 40년에 부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최항이 사양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위의 사료에서 최항이 사양한 것은 부의 설치가 아니라 식읍을 益封하고 考妃에게 加贈하며 2子の 秩을 높이라는 것이었다 한다. 즉 국왕이 유사에게 명한 내용의 일부만을 최항은 사양했다는 것이다.¹⁶⁾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국왕이 유사에게 명한 내용의 전부를 최항이 사양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만일 고종 40년에 최항이 부를 설치했다면, 동왕 42년에 다시 국왕이 개부를 명령했을 까닭도 없어 보인다. 고종 42년의 경우처럼 동왕 40년에도 최항은 부의 설치를 사양했다고 이해된다.

이처럼 최씨집권자들이 부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정치권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부가 곧 최씨정권의 통합적 권력기구였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교정도감이 최씨집권기 최고의 권력기구였음은 기왕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교정도감은 정치적인 모반사건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庶政이나 稅政에까지 관여했던 것이다.¹⁷⁾ 또한 巡檢軍 등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리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정도감이 靑郊驛吏의 최충현 살해모의 사건을 계기로 설치되었음은 주목된다. 따라서 교정도감은, 정치적인 모반 사건의 처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최씨의 정적들에 대한 처단을 주로 담당한 기구였다고 할 수 있다. 교정도감에 소속된 관리들이 최씨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최씨에게 보고했다는 사실¹⁸⁾이 이를 방증해 준다. 최씨는 공적인 기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정방은 백관의 銓注를 처리하기 위해 최이가 자신의 私第에 설치한 기구였다. 고려시대 백관의 전주는 이·병부와 중서문하성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다. 백관의 전주가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은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어느 한 사람이 전주를 오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전주권의 장악은 집권자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16) 金翰奎, 위의 글, 158~159쪽.

17) 金庠基, 앞의 글, 215~221쪽.

金潤坤, 〈高麗武臣政權時代의 敎定都監〉(《文理大學報》11, 영남대, 1978).

18) 金潤坤, 위의 글.

최충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집권 초기 전주권을 장악하기 위해 병부상서에 지이부사를 겸하여 문무의 전주를 관장했으며, 후에는 그의 사제에서 전주를 행하였는데 이것이 후일 정방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정방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기에 承宣과 더불어 3품관과 4품관 등이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방에 참여한 승선을 政色承宣이라 하고, 3품관을 政色尙書, 4품관을 政色少卿이라고 했다는 사실로¹⁹⁾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내시가 政事點筆員을 겸하기도 하였다.²⁰⁾ 정방참여자의 대부분이 국가의 관료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공무원 인사행정을 개인의 사제에 설치된 정방에서, 국가의 관료들로 구성된 정방원이 시행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정방의 큰 특징이 아닌가 한다.²¹⁾ 국가의 관료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에 최씨의 장기집권은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도방은 ‘文·武·閑良·軍卒 가운데 강하고 힘센 자들’을 초치하여 구성하였다 한다. 도방은 최씨의 신변호위를 목적으로 한 사적인 기구였다. 그런데 여기의 지휘관들은 모두 현직의 무신이었다. 한편 군졸은 관군 가운데서 용력이 뛰어났기에 뽑힌 자들이었다. 즉 관군 가운데 용력이 뛰어난 자들은 모두 뽑아서 도방에 소속시켰다고 이해되는 것이다. 契丹이 침입했을 때, “曉勇者는 모두 최충헌 부자의 문객이고 관군은 파리하고 약하여 쓸모가 없었다”는 것으로²²⁾ 미루어 짐작된다. 또한 “문객으로서 종군하려는 자들을 (최충헌이) 모두 먼 섬에 유배했다”는 기록도²³⁾ 이와 관련하여 참고된다. 이는 최충헌의 문객과 거란과의 전투에 참여한 관군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최씨는 개인의 신변호위를 국방보다 중요시했던 것이다.

서방은 최씨의 문인·문객으로 구성된 기구였다. 따라서 이의 설치와 더불어

19) 《櫟翁稗說》前集 1.

20) 《高麗史》권 105, 列傳 18, 許珩.

21) 필자는 政房이 국가의 공무원 관료들의 인사행정을 담당한 기구였고, 또한 여기에 왕조의 관료들이 참여했음을 중시하여 정방은 애초부터 왕조의 공적인 기구였을 것으로 이해하였다(金塘澤, 앞의 책, 121쪽). 이는 정방을 최씨의 사적인 기구로 이해한 기왕의 견해와는(金庠基, 〈高麗武人政治機構考〉, 《東方文化交流史論攷》1948, 222쪽 및 金成俊, 〈高麗政房考〉, 《史學研究》13, 韓國史學會, 1962; 《韓國中世政治法制史研究》, 一潮閣, 1985, 212쪽) 다른 것이다.

22) 《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23) 위와 같음.

어 도방에 소속되었던 문인들은 모두 서방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도 현직 문신 관료들이 적지 않았다. 서방 출신의 문인들이 현직 관료로 채용되었다고 해서 최씨의 관계가 청산되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선·유천우 등은 최씨의 문객으로서 관직을 겸했는데, 그들이 문신이었음을 감안하면 서방에 소속되었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야별초는 최이에 의해 고종 17년에서 19년 사이에 조직되었다. 도둑이 많아 이를 잡기 위해 용력이 뛰어난 자들을 가려뽑아 야별초를 조직하였다고 《高麗史》는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당시 최이정권은 정적들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야별초 조직의 이면에는 정적을 제거하려는 최이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도둑이 많았던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정적을 제어할 목적으로 야별초를 조직하였던 것이다. 도둑을 잡기 위해 조직되었다는 야별초가 최씨의 爪牙로 이용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야별초는 국왕의 시위를 담당하기도 했다. 따라서 국왕의 최이에 대한 의존도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관군 가운데 용력이 뛰어난 자들로 구성된 야별초를 최이가 그의 사병처럼 이용했다는 사실은 곧 관군 모두가 그의 사병화되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야별초와 함께 삼별초를 이루었던 신의군은 고종 41년에서 동왕 44년 사이에 조직되었다. 이 시기는, 몽고가 대거 침입한 후 罷兵의 조건으로 강화정부의 出陸還都를 끈질기게 요구한 때였다. 집권자 최항으로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었다. 출륙환도는 자신의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기에, 최항으로서는 항몽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관리들은 출륙환도 쪽으로 기울어졌다. 몽고의 대거침입에 따른 인심의 이반과 본토로부터 수송되는 조세의 감소는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최항은 이러한 여론에 쫓겨날 필요를 느꼈다. 이에 몽고로부터의 逃還人으로서 신의군을 조직하였다. 그들의 몽고에 대한 적대감을 출륙환도의 여론을 묵살하는데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결국 야별초나 신의군은 모두 최씨의 정치적 의도 아래 조직된 부대로서 그들의 사병처럼 이용되었던 것이다.

관군 가운데 용력이 뛰어난 자들을 도방에 초치함으로써 관군은 무력화되었다. 따라서 고려는 거란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런데 후

일 야별초군의 최씨의 사병화는 관군의 무력화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최씨집권자들은 그들의 정권 유지와 무관한 관군은 육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몽고의 침입에 고려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최씨집권기에 설치된 교정도감이나 삼별초, 그리고 정방·도방·서방 등의 새로운 기구는 모두 사회변화의 산물 아닌,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설치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최씨는 정방·도방·서방 등 자신의 사적인 기구에 왕조의 관료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왕조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다. 또한 교정도감이나 삼별초 등 국가의 공적인 기구를 사용화함으로써, 국왕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다.

최충헌정권과 관련하여 생략될 수 없는 부분의 하나는 몽고 침입과 이에 대한 최씨정권의 태도이다. 그런데 최근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은 최씨정권의 몽고와의 향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씨정권의 향전은 정권의 유지만을 위한 고식적인 것이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향몽의 주체는 오히려 농민이었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이와는 다른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씨정권이 몽고와의 향전을 위해 강화도로 천도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향전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고려의 사직은 유지될 수 있었다는 이해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최씨정권의 몽고와의 향전을 필자가 거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몽고가 고려에 침입한 것은 고종 18년(1231) 8월이었다. 고려는 3군을 출동시켜 이에 대처하였으나 불가항력이었다. 이에 고려정부는 和議를 추진하여 다음해 1월 몽고와 강화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당시의 집권자 최이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고종 19년 7월 강화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는 몽고와의 향쟁을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최이의 태도는, 몽고에 끈질기게 저항했다 하여 慈州副使 崔椿命을 그가 처형하려 했음을 염두에 두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몽고의 침입에 가장 강렬한 저항을 보인 지역은 북계의 龜州였다. 이곳에서는 北界兵馬使 朴犀와 靜州分道將軍 金慶孫 등이 몽고군과 고종 19년까지 전투를 계속하고

24) 대표적으로는 姜晉哲, 〈蒙古의 侵入에 對한 抗爭〉(《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73)을 들 수 있다.

있었다. 그런데 이 때는 몽고와 강화가 성립된 시기였다. 이에 몽고의 추궁을 두려워 한 정부에서는 항복을 권유하였다. 귀주에서는 이를 받아 들여 전투를 중단했으나, 부근의 자주부사 최춘명은 이를 끝까지 거부하자, 고종 19년 5월 재추회의에서 그의 처형을 결의했던 것이다.²⁵⁾ 몽고와의 강화가 성립된 이후에도 항전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최춘명을 처형하려 했다는 것은, 몽고와의 강화에 대한 최이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음을 알려 준다.

최이가 태도를 바꾸어 천도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몽고가 다루가치(達魯花赤)를 설치한 데 있었다.²⁶⁾ 원은 고려에 다루가치를 설치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씨정권이 몽고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구나 당시 국내의 정치상황도 최씨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기에 천도는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의 하나일 수 있었다. 이에 최이는 국왕과 대부분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도를 단행했던 것이다.

강화천도 이후 최씨정권의 대몽항전은 본토 인민들의 지지를 상실하였다. 최씨정권의 유격전은 본토 인민에 대한 몽고군의 무차별한 살육만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西京의 다루가치를 살해하려 한 고려의 관리가 도리어 서경인에게 살해된 사건은 본토 인민들의 최씨정권에 대한 감정이 어땠는가를 잘 말해 준다. 더구나 최항정권 아래서 추진된 海島入保 정책은 본토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는 몽고군의 약탈보다 훨씬 가혹한 것이었다.²⁷⁾ 다음의 기록은 이와 관련하여 참고된다.

(大將軍 宋吉儒가) 慶尙州道の 水路防護別監이 되어 州縣의 인물을 검찰하여 섬으로 들여보내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때려 죽이고, 혹은 긴 새끼로 사람의 목을 잇달아 엮어서 별초를 시켜 양끝을 잡고 끌어서 큰 물 속에 던져, 거의 죽게되면 꺼내고 조금 깨어나면 다시 그와 같이 하였다 (《高麗史節要》 권 17, 고종 45년 정월).

본토의 백성들은 해도입보를 원하지 않았다. 집과 재산을 버려둔 채 섬에 들어가기를 즐겨했을 까닭도 없다. 이들에게 송길유가 야별초를 거느리고 취

25) 尹龍麟, 《高麗對蒙抗爭史研究》(一志社, 1991), 45~50쪽.

26) 周采赫, 〈高麗內地的 達魯花赤 置廢에 관한 小考〉(《清大史林》 1, 1974).

27) 이에 관해서는 尹龍麟, 〈高麗의 海島入保策과 蒙古의 戰略變化—麗·蒙戰爭 전개의 一樣相—〉(《歷史教育》 32, 1982) 참조.

한 행동을 위 기록은 알려준다. 야별초의 이러한 만행은 본토의 거민들로 하여금 몽고군이 오는 것을 기뻐하게 만들었던 것이다.²⁸⁾

본토의 거민들이 최씨정권에 반기를 들었음은 물론이다. 강화천도 이후에도 최씨정권에 반대한 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²⁹⁾ 최씨정권은 이반된 민심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떠받들고 있는 八萬大藏經도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³⁰⁾ 최씨정권의 향몽이 이러한 성격을 지녔다면, 설사 그들의 항쟁 때문에 고려가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고려는 적어도 몽고군이 오는 것을 기뻐했던 당시 본토의 거민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었다.

몽고와의 항쟁은 무신정권이 멸망한 뒤에도 三別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사실 삼별초의 상당수는 몽고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오랫동안 몽고와 전투를 수행했던 부대였던 만큼 무리는 아니다. 그렇다고 삼별초가 抗蒙만을 위해 난을 일으켰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삼별초 가운데 일부는 宋松禮에게 이용되어 몽고와의 항전을 주장했던 林惟茂의 제거에 앞장 서기도 했던 것이다. 그들이 개경환도 이후에도 몽고와의 항쟁을 결심한 데에는 몽고에서 그들의 처벌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결국 삼별초의 성격이나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을 무시한 채, 항몽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한 역사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군인인 삼별초가 최씨의 사병으로 이용되어, 몽고군보다 더한 만행을 본토의 거민들에게 저질렀다는 사실도³¹⁾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金塘澤〉

28) 《高麗史》 권 24, 世家 24, 고종 43년 2월.

29) 이에 관해서는 尹龍燾, 〈高麗 對蒙抗爭期の 民亂에 對하여〉(《史叢》 30, 高麗大, 1981; 《高麗對蒙抗爭史研究》) 참조.

30) 이에 관해서는 閔賢九, 〈高麗의 對蒙抗爭과 大藏經〉(《韓國學論叢》 1, 國民大, 1978) 참조.

31) 이와 관련해서는 尹龍燾, 〈崔氏政權의 對蒙抗戰자세〉(《史叢》 21·22, 1977) 참조.

4. 무신정권의 붕괴와 그 역사적 성격

1) 김준 정권

(1) 김준의 출세

金俊의 집권은 곧 4대 60여 년에 걸친 崔氏武臣政權의 몰락을 의미하였다. 최씨가의 마지막 집권자인 崔瑱가 고종 45년(1258)에 김준과 그 일파에 의해 살해되었고, 이로써 최씨정권은 막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최씨정권이 붕괴되었다 하여 곧 무신정치가 끝났다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종 45년 이후에도 金俊·林衍 등의 무신이 새로운 집권자로 등장하여 정권을 장악해 나갔다.

《高麗史》金俊傳은 그의 아버지인 金允成이 미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주인을 배반하고 崔忠獻에 투탁하여 노비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高麗史》의 다른 기록은 고종 45년(1258) 3월에 柳璥과 함께 김준 등이 최의를 죽이고 정권을 국왕에게 돌렸음을 언급하고 있다.¹⁾ 간략하기는 하지만 두 기사는 김준의 정치적 출세와 성장이 최씨무신정권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김준은 입신하기 이전부터 노역에 찌들어 있는 평범한 가노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활쏘기를 잘하였으며 下人에게 겸손하고 공경하였다. 또 남에게 베풀어 주기를 좋아해서 못인심을 얻었는가 하면, 날마다 遊俠子弟와 떼지어 마시고 다녔다.²⁾ 즉 김준이 그의 아랫 사람에게 겸손 공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마음으로 김준에게 복종했을 것이고, 아마 그들이 바로 김준의 심복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김준이 날마다 더불어 떼지어 마셨다고 하는 유희자제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류의 인물들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들이 노비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었을 것 같지는 않다. 유희자제라고 하는 표현이 시사하는 바를

1) 《高麗史》 권 24, 世家 24, 고종 45년 3월 병자.

2) 《高麗史》 권 130, 列傳 43, 叛逆 4, 金俊.

염두에 두면, 이들은 의협심 강한 젊은이들로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는 신분층의 자제들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김준에게 일찍부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아가 이들의 상당한 수가 높은 신분층의 자제였다고 한다면, 그의 부친인 김윤성이 당시에 누리고 있던 사회적 지위도 그만큼 높은 것이었다고 하겠다.³⁾ 비록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김준은 최씨의 한 무사로서 이해되며, 나아가 “뒤에 반드시 국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한 어느 術僧의 예언까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 하겠다.⁴⁾

김준은 崔怡(瑢) 집권기에 출세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가 최씨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朴松庇·宋吉儒 등의 추천에 힘입어서였다. 이로부터 그는 최씨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그리하여 최씨가 출입할 때는 반드시 김준의 부축을 받게 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김준은 南班의 정9품직인 殿前承旨의 관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와 최씨가와의 관계는 최씨의 신변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각별해지기 시작하였으나, 그가 정계의 중요 인물로 부각된 것은 崔沆의 집권과 관련이 있다. 김준은 최씨가 죽은 뒤에 최항이 권좌를 이을 수 있게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그 결과 노비의 신분으로서는 파격적으로 별장이라는 무반직에 올랐다. 주지하듯이 최항의 권력이양 과정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최항의 권력계승에는 상장군 周肅의 반발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는 夜別抄와 內外都房을 거느리고 정권을 국왕에게 되돌리고자 기도했던 것이다. 이때 김준 등 최씨의 가노들이 중심이 된 70여 인이 최항의 편을 들게 됨으로 해서, 주숙의 기도를 사전에 봉쇄하였다. 최씨의 사적 군사력이라 이를 수 있는 야별초나 도방의 지지하에 커다란 충돌없이 권력이 이양되었다.⁵⁾ 그러나 이들 병력은 주숙의 인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최항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

3) 그렇다고 金允成이 당시에 벼슬길에 있었다거나,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의 관직이나 정치적 영향력의 실재에 대하여서 최소한도의 언급이라도 기록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윤성이 당시의 정계와 어떠한 형태로건 관련을 맺고 있었으리라는 점은 믿어도 좋을 것이다(洪承基, 〈崔氏武人政權과 崔氏家の 家奴〉,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1983, 279쪽).

4) 《高麗史》 권 130, 列傳 43, 叛逆 4, 金俊.

5) 《高麗史》 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附 沆.

다. 최항의 권력계승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김준을 비롯한 가노세력이었다. 그러니까 주축의 본래 의도가 좌절되었던 이유는 김준 등이 동원한 병력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항의 권력계승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역할이라든가 최씨의 가노들이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군사력은 최씨의 사병집단의 하나였으며, 또 도방보다도 최씨가와 더 밀착된 것이었다. 이른바 家兵이라 불리워졌던 최씨의 사병조직에서 적지않은 가노가 활동하였으며, 김준은 가병을 직접 지휘·통솔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본다.⁶⁾

비록 최항의 권력계승에서 공로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김준이 정치적 역할을 증대해 나갔으리란 보장은 없었다. 그는 단지 하급 무관직을 제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신분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항의 집권기에 들어서면서 김준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부상하였다. 즉 가병의 군사력을 직접 지휘·동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최씨가에 정치적·군사적 기반이 되어 있던 兵士와 文士들을 장악하였던 문무 관료들을 지휘하는 경우도 있었다.⁷⁾ 이러한 정치적 역할은 최항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그 후원은 김준에 대한 최항의 신임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런 현상은 최항정권이 김준과 같은 심복에게 크게 의존해야 했던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최항은 최이의 서자로, 그 어머니가 친했기 때문에 최씨정권의 정치적 지배 세력에게서 환영받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최이는 그의 후계자로 김약선을 내정하였고 최항을 松廣寺에 출가시켰다. 최이에 의해 김약선이 제거된 후, 최항은 환속하여 최이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정계에서 밀려나 있었던 그를 당시의 정치세력이 달가워 할 까닭이 없었다. 적지 않은 관료들의 반발은 최항정권으로 하여금 기존의 정치질서를 개편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최항은 최이대의 정치질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세력 확보를 기도하는 정도에 만족하여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항이 크게 의존한 것은 그의 심복일 수밖에 없었다. 최항의 권력승계 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김준은 최항의 심복으로

6) 崔氏武臣政權에서의 家兵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종래의 연구에서는 가병을 都房이나 馬別抄를 중핵으로 하는 최씨의 모든 사병과 동일하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洪承基는 가병의 용례를 분석하면서, 기존의 견해 외에도 최씨의 가노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되고 도방과는 구별되는 사병 조직을 뜻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洪承基, 앞의 책, 288~291쪽).

7) 洪承基, 위의 책, 291~294쪽.

서, 그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막강한 실력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만큼 김준에 대하여 일종의 심복 관계를 유지하는 일단의 정치인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최씨정권 아래에서 김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정치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의 하나는 林衍이었다. 임연은 일찍이 간통죄로 처벌을 받을 뻔 하였는데, 김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의 천거에 힘입어서 隊正에서 郎將으로까지 진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임연은 김준을 항상 아버지라고 불렀고 김준의 아우 金承俊을 숙부라 칭하였다.⁸⁾ 김준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였다면, 林衍은 김준의 심복이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칠 것 같지 않다.

임연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으로 朴珙이 있다. 박기는 김준이 최이의 嬖妾 安心을 간통한 죄로 固城에 유배되었을 때, 그를 도운 인연으로 김준의 양자가 된 사람이다. 김준이 박기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父子의 그것에 준하는 것이었고, 이 점에서 김준과 임연과의 관계와 다를 것이 없었다. 박기는 김준이 집권한 뒤에 그의 후원으로 大將軍 承宣의 직에까지 올랐는데, 이러한 김준의 뒷받침은 김준이 집권자가 되기 이전부터였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⁹⁾

김준이 먼저 도움을 받게 됨으로 해서 그와 각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으로는 송길유가 있었다. 송길유는 김준을 최이에게 칭찬해 줌으로써 김준이 최이의 신임을 받아 입신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인물로,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송길유와 김준의 관계는 각별한 것이 되었다. 김준은 송길유가 酷吏로서 탄핵을 받게 되었을 때에 崔瑄도 모르게 사사로이 그를 구하고자 한 黨與였다. 당시 김준은 최씨집권자의 심복이었던 大司成 柳璥과 待制 柳能 등에게 송길유의 구원을 청탁하였는데, 유경은 政房에 소속되어 있었고 유능은 최이의 親信을 받던 최씨의 가신이였다.¹⁰⁾ 요컨대 김준은 최씨의 다른 가신들과도 사적인 유대를 통하여 정치적인 역량을 증대해 갔음을 알 수 있다.

8) 《高麗史》 권 130, 列傳 43, 叛逆 4, 林衍.

9) 《高麗史》 권 130, 列傳 43, 叛逆 4, 金俊.

10) 《高麗史》 권 122, 列傳 35, 酷吏, 宋吉儒.

(2) 김준의 집권

최항의 신임과 지지를 받으며 그에게 충성을 아끼지 않던 김준 등이 최항이 죽은 뒤 불과 1년도 못되어 최씨가를 등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최의의 집권과 함께 변화된 김준의 정치적 위치를 통해 설명될 수 있겠다. 김준은 최의가 崔良伯·柳能 만을 총애하여 신임하고 자신을 멀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소외시킨데 대해 불만을 품었다. 최의는 고종 44년(1257) 윤 4월에 최씨정권 집권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를 최항의 후계자로 추대한 자들은 최양백과 유능 그리고 宣仁烈이 중심이 된 일군의 정치세력이었다. 최양백은 김준과 함께 최항의 권력계승에서 공을 세워 별장이 되었던 최씨의 가노였다. 그와 김준과는 사돈 관계로, 최항의 집권기에 김준과 거의 비슷한 성격의 심복이었을 것이다. 최항이 병사하기 전에 최의를 계승자로 지목하고, 그를 보좌하도록 부탁받은 측근 문신이 선인열과 유능이었다. 최씨의 문객 崔瑛이나 蔡楨과 같은 대장군도 최의의 권력세습에 군사적 지지기반이 되었다. 최의는 자신의 권력계승에 주도적 역할을 한 자들에게 보다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김준을 위시한 나머지 최씨의 가신들은 최의의 권력계승을 계기로 집권자로부터 소외되었다. 따라서 최씨의 심복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이로부터 최씨권력기구 안에 가장 강력한 적대세력이 형성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김준 일파에게 정변의 불씨를 던진 것은 대장군 송길유의 유배 사건이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송길유는 김준의 은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가계가 천하고 병졸에서 입신한 자로 최항을 섬겨 夜別抄 指諭가 되었다. 그가 갑자기 출세하여 대장군까지 오르게 된 데에는 최항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 최항은 송길유를 賤系이기 때문에 御史中丞에 임명할 수 없다는 유사를 핏박하면서까지 임명장에 서경하도록 한 일도 있었다. 이런 송길유야말로 최항의 대표적인 심복이었다. 최항은 송길유를 시켜 자신의 정적을 살해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몽항전의 일환으로 백성들을 海島入保시키는 일을 맡기기도 하였다. 이에 송길유는 야별초를 이끌고 이를 독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가 행한 불법적인 행동이 후일 안찰사 宋彦庠의 탄핵을 받기에 이르렀다. 송길유가 안찰사의 탄핵을 받은 것은 최의가 집권한 후의 일이었는데, 그를 구하려는 김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길유는 최의에 의해 유배보내졌다. 바로 이

일이 생긴 다음부터 최의는 김준 등을 집견조차도 하지 않았다 한다.¹¹⁾

최씨의 가노였던 김준이 집권자인 최의에게서 소외된 사실은 그로 하여금 정치적 위기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사실 정치권력의 핵심에 근접해 있는 심복들 간에 집권자의 충임을 독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집권자가 강력한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심복들의 갈등은 표면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집권자의 심복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심복들의 갈등은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최의는 母系가 천했을 뿐만 아니라 연소했다 한다. 그의 심복에 대한 의존도가 컸음은 당연하고, 그런 만큼 그의 정권은 심복들의 사소한 갈등에 의해 자체 붕괴될 취약점이 내재되어 있었다. 집권자로부터 소외된 김준은 더 한층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이를 타결하기 위해서 집권자를 제거하는 수단까지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고종 45년(1258) 3월, 江都에서는 김준을 위시한 일군의 정치세력이 최의를 주살하는 정변에 성공하였다.¹²⁾ 정변의 모의에 있어서나 그 실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자들은 최씨의 가노들이었다. 김준 외에도 金承俊·李公柱, 그리고 金大材·金用材·金式材 등 김준의 세 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김승준은 김준의 친동생이었으며, 이공주는 최씨가를 3대에 걸쳐 섬겼던 인물로 가노들에게 대부적인 존재였다. 이공주와 이승준은 최항의 권력

11) 《高麗史》 권 122, 列傳 35, 酷吏, 宋吉儒.

鄭修芽, 〈金俊勢力의 形成과 그 向背〉(《東亞研究》 6, 1985), 416~417쪽.

12) 崔瑄를 제거한 정변이 진행된 대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神義軍 別抄의 장교였던 朴希實과 李延紹가 柳璈·金俊·金承俊·李公柱·朴松庇·林衍·朴天湜·車松祐·金洪就·金大材·金用材·金式材 등을 비밀리 만나, 정변의 이유를 말하고 4월 8일의 觀燈會를 이용하여 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같은 비밀스런 계획은 탄로되어 즉시 최의에게 보고되었다. 김준의 아들인 김대재가 그의 妻父인 崔良伯에게 협조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알려진 것이다. 최양백은 겉으로는 거사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곧 최의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최의는 즉시 유능을 불러 역습을 계획하였다. 유능은 이미 늦은 밤이므로 밤 사이에 변란은 생기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다음날 일찍이 거사음모자들을 체포해두었지 않으리라 제의했고, 최의도 여기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 정변은 다음 날로 미루어지지 않고 앞당겨져 바로 그날 늦은 밤에 일어났다. 김대재의 처는 생부인 최양백이 최의에게 보고한 사실을 듣고 김대재에게 알렸고, 이 사실이 김준에게 보고되면서 빨리 역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들을 데리고 신의군 진영으로 달려가서 박희실과 이연소에게 사태의 급박함을 전하고, 함께 모의에 가담했던 자들과 三別抄를 불러 모아 최의와 그의 측근들을 제거하였다(《高麗史》 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附 瑄).

승계에 기여한 공으로 각각 별장과 대정이라는 하급 무관직을 제수받았던 점에서, 김준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 출세한 인물들이다.¹³⁾ 따라서 이들 가노 세력은 김준이 그러했듯이, 최항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그의 심복이자 막강한 실력자로 성장하였다.

대사성 유경은 정변의 주동자 가운데 유일한 문신관료였다. 그는 무신정권 이후 재상가로 발돋움한 가문의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최항의 집권기부터였다. 이 시기에 오랜동안 정방에 소속되어 인사권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시험의 고시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가 문신임에도 불구하고 최항의 두터운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최항정권을 특징지어주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몽고정부는 그를 최항과 함께 出陸還都를 거부한 몇몇의 관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하기도 했다. 따라서 최항의 심복들 가운데 유경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하겠다.¹⁴⁾

정변의 또 다른 주모자였던 神義軍 都領郎將 朴希實과 指諭郎將 李延紹는 신의군의 단위부대를 지휘하였던 장교다. 이들은 김준에 의해 단순히 동원된 병력만은 아니었다. 최의를 제거하자는 논의가 제일 먼저 이들로부터 나왔던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崔瑄를 없애지 않으면 그들 자신이 죽음을 면하기 어려웠던 처지에 있었던 것 같다. 또 정변의 모의가 사전에 누설된 사실을 알자마자, 김준이 첫번째로 취한 행동도 이런 상황을 뒷받침해 준다. 그는 일단 신의군 진영으로 달려 가서 이들과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의논했던 것이다. 정변 직후의 衛社功臣에 이 두 사람이 나란히 3위와 4위의 높은 서열에 오르게 될 정도로 이 사건의 핵심인물이라고 하겠다.

박희실 등이 소속된 신의군은 左·右別抄와 더불어 삼별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던 최씨의 爪牙였다. 이 부대는 최항의 집권기에 해당하는 고종 41

13) 崔沆의 집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씨의 가노로는 金俊·李公柱·崔良伯으로, 이들은 崔怡집권시기에 殿前承旨였다가 최항의 집권기에 모두 별장이 되었다. 최항대에 와서 관직을 받게 된 최씨의 가노들 가운데는 校尉에 임명된 聶長守와 隊正에 보임된 金承俊도 있었다. 이들도 김준과 마찬가지로 최항의 권력계승을 계기로 크게 출세한 자들이라 하겠다(《高麗史》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附 沆·瑄).

14) 鄭修芽, 앞의 글, 418~419쪽.

년(1254)에서 동왕 44년(1257) 사이에 조직되었다. 당시는 몽고가 대거 침입한 후 철수의 조건으로 江華政府의 출륙환도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던 때이다. 집권자 최항으로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수 없었다. 출륙환도는 자신의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기에 항몽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관리들은 출륙환도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는 이러한 여론을 묵살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정국을 타개하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였다. 이에 몽고로부터 逃還한 사람들로 신의군을 조직하여 몽고와의 강화에 대한 쉼기를 박으려 했던 것이다.¹⁵⁾ 신의군이 이같은 정치적 목적 아래 조직되었던 만큼, 박희실·이연소는 최항의 정권유지에 선봉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야별초가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군사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항몽을 위한 것이든 혹은 다른 이유이든 최항의 정권유지를 위해 필요한 병력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변의 주체세력 중에는 삼별초 혹은 도방에 소속한 장교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박송비와 임연이다. 박송비는 원래 향리로 軍伍에서 출발하여 김준의 정변시에는 장군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송길유와 함께 김준을 최이에게 천거하였던 인물이다. 그가 속하였던 부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점은 그가 최이 이래로 최씨집권자나 김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도 역시 최씨가와 밀착된 무인이었고 따라서 야별초나 도방에 속하였을 가능성이 크다.¹⁶⁾

지금까지 설명한 바, 최의를 주살한 장본인은 공교롭게도 최씨무신정권을 떠받치던 핵심인물들이었다. 더구나 최항의 신임하에 급작스럽게 출세한 심복들로서, 그의 정권 유지에 앞장섰던 자들이었다. 따라서 최항의 심복 중의 심복이었던 송길유가 최의에 의하여 유배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들이 심각한 위기감을 갖게 되었던 점을 주목하면, 김준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군의 정치세력이 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최씨가의 몰락에 동원된 병력에는 김준의 심복이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임연이라든가 박기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할

15) 金塘澤, 〈崔氏政權과 그 軍事的 基盤〉(《高麗武人政權研究》, 1987), 196~199쪽.

16) 鄭修芽, 앞의 글, 418쪽.

金塘澤, 위의 책, 218~219쪽.

것이다. 이 밖에 정변에 참여한 다수의 하급 장교들은 어떤 경위로 김준의 군사력으로 동원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당시 임연이 都領郎將이라는 직위로 야별초의 단위부대를 지휘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며, 신의군 장교였던 박희실·이연소가 신의군을 동원하였으리라 본다. 그렇다면 최씨가 의존해 왔던 군사력이 정변에 이용되었고, 아울러 이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김준의 정치적 영향권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최의와 그의 측근을 없애는 것만이 정변의 목적은 아니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정변의 주체자들 가운데, 유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인이었고 그들 대부분은 신분이 낮은 하급 무관들이었다. 이런 사실은 김준 등이 당장 國權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한계점을 충분히 감안하였던 것 같다. 정변 중에 문신인 權密院使 崔曄을 덕망있는 대신이라 하여 추대하고, 거사에 호응을 호소하였다.¹⁷⁾ 이들이 내세운 정변의 명분은 왕정의 복구로서, 최의 일당을 주살하고 곧바로 국왕에게 復政하였다. 마치 무신정치가 종지부를 찍고 다시 무신란 전과 같이 왕정이 복구된 듯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정권이 서서히 정변의 주역들에 의해 장악되어가고 있었다.¹⁸⁾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들 내부의 결집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최의의 제거라는 공동의 과제가 실현된 다음에는 이들을 함께 묶어 줄 공통의 줄이 없었다. 오히려 누가 정권을 장악하는가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두고, 그들 각자는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변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고쳐진 공신의 숫자와 서열상의 변화가 이런 현실을 입증한다. 이는 곧 공신들의 정치적 위치가 변화하였음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戊午政變」이라 불리우는 이 거사가 성공한 다음 달인 고종 45년 4월 그 주역 8인에게 衛社功臣號가 주어졌는데, 그들의 서열을 보면 柳璥·金俊·朴希實·李延紹·朴松庇·金承俊·林衍·李公柱였다. 이 밖에 김준의 세 아들

17) 《高麗史》 권 129, 列傳 42, 叛逆 3, 崔忠獻 附 竝.

18) 거사의 명분을 얻기 위해 내세웠던 崔曄은 불과 3개월 후에 유배되었다. 그의 아들인 崔文本이 崔竑에게 정변의 계획을 보고한 밀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김준과 유경이 최은 부자의 사형을 요구하며 국왕과 대립하다가, 결국 유배보내기로 타협하기에 이른 것이다(《高麗史節要》 권 17, 고종 45년 6월).

을 포함하는 19명의 가담자도 同力輔佐功臣에 책봉되었다. 그 후 고종 46년(1259) 5월 12인의 공신이 端午宣賜를 받았는데, 이 때 추가된 4명의 공신은 金大材·金用材·金式材 그리고 車松祐 등이다. 인종 원년(1260)에는 12명의 공신에 다시 金洪就가 포함되어, 최종적으로 13명의 위사공신이 확정되었다. 추가된 공신은 정변 후에 정국의 진행 방향에 힘입어 새로이 부상되었으므로, 이들은 당시 변화된 실질적인 실력자와 연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5인 가운데 김준의 아들이 3인이며, 나머지 차송우와 김홍취는 원종 9년 김준을 제거하는 정변에서 그와 생사를 함께 나누거나 유배된 김준의 심복이었다.¹⁹⁾ 이로 미루어 볼 때, 공신 수의 증가는 공신집단 내에 김준의 측근세력이 확대되었음을 알려 준다.

이런 현상은 숫적 증대 외에 그들의 서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초 8인의 위사공신을 책봉할 때, 서열 1위였던 유경이 원종 원년(1260) 6월에 5위로 밀려나고 대신 김준이 1위로 부상하였다. 원종 3년(1262) 10월 功臣堂에 壁上圖形된 공신들은 김준·박희실·이연소(李仁桓)·김승준·박송비·유경·김대재·김용재·김직재(金碩材)·차송우·임연·이공주·김홍취 등의 서열로 정해졌다. 김준의 동생인 김승준이 서열 6위에서 4위로 뛰어오르고, 그의 아들인 김대재·김용재·김직재도 역시 7위에서 9위까지의 공신서열에 끼어들어 갔다. 반면에 유경의 서열은 6위로 한 단계 다시 떨어졌으며 임연과 이공주도 각기 서열 11위와 12위로 처지고 있다. 이러한 서열상의 변화도 김준 및 그의 측근세력이 새로이 부상한 반면, 나머지 공신들이 소외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²⁰⁾

실제로 노비의 신분에다 보잘 것 없는 직위에 있던 김준으로서는 과거 최씨 집권자가 행사하던 막강한 권력을 다시 장악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최씨가 가신에 대한 김준의 영향력은 최씨가 몰락해버린 상황에서 미미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은 정변 직후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변의 일등공신인 유경이 신속하

19) 許興植, <1262년 尙書都官貼의 분석(上)>(《韓國學報》 27, 1982), 47~48쪽.

成鳳鉉, <林衍政權에 관한 연구>(《湖西史學》 16, 1988), 26~27쪽.

20) 許興植, 위의 글, 34~39쪽.

成鳳鉉, 위의 글, 27쪽.

게 정권을 장악해 나갔던 것이다. 그는 최씨가 붕괴되자마자 정방을 편진의 옆에 둔 장본인으로, 자신은 樞密院右副承宣에 超遷되어 모든 인사 행정과 국가 기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휘하에 사적인 군사력도 결집시키고 있었다. 그 병력의 지휘관들은 장군 禹得圭나 지유 金得龍·별장 梁和 및 낭장 慶元祿과 같은 인물이었다. 반면에 자기와 함께 정변을 주도했던 다른 공신들의 세력을 억제시켰다. 공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문신이었던 유경은 승선직에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국왕과 밀착하기가 쉬웠고, 왕권을 배경으로 삼아서 점차 정권을 장악하여 갔다. 이러한 유경의 행동은 김준을 비롯한 나머지 공신들의 반발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김준은 그들 공신들과 다시 결합하여 고종 45년 11월 유경을 승선에서 簽書樞密院事로 좌천시키고, 그의 심복인 우득규 등의 장교들을 제거하기에 이르렀다.²¹⁾

유경이 실각한 뒤에는 김준이 공신들의 대표자가 되어 무신정치를 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확고한 권력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김준으로서는 공신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들이 60여 년 동안 정권을 장악했던 최씨가를 몰락시킨 당사자들이자,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무인집단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각별한 예우를 염두에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세력이 자신을 위협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 대상으로서 제일 먼저 지목이 가는 자는 박희실과 이연소 같은 신의군 장교였다. 정변 당시 나타난 그의 역할이나 공신의 서열로 보아도 공신 집단 안에서 김준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고 하겠다.

정변 이후 박희실의 정치적 활동은 주로 몽고와의 외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정변에 참여하였던 장군 趙文柱·朴天植 등과 함께 고종 45년 12월 몽고에 사신으로 가서, 이듬해인 원종 즉위년 8월에 귀국하였다. 西京과 義州에 들어와 주둔하고 있던 몽고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다. 같은 해 11월 출륙환도가 지연되는 것을 책망하는 몽고 사신에게, 그는 嗣王 즉 고종을 이어 등극해야 할 태자가 귀국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도가 불가능하다는 반론을 펴서 사신을 제압하였다. 당시 대몽정책은 새로운 정권의 안정과 관련하여 더 말할 나위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런

21) 鄭修芽, 앞의 글, 436쪽.

만큼 사신의 역할도 큰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박희실 등의 정변 핵심 인물이 대몽외교에 주력했던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원종 원년부터 갑자기 박희실의 정치적 활동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²²⁾ 지금 그 이유야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김준의 집권강화 과정에서 박희실 등이 소외되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이쩌면 정변 이후 그의 정치적 성격이 김준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이런 추측은 그가 몽고에서 귀국할 때, 元의 황제가 그에게 金符를 주어 萬戶로 삼았다는 사실에서 나올 수 있겠다.²³⁾ 몽고측에서 親元勢力을 부식시키려는 목적으로 고려의 군관에게 준 직책이 만호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박희실을 위시한 일부 공신의 성격이 오히려 친원적인 성향으로 기울어갔던 게 아닌가 한다. 사실 박희실이 정변 직후 대몽사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정변의 주체자였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사신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미 그는 고종 25년(1238)에 義州別將의 직을 띠고, 사신 金寶鼎 등을 수행하여 몽고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²⁴⁾ 더군다나 신의군이 몽고로부터의 逃還人으로 조직되었다는 사실에서 그가 뒤에도 어떤 형태로든 몽고와 접촉을 가졌음을 알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점차 몽고의 압력이 가중되고 국내에서는 강화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던 당시 정황에다가, 이제 몽고로부터 만호의 직까지 제수받은 박희실이 군이 향몽을 고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타협적인 입장이거나 더 나아가 친원적인 정치 노선을 띠게 되지 않았나 한다.

박희실이 몽고에 파견된 시기는 고종 말년과 국왕의 자리가 비어 있던 원종 즉위년이었다. 뒤에 원종이 된 태자 僖은 고종 46년 4월 부왕의 병세가 위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몽고로 향했다. 몽고측이 군대를 철수하는 조건으로 태자의 입조를 독촉했기 때문이다. 왕위를 이어야 하는 태자가 궐위인 가운데 6월 고종이 승하하였다. 이듬해 4월 태자가 귀국할 때까지 국정은 임시로 太孫에게 맡겨졌다. 요컨대 박희실과 같은 건세세력이 없는데다 왕권마저 행사되기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집권 강화를 모색하던 김준에게 절호의

22) 鄭修芽, 위의 글, 420~424·436~437쪽.

23) 《高麗史節要》권 17, 원종 즉위년 8월.

24) 《元高麗紀事》태종 10·11년(고려 고종 25·26년).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그의 세 아들과 심복 차송우가 바로 5월에 위사공신에 추가된 것도 이러한 권력 장악의 한 단면으로 여겨진다.

이 때 김준은 군복을 입고, 갑옷으로 무장한 군사들과 동궁의 관속을 거느리고 태손 諡를 받들어 대궐에 들어갔다고 한다. 당시 그는 우부승선의 직책에 올랐는데, 이는 유경이 정변 직후에 모든 인사 행정과 국가 기무를 장악했을 때의 바로 그 관직이었다. 김준은 이 기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한 무신 집권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자신의 집권체제 안으로 박희실을 또 다시 받아 들일 리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김준이 무신정권의 성격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出陸講和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군사력을 보유한 친몽세력의 존재가 김준정권에 치명적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이유로 박희실 등은 김준의 집권체제 밖으로 밀려났던 것으로 여겨진다.

원종 원년(1260) 4월 태자는 몽고로부터 귀국하여 왕위에 올랐다. 5월에는 1년 가까이 국왕을 대신하였던 아들 諡를 태자로 책봉하였다. 태자의 책봉에는 원종의 次妃 王氏 등의 방해가 있었으나 김준의 후원으로 순조로울 수 있었다. 곧 이어 6월에 위사공신의 서열이 고쳐져서 김준이 1위에 오르고 이내 權密院使로 승진하였다. 이제 김준은 그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경·박희실 등의 공신세력을 제압하고, 국왕의 등극과 태자의 책봉을 지지할 수 있는 실권자의 자리를 확보하기에 이른 것이다.

김준의 권력장악이 확실시된 원종 3년 彌勒寺의 功臣堂에는 13명의 위사공신이 벽상도형되었다. 여기서 김준 및 그의 자제를 주축으로 한 공신세력의 재편성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최이가 다시 遷都功臣으로 숭앙되어 공신당에 도형이 마련된 사실이다. 그는 최씨정권의 붕괴와 동시에 부정되고 비판당해 왔던 터였다. 대몽항쟁을 주도한 최이가 천도의 공으로 추념받아 공신이 된 것은 과거의 항전에 대한 긍정적 의미부여라 할 수 있다. 요건대 최이의 천도와 항몽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최이의 전철을 밟아 강력하게 집권하겠다는 김준의 의지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겠다.²⁵⁾

25) 許興植, 앞의 글(1982), 48쪽.

김준에게는 2년 후에 권좌의 정상을 치닫게 된 계기가 왔다. 원종은 5년(1264) 8월에 몽고의 요구에 의해 元行하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김준을 교정 별감으로 삼아 국가의 非違를 규찰하는 권한을 주었는가 하면, 監國의 대권을 맡김으로써 실제로 국내에서 국왕과 같은 권력을 부여해 주었다. 이것은 반대파의 모든 관료나 더 나아가 위협의 우려가 되는 인물들을 적법하게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나 다름없었다.²⁶⁾ 김준을 추천해서 출세시켰던 은인인 박송비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원종이 몽고로 떠난 직후 파직 당했다. 풍수를 업으로 하는 白勝賢의 말에 따라 假闕을 지어 원종의 入朝를 막아 보고자 한 김준에게 반대하였기 때문이다.²⁷⁾ 김준의 정책에 순순히 따르려 하지 않은 자는 비록 자신의 도당일지라도 제거함으로써, 그의 독단적인 무신정권을 더욱 강화시켜 나간 것이다. 그 해 12월 귀국한 원종은 그를 海陽侯로 봉하고 晉陽公의 고사에 따라 예우하도록 함으로써 다시 최씨무신 집권기의 체제로 되돌아 가고 있었다.

2) 임연 · 임유무 정권

(1) 임연의 출세

林衍은 鎭州를 관향으로 하는 향리 출신의 인물로 여겨진다.²⁸⁾ 그는 몽고 군사를 물리친 전공으로 選軍되어, 경군의 장교인 대정에 임명되었다. 그가 중앙에 진출한 후에, 김준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남의 부인을 간통한 범죄 때문이었다. 이 때에 김준은 임연을 힘써 구하여 죄를 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거하여 낭장이 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임연은 김준을 父로, 김승준을 숙부로까지 부르는 긴밀한 사이가 되었다.

김준은 최의에게 그를 추천할 때 장사로서 쓸만한 인물임을 강조하였다. 그

26) 金塘澤, 앞의 책, 77~78쪽.

27) 《高麗史》권 26, 世家 26, 원종 5년 8월 임자 및 권 123, 列傳 36, 嬖幸 1, 白勝賢.

28) 林衍의 아버지는 鎭州 향리의 딸과 결혼하여 林衍을 낳고 鎭州를 貫鄉으로 삼았다(《高麗史》권 130, 列傳 43, 叛逆 4, 林衍). 成鳳鉉은 高麗時代 향리가 향리 상호간의 혼인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주목해서, 林衍과 그의 아버지가 향리였을 것으로 보았다(成鳳鉉, 앞의 글, 21쪽).

렇다면 그의 무사적 자질이 높이 평가되어, 진급과 동시에 최씨의 사적 병력으로 활동하였을 것이다. 이후 그의 활동이 주로 야별초를 지휘한 점으로 미루어, 야별초의 부대장 같은 임무를 띠지 않았나 짐작된다.²⁹⁾ 김준이 임연을 구원하였던 시기는 김준이 집권자인 최의한테 소외당하고 정치적으로 위기를 느끼던 최씨정권의 말기였다. 이러한 때 김준이 임연을 적극 구원하고 천거하였던 것은 김준이 정치적 위기를 당하여 자신의 세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임연의 무사로서의 자질은 김준이 그를 적극적으로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 이유가 되었으리라 본다. 요컨대 林衍은 최씨정권 말기에 지지세력을 강화해 나가던 김준에게 무사적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되고 출세하게 된 김준의 심복이었다. 따라서 임연이 최씨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김준에 대한 봉사와 충성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임연이 김준의 측근 정치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최의를 주살한 「戊午政變」에서 핵심적인 주모자로 활약한 데에서 찾아진다. 그는 정변에 성공한 직후 8인의 위사공신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정치적 지위도 갑자기 상승하였다. 그의 무관직은 정변시 도령낭장이었다가 원종 3년(1262) 상장군으로 진출하였다. 그후 김준을 제거한 원종 9년(1268)에 그의 관직은 樞密院副使에 이르고 있다.³⁰⁾ 김준이 집권 후 정치세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변주체자들이 정계에서 제거된 반면 임연은 고위관직에까지 승진하였다.³¹⁾ 이는 그가 김준의 측근 심복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임연은 김준 형제 다음으로 손꼽힐 만큼 김준정권을 지탱시킨 핵심적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金俊政權을 유지하기 위한 임연의 역량은 군사적인 활동에서 제일 먼저 찾아 볼 수가 있다. 임연이 김준의 여러 아들과 그의 일당을 살해하는데 이용한 군사력은 야별초였다.³²⁾ 그렇다면 김준정권에서 야별초는 임연의 지휘 아래에 있었고, 임연에 의하여 사적으로 동원될 수도 있었던 병력이라 할 수 있겠다.

29) 成鳳鉉, 위의 글, 24~25쪽.

30) 《高麗史》권 130, 列傳 43, 叛逆 4, 林衍.

31) 앞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정변 직후 衛社功臣에 책봉된 8인의 정변주체자 가운데 金俊·金承俊·林衍만이 金俊政權의 말기까지 정치적 활동을 하였다. 李公柱의 경우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일찍 死去하거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32) 《高麗史》권 130, 列傳 43, 叛逆 4, 金俊.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연이 야별초의 낭장으로 진출하여 김준집권기에 상장군으로 진급하였기 때문에, 그가 야별초를 지휘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졌으리라 여겨진다. 더군다나 김준이 최씨의 가노 출신임을 감안하면 김준은 야별초를 직접 장악하지는 못하였고, 그를 지지하는 야별초의 지휘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수한 것이 아닐까 한다. 정권을 장악한 뒤에도 임연은 정적을 제거하거나 국왕을 폐위하고 재추를 위협할 때마다 야별초-또는 야별초를 포함한 삼별초-의 군사를 동원하였다. 요컨대 임연은 야별초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군사적 실력자로서 김준정권에 참여하였다고 본다.

무신정권 하에서 군사적인 역량은 곧 정치·사회적 지위와 직결된다. 임연도 역시 군사적 역량을 배경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 나갔다. 특히 그의 자녀들이 당대 명문의 자제들과 혼인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예이다. 임연은 그의 아들인 林惟茂를 孔巖 許氏 가문인 許珙의 딸과 억지로 혼인시키려 한 적이 있었다. 허공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쳐 그 뜻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 임연은 원종에게 호소하면서까지 그 혼인을 성사시키려 하였다.³³⁾ 그런데 공암 허씨 집안은 무신란 이전부터 이미 문벌귀족으로 입지를 굳힌 가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무신집권기에도 허공의 부친은 추밀원부사를 지냈고, 허공 자신은 원종대에 승진을 거듭하여 동왕 10년에 右副承宣·吏部侍郎·知御史臺事에 오르는 등 여전히 유력한 문벌이었다.³⁴⁾ 그렇다면 임연은 당대의 명문들과의 혼인을 통해 자신의 정치·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의도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정은 그의 자녀들의 혼인관계를 추적해보면 더욱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허공에게 혼인을 거절당한 후에 임유무는 李應烈的 딸과 혼인했다. 이응렬은 出陸還都를 거부했던 최항정권의 핵심세력으로, 김준의 집권시에도 승선으로서 공신책봉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인물이다.³⁵⁾ 이후 그는 임연의 지지자가 되어 임연이 원종을 폐위시킬 때 적극 가담하기도 하였다.³⁶⁾

33) 《高麗史》권 105, 列傳 18, 許珙.

34) 成鳳鉉, 앞의 글, 32쪽.

35) 《高麗史》권 24, 世家 24, 고종 41년 7월 무오.

〈元宗三年 尙書都官貼〉(《李基白 編著,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一志社, 1987), 79~80쪽.

36) 《高麗史節要》권 18, 원종 10년 6월 임진.

《高麗史》권 26, 世家 26, 원종 11년 5월 계축.

蔡仁揆는 임연의 3남인 林惟綱을 사위로 삼았다. 그의 가문은 蔡松年이 최충헌의 신임을 얻어 참지정사에까지 올라 平康 蔡氏 가문을 일으킨 이래, 그의 아버지 蔡楨에 의해 무신정권기의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하였다. 최항의 문객 대장군으로 활약했던 채정은 원종대에도 右副承宣·樞密院副使·御史大夫 등을 역임하였고, 鐵原 崔氏인 崔瑛과 통혼관계를 맺고 있었다.³⁷⁾

최영은 채인규의 장인으로 임유인의 처외조가 되므로 간접적으로 임연과 통혼관계가 있다. 철원 최씨는 고려시대 대표적인 귀족가문이었다. 최영의 4대조인 최유청은 무신란 이후에도 中書侍郎平章事를 지내는 등 가문을 보존하였으며, 아버지 崔宗峻도 고종 때에 15년간 문하시중을 역임했다. 최영 자신도 채정과 더불어 최항의 문객 대장군으로 최의의 권력 세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영은 원종 폐위사건에 가담한 임연의 측근 정치인이었다.³⁸⁾

임연의 사위인 崔宗紹는 世家 자제로서 임연의 집권 이전부터 임유무의 살해로 정권이 붕괴되기까지, 임연정권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였다. 임연의 또 다른 사위인 洪奎는 무신란 이전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갖춘 南陽 洪氏 가문의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 洪진縉은 동지추밀원사를 지내는 등 당시의 정치적 실력자였다. 비록 나중에 임유무와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나, 홍규는 임연의 생존시에는 그의 사위로서 정치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이다.³⁹⁾

이상을 통해 임연은 고려 전기 적어도 무신집권기부터 유력한 가문으로 성장한 집안들과 사돈관계를 맺었음을 알겠다. 이들 가문들은 임연과의 혼인을 통해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임연에게 정치·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주었을 것이다. 그 결과 김준정권 말기에 이르면,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임연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2) 임연·임유무의 집권

金俊의 심복 중의 심복이었던 林衍은 김준이 집권한 후 10년째가 되던 원종 9년(1268)에 그를 계거하고 새로운 무신정권을 탄생시켰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김준과 임연 사이의 관계 악화에 있었다. 김준의 집권이 임연

37) 成鳳鉉, 앞의 글, 34~35쪽.

38) 成鳳鉉, 위의 글, 34쪽.

39) 成鳳鉉, 위의 글, 35~37쪽.

의 정치적 지위를 갑자기 상승시킨 계기였지만, 김준의 독재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임연은 점차 그로부터 소외되었던 것 같다. 衛社功臣의 서열상 변화에 다시 주목한다면, 고종 45년에 임연은 7위의 서열로 공신에 책봉되었다. 그러나 원종 3년에는 새로이 공신에 오른 김준의 여러 아들과 차송우에 밀려 그는 11위의 서열로 떨어졌다. 유경이나 박송비 등과 같이 실각하여 집권체제 밖으로 내몰리는 처지는 아니었으나 임연도 결코 김준의 독단적인 지배체제를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연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려던 의도도 이와 같은 불만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김준의 독단적인 지배체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임연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정치세력이 형성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연이 김준의 아들과 田地를 가지고 다툰 일이 있었는데, 이를 지켜본 김준은 자신이 죽은 뒤에 벌어질지 모르는 일을 크게 우려하면서 그를 경계하였다. 집권자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과 경제적인 이권을 두고 대결할 정도라면, 이보다 더 우려할 만한 일이란 정치적인 모반을 의미함은 쉽게 짐작이 간다. 마침내 임연의 처가 자기 손으로 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김준은 그녀를 귀양보내고자 하였다.⁴⁰⁾ 이에 이르러 두 사람 사이는 적대적 관계로 치달아 조만간 김준이 임연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드디어 원종 9년(1268) 12월에 임연이 김준을 살해한 「戊辰政變」이 일어났다. 임연과 그의 아들 임유무는 정변을 계획하고 야별초를 동원하여 김준일당을 제거하는 등 정변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정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들 가운데에는 임연의 측근자 내지는 심복으로 생각되지 않는 일군의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다. 가령 낭장 康允紹와 같은 사람이 그러하였다. 그는 본래 가노 출신이었지만 몽고어를 해득하여 원종의 신임을 받아 출세한 인물이다. 그는 임연을 사주하여 김준을 타도하도록 권하면서 한편으로는 국왕에게 김준을 제거할 수 있는 인물로서 임연을 추천하여 국왕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내었다.⁴¹⁾ 이러한 사실은 강윤소가 국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는 점과 그가

40) 《高麗史節要》 권 18, 원종 9년 12월 정유.

41) 《高麗史》 권 123, 列傳 36, 嬖幸 1, 康允紹 및 권 130, 列傳 43, 叛逆 4, 金俊.

김준을 타도하기 위하여 임연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 주고 있다.

임연이 김준 일파를 제거하는 데에는 궁궐 안에 있는 宦者와 결탁하는 일이 중요하였는데, 그는 崔璵와 金鏡 등을 통하여 원종으로부터 김준을 제거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냈다. 이들 환자들은 왕명이라 하여 김준과 김승준을 궁궐 안으로 끌어들여 抄 金尙挺·宦者 金子廷 그리고 그의 동생 金子厚 등에게 명령하여 암살하도록 하였다. 궁궐 안에서 使命에 대비하는 관노였던 抄와⁴²⁾ 국왕의 측근인 환자들이 직접 김준 형제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원종이 정변의 주체자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원종과 그의 측근세력은 거사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여러 차례 망설였던 적이 있다.⁴³⁾ 그만큼 김준세력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김준정권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대부분의 무신들이 여전히 김준을 지지하던 상황이고 보면, 당시에 임연과 원종이 이들과 상대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으리라 짐작된다.⁴⁴⁾ 더군다나 정변 이전에 원종이 임연을 간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 또한 원만하지 못했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종이 임연과 연합하여 김준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이유는, 원종도 임연 만큼이나 절박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준은 독재체제가 굳어져 가면서 쇠씨집권자와 다름없이 왕권까지도 억압하는 초월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국정을 마음대로 하기에 이르렀다. 원종 9년 3월에 김준은 자신의 항몽책에 반대한 원종을 폐위시키려고 하였다. 고려의 태자가 입조하여 강화를 맺고 몽고군이 철수한 지 꼭 10년이 되지만 고려의 出陸還都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몽고가 정복한 나라에서 빠짐없이 요구했던 군사징발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몽고는 당시의 실력자 김준과 그의 자제를 입조토록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하여 그는 입조 요구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몽고 사신을 죽이고 더 깊은 海中

42) 洪承基, 앞의 책, 346쪽.

43) 《高麗史節要》 권 18, 원종 9년 12월 정유.

44) 元宗과 林衍을 연합시킨 康允紹가 원종에게 金俊의 제거를 권유하며 언급한 내용을 보면, 김준과 임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며, 당시에 여러 공신들이 모두 김준과 더불어 잘 지냈으나 오직 임연만이 그에게 불지 않았다고 한다(《高麗史》 권 130, 列傳 43, 叛逆 4, 林衍).

45) 《高麗史》 권 105, 列傳 18, 許珩.

으로 천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을 왕이 받아들이지 않자 김준은 원종을 폐위시킬 것까지 고려하였다.⁴⁶⁾

이 해 11월 그러니까 「戊辰政變」이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에 김준이 국왕에게 바치는 御膳을 마음대로 빼앗은 사건도 발생했다. 그의 아들 金鯢의 종이 龍山別監 李碩과 사소한 감정이 있던 중 이석의 배가 대궐에 바치는 음식물을 신고 강에 대자 김준이 야별초를 보내어 그 어선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김준의 사적인 감정이 왕권까지도 무시한 하나의 사례로서, 원종이 김준을 더 한층 증오하는 계기가 되었다.⁴⁷⁾ 따라서 원종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그와 대적할 만한 역량을 갖춘 임연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던 듯싶다.

김준정권을 붕괴시킨 주모자는 임연과 국왕이겠지만, 이들의 거사가 당시의 정계에서 지지를 받아야 했을 것이다. 특히 김준정권을 떠받들어 왔던 무신들의 호응이 필요했으리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대장군 李汾禧나 동지추밀원사 趙璈와 장군 趙允蕃 부자가 무진정변의 위사공신이 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겠다. 이들이 정변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가는 알 수 없다. 이는 달리 말하면 김준 일당을 제거하는 일을 주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이다. 이분희는 그의 동생 李楫과 함께 김준의 심복이 되었으며 아울러 원종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로, 그의 아버지인 대장군 李松이 崔怡의 문객이었던 이래로 무신정권에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한 실력자였다. 임연은 김준을 죽이고 이분희를 의심하여 그를 회유코자 대장군으로 승진시키고 곧이어 다시 상장군을 제수하였다.⁴⁸⁾ 이분희가 임연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였는데도 위사공신이 된 것은 그가 당시 무신집권층 내지는 국왕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한다. 이런 추측은 趙璈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조오는 평소에 공손한 인품으로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그는 나중에 임연이 원종을 폐위할 때 병을 청탁하여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종의 복위 직후에 일어난 임연의 암살 모의에 깊이 관여하였다.⁴⁹⁾ 요컨대 임연과는 정치적 성격을 달리하는 무신들이 무신정변의 공신이 되었으며, 이들은

46) 《高麗史節要》 권 18, 원종 9년 3월.

47) 《高麗史節要》 권 18, 원종 9년 11월.

48) 《高麗史》 권 123, 列傳 36, 嬖幸 1, 李汾禧.

49) 成鳳鉉, 앞의 글, 42쪽.

임연보다도 국왕인 원종을 보위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정변의 성공으로 국왕과 임연으로 대표되는 두 정치세력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듬해인 원종 10년(1269) 6월, 임연은 야별초를 동원하여 金鏡·崔璵를 살해하고 어사대부 張秀烈과 대장군 奇蘊을 유배보냈다. 임연의 주장에 따르면 김경 등을 제거한 이유는 이들이 원종과 공모해서 자신을 살해하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수열 등은 김준의 집 재산을 적몰하여 그 보화를 김경과 최은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경과 최은은 김준을 제거할 때 공을 세운 宦者였고 장수열은 원종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 기온도 원종의 서모가 낳은 누이의 사위로 機密에 참여하던 터였다.⁵⁰⁾ 그렇다면 이들 모두는 원종의 측근세력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임연과 원종의 측근세력들 사이에 권력투쟁을 시사한다. 당시 정국의 판도가 김경 등에게 기울고 있었고 이에 불안을 느낀 임연이 먼저 원종의 측근을 제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임연이 장차 자기를 해칠까 두려워한 인물에 원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종의 측근을 제거한 임연은 곧 이어 원종이 이들과 공모하여 자기를 살해하려 했다는 이유로 채추에게 국왕 폐위를 요구하였다.⁵¹⁾ 그가 김준을 거세하고 집권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원종이지만,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는데 거북한 존재였고, 또 몽고와 연계되어 親蒙으로 기온 원종이 있는 한 그의 정치적 장래가 불안하였던 것이다. 임연은 폐위를 기도한 지 3일 뒤에 삼별초와 도방을 동원하여 원종을 상왕으로 물러선 형식을 취하게 하는 한편, 원종의 아우인 安慶公 滄을 옹립하였다.⁵²⁾ 그리고 그 자신은 창에 의하여 교정별감에 임명되었고, 비로소 무신정권의 집권자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었다.⁵³⁾

그러나 원종의 폐위는 국내외의 반발을 받게 되었다. 마침 몽고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들은 태자는 다시 몽고로 돌아가 특별한 조치를 호소하였다. 몽고는 강력한 어조로 그 일을 비난하며 원종의 복위를 명하였다. 동시에 원종과 임연의 입조를 요구하는 조서를 보내면서 몽고군의 고려 진입을 준비하였다. 임연은 의외로 강경한 몽고의 압력에 굴복하여 폐위 5개

50) 《高麗史節要》 권 18, 원종 10년 6월.

51) 《高麗史節要》 권 18, 원종 10년 6월 임진.

52) 《高麗史》 권 26, 世家 26, 원종 10년 6월 을미.

53) 《高麗史》 권 26, 世家 26, 원종 10년 7월 병오.

월만에 원종을 복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⁵⁴⁾ 대몽관계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임연정권의 한계는 국왕의 친위집단을 크게 고무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즉 원종이 복위된 후 15일만에 친위적 성격의 무신들에 의해 임연을 살해하려는 기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전에 임연에게 알려지게 되어 실패하였다. 임연 살해를 모의했던 대표자인 조오는 戊辰政變에서 衛社功臣에 책봉된 자다. 임연이 원종을 폐위하고 권세를 멋대로 휘두르게 되자 조야의 마음이 조오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임연에 의한 국왕의 폐위는 대다수의 조정관료들이 임연정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와는 반대로 친위적 무신인 조오는 복위한 원종과 정계의 지지를 받으며 정치적으로 부상하였고 마침내 임연의 제거에 앞장섰던 것이다.⁵⁵⁾

원종 10년 12월 친위적 성격의 정변이 실패하자 원종은 돌연히 몽고로 떠나갔다.⁵⁶⁾ 이는 몽고의 입조 요구에 응하는 것이었으나, 정변의 실패에 따른 신변상의 안전이 불투명했기 때문일 것이다. 원종 11년(1270) 초에 몽고에 도착한 그는 원의 世祖를 만나 혼인 및 군대를 청하였다.⁵⁷⁾ 몽고 왕실과의 혼인이 성사된다면, 원나라는 고려 왕실의 막강한 정치적 배경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또 몽고의 군사를 빌어 임연을 제거하고 왕정복고를 기도하고자 했다. 원종은 元帝에게서 병력지원만을 허락받아 元軍을 거느리고 고려에 돌아왔다. 그 동안 불안감 속에 삼별초를 각 섬에 보내어 入保하게 하고 몽고와 항전할 준비를 갖추던 임연은 등창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監國을 맡았던 順安侯 琮은 그의 아들 임유무를 교정별감으로 삼아 그 지위를 계승시켰다.⁵⁸⁾

3) 붕괴기 무신정권의 성격

최씨정권이 몰락한 이후에도 金俊과 林衍 부자는 각기 교정별감이 되어 무신정치를 계속하였다. 이들도 역시 최씨집권자와 다름없이 왕권까지도 침

54) 《高麗史》 권 26, 世家 26, 원종 10년 11월 갑자.

55) 成鳳鉉, 앞의 글, 45~46쪽.

56) 《高麗史》 권 26, 世家 26, 원종 10년 12월 경인.

57) 《高麗史》 권 26, 世家 26, 원종 11년 2월 갑술.

58) 《高麗史》 권 26, 世家 26, 원종 11년 2월 을미.

해하는 초월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예컨대 김준은 원종 9년에 국왕에게 바쳐져야 할 內膳船을 탈취하고, 몽고의 사신을 죽이고자 한 음모를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원종을 폐위시키고자 하였다. 임연의 경우는 실제로 원종을 폐하고 安慶公 溫을 세우기까지 하였다.

이런 점은 문무 원로 중심의 공식적인 정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였다. 원종 9년 3월에 김준과 그 일파가 몽고 사신을 살해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재추에 고하니 그들은 깜짝 놀랐으나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는 임연 정권에서도 찾아진다. 원종 10년 6월에 임연이 원종을 폐위하고자 재추에 의논할 때, 재추들이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고 결국 侍中 李藏用도 어쩔 수 없이 임연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에서 김준이나 임연정권이 무신정권으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냈지만, 이들 정권이 최씨정권에 비하여 분명히 약체화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전형적인 무신정권이라 할 수 있는 崔氏政權이 집권자의 확고한 지위와 독자적인 기구의 수립·막대한 사병집단의 형성 그리고 강대한 경제력의 축적을 특징으로 하였는데 대하여, 김준·임연은 그 모든 것이 이보다 약화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김준에서 임연으로 이어짐에 따라 더하여 갔던 것이다.

정계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김준은 각별히 군사력에 의존해서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무력장치로서의 사병은 최씨가 그것에 비하여 훨씬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 최씨의 사병집단 중에서도 가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家兵만을 통수하였던 김준이고 보면, 그가 집권과 동시에 최씨의 사적 병력이나 그 밖의 군사력을 자신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김준정권의 군사적 기반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수의 무인 공신들에 의해 점유되었고, 이 점은 곧 김준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다. 임연에 의해 그의 정권이 무력하게 쓰러지게 된 까닭도 여기서 찾아진다.

원종의 밀명에 의해 임유무를 제거함으로써 무신정권에 종지부를 찍게 한 장본인은 御史中丞 洪奎와 直門下省事 宋松禮였다. 홍규는 임유무의 매부 즉 임연의 사위로 무신란 이전부터 이미 어느 정도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여 온 南陽 洪氏 일족이었다. 명문과의 혼인으로 정치세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임연

이 결국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 되었던 자에 의해 몰락한 것이다. 또 한 사람의 주모자인 송송례는 戊午政變에 낭장으로 참여해서 同力輔佐功臣으로 책봉되었던 인물이다.⁵⁹⁾ 따라서 그는 김준·임연정권에 참여하여 고위관료로 출세하였다. 그의 아들인 衛士長 宋琰과 宋玠은 임유무를 주축한 직접적인 실행자였다. 특히 송분은 당시에 神義軍 別抄를 통수하는 장군의 직임을 맡았으므로 신의군을 송송례에게 속하게 할 수 있었고, 신의군을 이끌고 左右邊三別抄에 이르러 삼별초를 회유하여 그들을 임유무의 주축에 동원하였다.⁶⁰⁾ 명문가인 친인척을 배경으로 한 정치적 기반과 삼별초의 군사력 위에 성립한 임연정권이고 보면, 그 자체의 기반은 매우 위태로운 것이었다.

무신정권을 유지한 군사적·정치적 기반이 미약해짐에 따라 무신집권자로서의 김준과 임연의 지위도 확고할 수 없었다. 특히 이들과 국왕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최씨집권자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김준이 국왕에게 바치는 內膳船을 빼앗은 후, 원종의 나무람을 받자 당황하여 되돌리려 했던 사건이나, 몽고 사신을 죽이고 더 깊은 海中으로 천도하자는 김준의 항몽책을 국왕이 정면으로 반박하여 받아 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펴 볼 수 있다. 최씨의 항몽책을 무력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전의 왕권과는 사뭇 다르다 하겠다.

이 시기 왕권의 신장에 따른 또 하나의 변화는 무신정권을 몰락시킨 주체가 바로 국왕이었다는 점이다. 비록 임연과의 연합이 있기는 하였으나, 김준의 주축을 원종과 그의 측근이 직접 모의하고 실행하였다. 무신정권의 종식을 의미하는 임유무의 제거도 원종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임연정권은 수립 초기 단계부터 이른바 친위세력들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宦者들과 국왕의 측근세력이 임연과 벌인 권력투쟁이나 원종의 복위 직후에 일어난 친위적 성격의 무신정변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겠다. 더구나 김준정권을 유지시켰던 무인 공신들조차도 임연정권기에 들어서면서, 무신집권자에게서 이탈되어 국왕의 세력에 가담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김준을 몰락시킨 임연 자신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과거 무신집권자의 교체와 국왕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마음대로 국왕을

59) <元宗三年尙書都官貼>, 앞의 책, 84쪽.

60) 《元高麗紀事》至元 8년(고려 원종 12년) 정월 12일.

폐위하거나 옹위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왕권의 강화와 그에 상반되는 무신정권의 약화를 확인하게 된다.

무신정권의 붕괴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압력이었다. 몽고세력의 간섭이 무신정권의 존속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누구나다 아는 바와 같이 항몽정책의 주동자는 무신정권이었으므로 몽고는 무신집권자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무신정치로 무력화된 왕권은 대외적으로 몽고세력과 결합함으로써 강화되었고 대내적으로는 독자적인 무신정권의 지속을 방해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崔氏政權의 몰락 자체도 장기간에 걸친 몽고와의 항쟁에 의한 내부적 분열이라 할 수 있고, 김준의 주륙도 결국은 그의 심한 독재와 항몽태도로 원종과의 사이가 나빠진 데 원인이 있었다. 더 나아가 林衍政權은 그 스스로가 폐위한 원종을 몽고의 압력으로 복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정치적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 몰락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鄭修芽〉